금주의 법구–〈대길상경〉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하지 말라.
슬기로운 이와 가까이 지내라.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섬겨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64호 구독신청 (02)2004-8212 창간 25 1994~2019 (불기 2563년 음력 9월 18일)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經 읽고 싶다” 부탁에 화엄경 ‘덧말’ 입히다

서우담 대표 〈덧말 불화엄경〉 역경 불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탄허 현토 〈불화엄경〉 음 달아
원고지 1만3천 장 3년간 작업
잘못 알려진 한자음 수정키도
출판제작비 독지가 스님 후원

탄허 〈불화엄경〉 5종류 출간
육성 강설 유튜브에 남기고파

서울 낙원동 인근 자리한 교림출판사. 몇 명의 스님이 서우담 대표를 찾아왔다. 스님들은 출가 시절 근현대 대강백 탄허 스님을 시봉했던 서 대표에게 부탁을 했다. “중 된지 30년이 됐는데 무식해 한자를 몰라서 경전 한 줄을 못 읽었다. 경전을 읽고 독송하고 싶다.”

스님들의 부탁을 듣는 순간 서 대표는 50여 년 전 춘성 스님의 당부가 떠올랐다. “선방 수좌를 위해 〈화엄경〉에 우리말 덧말을 붙여라.”

시절 인연이 왔다고 생각한 서 대표는 곧바로 〈화엄경〉에 한글 음을 다는 작업에 착수했다. 3년 후 서 대표는 〈덧말 대방광 불화엄경〉을 세상에 선보였다.

서 대표는 10월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방광 불화엄경〉에 덧말을 달아 남녀노소 누구나 한번쯤 읽어볼 수 있게 단락을 달아 〈덧말 대방광 불화엄경〉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그가 덧말을 단 〈화엄경〉은 탄허 스님이 현토(懸吐, 한문 구절 사이에 우리말 조사나 어미를 붙이는 것)한 〈대방광 불화엄경〉이다.

스승의 현토본 〈대방광 불화엄경〉 40품 59만4000여 자에 서 대표는 일일이 우리말 음을 달았다. 200자 원고지로 1만3000여 장 분량이며 총 페이지만 3200쪽에 달할 정도로 그 양이 방대하다. 경전은 5권으로 나눠 제작됐으며 전체 금장으로 대를 이어 읽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서 대표는 우리말 음을 달며 잘못 읽히고 있는 한자음을 수정·집필했다.

이 같은 불사가 이뤄질 수 있던 데에는 독지가의 도움이 크다. 〈덧말 불화엄경〉이 완성됐다는 소식을 들은 한 스님이 출판사로 찾아와서 “금생에는 내 이름 석자 들을 생각말라”며 출판 제작비를 보시했다. 서 대표는 “‘아직도 이런 스님이 있구나’라는 안도감이 들었다. 스님의 도움으로 우리말을 입힌 〈대방광 불화엄경〉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고 술회했다.

서 대표가 이끄는 교림출판사는 〈화엄경〉을 총 5종류로 출간했다. 첫 〈화엄경〉 역경은 탄허 스님으로부터 시작했다. 탄허 스님은 1956년부터 오대산 수도원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화엄경〉 번역에 착수해 10여 년에 걸쳐 역경을 완료했다. 이후 탄허 스님은 1974년 화엄학연구소를 만들고 〈신화엄경합론〉 47권을 출간했다. 탄허 스님의 〈신화엄경합론〉은 △〈화엄경〉 80권 △〈통현론〉 40권 △〈청량국사 화엄소초〉 △〈회석〉 △〈현담〉 △계환선사의 〈화엄요해〉 등 287권의 화엄 관련 경·론·소가 집대성돼 있다. 교림출판사는 〈신화엄경합론〉을 3차례에 걸쳐 다시 출간했다.

2009년에는 가로쓰기 80화엄원문 현토 5권을 간행해 전 세계 약 500여 곳의 동양학연구소에 기증했다. 2011년에는 세로쓰기 법공양본을 간행해 국공립도서관과 전국 사찰 강원에 기증했다. 그리고 2018년 화엄게송 현토역해 탄허본을 출간했으며 올해에는 〈덧말 불화엄경〉을 발간했다.

올해로 82세가 된 서 대표는 더 이상 역경불사를 하지 않을 생각이다. 〈덧글 불화엄경〉이 마지막 인연이라는 것이다. 다만, “여력이 된다면 유튜브에 탄허 스님 육성 강설을 편집해서 올리고 싶다”는 계획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탄허의 아난, 서우담은 아직 스승의 가르침을 전하겠다는 원력으로 살아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짜장면 배식봉사를 하며 자비행을 실천했다. 사진은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의 찾아가는 짜장공양 밥차를 이용해 짜장소스를 만든 조계종 총무원 교역직 스님들. 사진=노덕현 기자

“사회적 약자 도움이 제일 기억 남아”

원행 스님 1주년 기념식 · 기자간담회서 소회 밝혀

‘백만원력’ 종도들 관심 높아
“구체적 성과 도출 노력할 것”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자비행을 펼친 뒤 “사회적 약자를 만난 일이 기억에 남는다”는 소회를 전했다.

원행 스님은 10월 7일 서울 템플스테이 종합정보센터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각계 인사들 중 기억에 남는 만남으로 KTX 해고승무원, 쌍용차 해고노동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꼽았다.

원행 스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 어려움을 이겨낸 사회적 약자들을 만난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면서 “KTX 해고승무원과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복직이라는 성과를 얻은 뒤 버팀목이 된 스님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을 때가 생각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행 스님은 종단 내 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사회현안에 나설 것을 적극적으로 주문하는지 묻는 질문에 “사회노동위원회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이나 단체장 등을 만났을 때도 약자들을 챙길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원행 스님은 제36대 집행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대해서도 최근 지역의 관심이 높아져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스님은 최근 화엄사와 동화사에서 열린 백만원력 결집불사 지역대회와 관련해 “굉장히 호의적이고 관심 많은 게 느껴졌다. 무엇보다 꼼꼼하게 행사를 준비하고, 이에 대한 열의도 높아 좋았다”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제는 모든 불자들이 잘 해줄 것이라 믿고 구체적인 성과를 얻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 LA에서 열린 한인행사에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참여한 원행 스님은 현지서 발생하는 사찰 삼보정재 망실에 대한 안타까움도 표했다.

원행 스님은 “스님들이 미국에서 사찰을 일구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때부터는 이사회가 삼보정재를 좌지우지하는 사례가 많다. 미국이 법인성격에 관대하기 때문”이라며 “창건 초기 조계종 승인 없이 재산 처분을 못하게 한 조항도 이사회에서 삭제한 뒤 몇몇 이사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사찰들이 있어 종단서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행 스님은 이날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을 방문, 총무원 교역직 스님들과 함께 짜장면 점심공양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 행사는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의 자비나눔 방문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스님들은 ‘찾아가는 짜장공양’ 밥차를 통해 짜장 소스를 만들고 배식봉사를 했다.

짜장면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르신 700여 명을 위해 마련됐으며, 원행 스님은 1시간가량 봉사활동 이후 복지관을 둘러보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19년 창간 25주년 특집호 A · B 섹션 40면 발행



창간 특집 기획
◀백만원력의 시대 A9 · 10 · 11 · 12
불교언론 & 뉴미디어 B3 · 4 · 5 · 6 · 7



데스크 초대석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 A6
명사 창간 축하메시지 A7

현대불교신문 창간 25th을 축하합니다

현대불교의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하고 불교발전에 기여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불법을 수호하고, 진리의 길로 사부대중을 이끄는 신문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총무원장 원 행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종 신임 원로의원 자광 스님 선출

10월 10일 원로회의 만장일치로



조계종 신임 원로의원에 前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세민)는 10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제62차 회의를 열고, 앞서 중앙종회에서 추천된 자광 스님을 원로의원으로 선출했다. 이번 회의에는 재적의원 21명 중 16명이 출석해 자광 스님의 원로의원 선출을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자광 스님은 경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7년 조계사서 경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0년 해인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과 호계원장, 동국대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반야선원 주지를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승가교육기관 개편 추진하겠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 8일 취임 기자간담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승가교육 내실화가 우선 과제
내용 정비 · 기관 조정 계획 중
‘수행정신 회복’ 교육 방향으로
출가 진흥, 종단적 고민 필요



조계종 제8대 교육원장으로 취임한 진우 스님<사진>이 승가교육 내실화를 우선 과제로 교육 개혁 불사를 진행할 것을 밝혔다. 특히 앞선 현응 스님 체제에서 완수하지 못했던 승가교육기관 개편 추진 의사도 시사했다.

진우 스님은 교육원장 취임 3주 만에 10월 8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승가교육 종책 방향을 개괄적으로 발표했다. 스님은 앞선 6~7대 교육원 집행부가 10년간 진행했던 ‘승가교육 개혁 불사’에 대해 “승가교육 변화의 틀을 잡았지만, 질이나 양적인 면이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하며 “‘승가교육 내실화’를 우선 과제로 삼겠다. 승가교육 내용과 기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진우 스님이 시사한대로 승가교육기관 정비는 현재 종단 승가교육 종책 분야에서 최대 현안이다. 현재 불교계는 ‘출가 절벽 시대’를 맞았다. 한 해 출가인원이 120명 선에 머물고 있으며, 이마저도 감소 추세다. 조계종은 현재 사찰승가대학과 동국대 · 중앙승가대 등 17곳의 사미 · 사미니 기본교육기관을 운영 중이지만, 적정 교육 정원을 채우는 기관은 많지 않다. 앞선 6~7대 교육원 집행부에서 기관 수 조정을 거론한 적이 있지만, 본사 · 교육기관 등의 입장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진우 스님은 복잡하게 얽힌 기관 간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설득하며 풀어보겠다고 했다. 스님은 “출가자 감소에 따른 교육기관 조정은 이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기관을 조정할 생각은 없다. 토론과 설득을 통해 교육기관 조정을 이루겠다.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추구하고자 하는 승가교육 종책 방향도 제시했다. 스님은 수행자가 공부하는 이유는 성불(成佛)이며, 중생을 제도하는 이유도 부처가 될 것을 권선하기 위해서임을 분명히 했다. 제대로 수행하고 전법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에 충실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 승가는 ‘수행정신의 회복’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승가교육 기조와 방향을 설정하려 한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추진 사업들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찰 승가대학 · 승가대학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스님들을 비롯해 교육위원회, 장학위원회, 고시위원회,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 스님들을 만나 승가교육 관련 의견을 최대한 들어보려 한다. 이를 통해 ‘수행정신 회복’을 바탕으로 한 승가교육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진우 스님은 6~7대 교육원에서 시행해오던 학인경연대회 등 대중과 소통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발전적 계승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출가진흥사업에 대해서는 종단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진우 스님은 “현행 출가 연령이 평균 40대다. 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할 시기가 되면 적지 않은 나이가 된다. 젊고 뛰어난 인재가 출가하는 문화를 종단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출가자가 수행 정진하는 데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도록 종단 승려복지와 수행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원도 관련 제도 정비에 최대한 힘쓰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다룰 중앙종회 11월 5일 개원

조계종 중앙종회, 11월 5~19일 제217회 정기회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중앙종회 정기회가 11월 5일 개원한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는 10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의장단 · 상임분과위원장 제6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217회 정기회를 11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의 회기에 맞춰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개원은 11월 5일 오전 10시며, 안건접수는 10월 29일, 종책질의는 10월 31일 마감한다.

제217회 중앙종회 정기회는 지난 회기서 이월된 교구특별분담사찰 설치 관련 종헌개정안과 연동법 개정안, 종헌종법특위가 성안한 징계법 제정안과 교육법 개정안, 사면경감복권에관한법 개정안,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다.

이와 함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추대의 건을 비롯해 재심호계위원 · 초심호계원장 · 소청심사위원장과 소청심사위원 선출 등 인사안이 다뤄진다. 아울러 학교법인 동국대 임원 후보자와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후보자 복수추천 동의의 건, 종단 표준의례의식 동의의 건, 불기 2564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불기2563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정감사의 건 등도 정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달력의혹 제기 시민단체 고소

㈜도반HC “종단 해명 노력에도 허위사실 유포”

불교계 일부 시민단체들이 2012년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에 대한 조계종의 국고보조금 횡령을 주장하며 조계종 출판사 前대표이사 자승 스님과 前사장 김모 씨를 고발한 가운데, 사업 당사자인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가 이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조계종출판사가 소속된 ㈜도반HC(사장 주혜)는 10월 8일 정의평화불교연대(상임대표 이도흠)와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손상훈), 한국불자언론인회(대표 김영국)를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도반HC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공동명의 기자회견을 통해 2013년 달력 제작과 관련한 두 건의 계약서 및 배포 현황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위 불교시민단체라고 하는 이들의 주장이 왜 허위인지 상세히 밝힌 바 있다”며 “불교계 일부 단체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고발 행위가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억측과 과도한 주장임을 깨닫고 참회와 자숙하기를 기대했다”고 밝혔다.

도반HC는 이어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일말의 반성과 참회는커녕 재차 기자회견을 개최해 황당한 논리와 궤변을 늘어놓으며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면서 “도반HC는 현재 확인 · 보관하고 있는 일체의 자료를 검찰에 제출, 피고소인들이 제기한 의혹이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사실임을 밝혀냄으로써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재무부장 등 일부 인사 단행

재무부장 탄하 · 특보단장 혜일
신문사장 정호 · 문화특보 현법



재무부장 탄하 스님



종책특보단장 혜일 스님



불교신문사장 정호 스님



문화특보 현법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새 재무부장에 탄하 스님이 임명됐다. 4년간 활동한 전임 재무부장 유승 스님의 소임을 이어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0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재무부장 탄하 스님을 비롯해 종책특보단장 혜일 스님, 불교신문사장 정호 스님, 문화특별보좌관 현법 스님을 임명했다.

원행 스님은 “어떤 소임이든 어렵고 힘들기 마련임에도 흔쾌히 수락해줘 고맙다”며 “종단이 더욱 발전해야 할 시기다. 스님들께서 공선후사(公先後事)의 마음으로 불교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무부장 탄하 스님은 1988년 불국사에서 월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수지했다.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모선암 · 운람사 · 관음사 주지를 역임했다. 국제개발협력 NGO인 지구촌공생회에서 수년간 케냐지부장으로 활동하는 등 해외구호활동에 앞장섰다.

종책특보단장 혜일 스님은 도견 스님을 은사로 1986년 수계했다. 백련사 · 연화사 · 흥천사 주지 및 총무원 기획실장, 문화부장, 자성과괘신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제14 · 15대 중앙종회의원에 이어 현재 제17대 중앙종회의원과 성남 봉국사 주지를 맡고 있다.

불교신문사장 정호 스님은 도명 스님을 은사로 1976년 수계했다. 채운암 · 대각사 주지 및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제13대 중앙종회의원,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 현재 오산 대각사 회주를 맡고 있다.

문화특보 현법 스님은 이두 스님을 은사로 1978년 수계했다. 개태사 · 보승사 주지를 비롯해 제13 · 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김포 용화사 주지를 맡고 있다. 현법 스님은 이날 전임 문화부장 소임(2018년 9월~2019년 7월)에 대한 공로가 인정돼 총무원장 공로패를 받았다.

한편 조계종은 지난 4년간 재무부장 소임을 맡은 유승 스님에게도 공로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방장 추대’ 조계총림 산중총회 재소집한다

절차상 하자 지적 받아들여 논란 없애려 11월 1일 개최

새 방장후보로 현봉 스님을 추대한 조계총림 송광사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일부 지적을 받아들여 산중총회를 재소집한다.

송광사(주지 진화)는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 경내 자제원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방장후보자를 재추대키로 했다. 이는 앞서 임회를 거쳐 현봉 스님을 만장일치로 방장후보에 추대했지만 일부 스님들이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중앙종회와 중앙선관위에 이의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결국 송광사는 10월 7일 긴급 임회를 열고,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산중총회를 재소집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조계총림은 방장후보를 1일 산중총회서 다시 추대하고, 이 결과를 5일 개원하는 중앙종회 제217회 정기회에 방장 추대의 건으로 안건을 접수할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가을 '불교학' 매력에 빠져 볼까

주요 불교학회 단체들 추계학술대회 '풍성'

완연한 가을이다. 가을 맞아 다양한 주제의 대형 학술대회와 강연이 잇달아 개최된다.

올해 가을 학술대회는 사찰과 학술단체의 협력으로 열리는 행사가 가장 많아 눈길을 끈다.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10월 19일 오후 1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2강의실에서 '600년 왕실원찰 서울 흥천사 불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흥천사와 19세기 집중 봉안된 왕실발원 성보문화재 불화를 연구·조명하는 논문들이 발표된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흥천사 왕실발원 불화의 성격과 극락구품도의 도상해석학적 연구'를 주제로 기조발표하며 유경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가 '흥천사 아미타불회도 연구'를, 고승희 중앙승가대 교수가 '흥천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연구'를, 김정희 원광대 교수가 '흥천사 지장시왕도 연구'를, 신은미 인천이민사박물관 관장이 '흥천사 신중도 연구'를, 김경미 건국대 대학원 초빙교수가 '흥천사 약사불회도 연구'를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분희 불교중앙박물관 학예실장과 주수완 고려대 강사, 김창균 前 동국대 교수, 유미나 원광대 교수, 이수예 동국대 교수가 나선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임승택)와 오대산 북대는 공동으로 10월 19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중흥조와 오대산 북대 불교'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서는 오대산 불교 사상을 조명하는 논문들이 잇달아 소개된다. 주요 논문으로는 △정영식(성균관대)의 '태고의 간화선풍의 수용과 환암' △이병욱(고려대)의 '나옹의 간화선풍의 수용과 계승-환암과 관련해' △이철헌(동국대)의 '나옹의 조선불교계 위상과 법맥' △박해당(구화불교한문연구소)의 '환암의 조선불교계 위상과 법맥' △자현 스님(중앙승가대)의 '한국 (고)중세 오대산 불교사상의 전개와 북대신앙' △황인규(동국대)의 '나옹과 환암의 불교계 활동과 오대산 북대' 등이 발표된다.

고승들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들도 열린다. 중앙승가대 대학원(원장 승원)은 일명 '삼장법사'로 불리는 당나라 고승 현장(602~664) 스님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0월 19일 오후 1시 중앙승가대 자비관 4층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학술대회는 '현장의 사상과 역경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김치온 진각대학원 교수의 '중국 유식학파들의 사상적 전개에 있어서 현장의 위치'를 비롯해 요시무라 마코토 일본 고마자와대 교수의 '현장의 유식사상', 조윤경 안동대 교수의 '현장의 동북아 불교에 끼친 영향',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의 '역경승 현장에 대한 연구'가 발표된다. 주제 발표와 논평 후에는 중앙승가대 대학원장 승원 스님이 총평을 진행할 예정이다.

쫑카파 열반 600주년 대회부터
사찰·고승 주제 세미나들 '눈길'
'과학·수행' 관계 조명한 강연도

티베트 불교 최대 종파인 겔룩파(格魯派)의 개조 쫑카파(1357~1419) 열반 600주년을 기리기 위한 학술대회도 열린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성철)는 10월 25일 동국대 혜화관 2층 고순청세미나실에서 '티베트불교 톺아보기'를 주제 쫑카파 대사 열반 6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진행된다.

학술대회에서는 △'쫑카빠 대사의 〈요의불요의선설장론〉 핵심 요약(소남걀첸 스님, 부산 한국티베트불교사원)' △'먼지,의심 그리고 동기: 자문화기술지와 ARCS 동기 모델을 통한 간화선과 족첸의 개념 정제하기(조세프 린, 동국대 경주)' △'비판과 대화: 샤르자 따시 갤첸(1859-1934)의 생애와 저작을 통해 이해하는 뵌교와 티베트불교의 관계(윌리엄 고블린, 미국 헨드릭스 칼리지)' △티베트불교 마법서의 이론적 분석(캐머런 베일리, 동국대) 등이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권선아(동국대), 양정연(한양대), 강형철(동국대)이 참여한다.

〈삼국유사〉 저자인 고려 시대 고승 일연 스님(1206~1289)과 분사남해대장도감의 관계를 밝히는 학술대회도 열린다.

고려대장경판각성지보존회(회장 김정렬)는 11월 8일 오후 2시 남해 유배문학관 다목적 강당에서 '대장경과 일연 그리고 남해'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연다. 대회는 본지를 비롯해 남해군, 남해군사암연합회, 화방사, 대장경문화학교 등이 후원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김정학 대구교육박물관장의 '일연선사로 팔만대장경을 본다' 주제의 기조강연으로 시작을 알린다. 주제 발표로는 최연주 동의대 교수가 '분사남해대장도감과 정안의 역할'을, 김봉윤 남해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이 '고려대장경 판각과 일연선사'를, 최태선 중앙승가대 교수가 '분사남해대장도감의 고고조사 성과와 접근방법'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배상현(신라대), 임종욱(동국대), 고상현(조계종 교육원)이 나선다.

고려대장경성지보존회는 "이번 학술심포지엄을 통해 고려 후기의 대사상가 일연 스님의 남해 활동을 재조명하고 대장경 판각지 남해군의 위상을 재정립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판각지 성역화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과학과 불교의 관계를 조명하는 강연도 열린다. 한국불교발전연구원(원장 양형진)은 10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우리사회의 불교와 과학, 수행'을 주제로 강좌를 진행한다. 강사로는 양형진 고려대 교수,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성해영 서울대 교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등이 참여하며, 과학·윤리학·치유명상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本紙, 백만원력 불사기금 500만원 기탁

10월 10일, 원행 스님 "신문사 동참에 힘 얻어"



왼쪽부터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자공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박종수 현대불교신문사 사장, 김주일 편집국장.

조계종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본지가 힘을 보탰다.

박종수 현대불교신문사장은 10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본지 임직원 명의로 백만원력 결집불사 기금 500만원을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이 자리서 박종수 사장은 "약소한 금액이지만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성공적인 회향을 위해 기금을 마련했다"며 "백만원력 결집불사 모연 활동이 탄력 받을 수 있도록 언론사로서 노력하겠다"고 기부 취지를 밝혔다.

이에 원행 스님은 "신문사가 큰마음을 내줘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 같다. 백만원력 결집불사는 재정적으로 다른 특별불사를 할 여력이 없는 종단이 모든 불자들의 뜻을 모아 한국불교를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이라며 "단추를 꿰어놓으면 계속 사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강남 한복판 명상, 시민 열기 '후끈'

명상총연합회 10월 5일
명상페스티벌 개최


페스티벌에 참가한 대중들이 요가로 명상 전 몸을 풀고 있다.

10월 5일 강남 한복판에서 조용한 사색의 세계가 펼쳐졌다. 한국명상총협회(회장 각산)가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강남한류 명상페스티벌을 연 것이다.

청명한 날씨 속에 이날 명상페스티벌에 참가한 1000여 대중은 요가와 바디케어, 선무도를 비롯한 다양한 명상을 체험하고 스님으로부터 화두를 받아 입정에 들었다.

이용태 한국명상총협회 경영위원장은 "강남의 대표적인 거리에서 우리의 정신문화를 알리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게 됐다"며 "일반시민들도 명상을 통해 함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서는 나겐드라 비베카 요가의 한국대표 비베카 킴의 요가 지도와 김수미 대한피트니스전문가협회장의 바디케어 명상, 채희걸 선무도 강남명상요가센터 대표의 선무도 강연이 먼저 진행됐다.

김수미 협회장의 바디케어에서는 요가도구 리커버링을 사용한 다양한 동작 지도가 진행돼 지나가던 행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흑석동에서 온 김현수 씨는 "그동안 명상에 관심이 있었는데, 제대로 배워본 기억이 없다"며 "요가와 명상의 기본기를 배울 수 있어 만족스럽다. 몸을 푸는 요가도 명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는 각산 스님의 전통명상 지도로 이어졌다. 스님은 선수행에서는 자세에 얽매이지 말고 사고를 확장시키라고 강조했다. 지도자가 전하는 화두에 따라 집중하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현재에 오롯이 집중하라고 했다.

요가 등을 거치며 다소 분주했던 가로수길 거리는 스님의 지도하에 고요함이 감돌았다. 조용히 자신의 호흡을 살피고 집중하는 이들로 인해 주말 번화한 거리가 하나의 거대한 명상원이 됐다. 이날 강남한류 명상페스티벌에는 정순균 강남구청장도 직접 참가했다. 정 구청장은 2019강남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이번 명상페스티벌 개최를 지원했다. **노덕현 기자**

훼불 대신 사과한 신학교수 2심서도 '파면 취소' 결정

손원영 교수, 파면 무효소송 승소



훼불행위를 저지른 한 개신교신자의 극단적 행동을 대신 사과하고, 피해를 입은 법당의 복구비용을 모금했다가 학교에서 파면당한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사진>가 2심에서 '파면 취소' 결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재판장 이동근)는 10월 11일 손원영 교수가 서울기독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결정한 파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1심에서 인정된 임금 지급에 더해 이자도 요구했으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손 교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하지만 학교 측이 이를 받아들여 복직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한국사회에서 종교가 다양성을 인정받고, 한편으로는 좋은 판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불교 크리에이터를 만나다

“불교 백설공주 스토리 만들어요”

③ 장정윤 일러스터





“불교에도 엄지공주 같은 ‘연꽃공주’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꽃에서 태어나 보살로 성장하는 불교의 세계관을 듬뿍 담은 카툰을 인스타에 연재할 예정이에요.”

제1기 불교 크리에이터로 선정된 장정윤 일러스트 작가는 만화 캐릭터와 같은 개성 있고 귀여운 부처님을 선보이고 있는 이다. 장 작가의 작품은 불교미술에 대한 호기심을 일깨우기 위해 작품 곳곳에 에피소드를 불어넣은 것이 하나의 묘미다.

장 작가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불교미술의 새로운 시각을 선보였다. 이번에 불교크리에이터 공모에 출품한 ‘별세음공주 공덕연’의 공덕연 캐릭터는 장 작가가 불교일러스트를 그린 시작점의 캐릭터다.

“사실 불교크리에이터를 처음 지원했을 때는 평범한 신행일기로 하려고 했지만 저만의 개성이 담긴 참신한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문득 몇 년 간 제가 생각해온 캐릭터에 생명력을 넣어 여태껏 해보고 싶었던 동화 이야기 만들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금새 스토리가 떠올랐어요.”

장 작가의 종교는 없다. 장 작가는 불자가 아니지만 평소 마음공부나 사색을 좋아하고 불교에서 연꽃이 주는 의미가 마음에 들어 매료됐다. 장 작가는 “대학 졸업작품 때 연꽃에 대한 작업들을 그렸었는데, 제가 불교에 많이 이끌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후 불교박람회를 관람하며 불화에 대한 관심이 깊어져 불화를 그려보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게 되었다”고 말했다.

장 작가는 이후 자신만의 작화로 작품을 준비해 여러번 전시를 열게 됐고, 이후 대원상과 같은 불교관련 공모전, 방송, 외부 활동을 통해 불교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깊어졌다. 현재 장 작가는 원빈 스님과 천수경을 공부하는 BTN 〈절친3〉에 패널로 나가고 있다.

‘공덕연’이라는 캐릭터의 이름은 장 작가가 받은 법명이다.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혜안 스님과 함께한 템플스테이에서 ‘덕연’이라는 법명을 받았는데 이후 공이라는 성을 붙여 캐릭터이름이 됐다.

장 작가는 “마치 불교를 만나 성숙해져가는 모습이 조금은 제 분신이라는 생각도 든다”며 웃었다.

장 작가의 작품의 특징은 관세음보살도에는 ‘우주와 별의 소리를 듣는 별세음보살’이란 컨셉으로 모든 캐릭터가 별모양의 보관을 쓰고 있는 것이다. 컷툰의 스토리에서는 어린 공주가 보살이 되기까지, 천방지축에서 철이 들어가는 모습이 그려진다.

“서양의 동화에는 인어공주, 백설공주 등의 공주시리즈가 있는데 불교에서도 그런 동화가 하나 만들어지면 재미있지 않을까요?”

장 작가는 만화라는 분야가 전문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만화가의 꿈을 키웠고, 결국 불교와 접목한 만화까지 작품세계가 이어지고 있다. 장 작가는 향후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를 색다르게 엮어 이야기가 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미와 교훈, 동심을 함께 담은 작업물을 내는 것이다.

장 작가는 “내면의 이미지와 상상력을 외부로 꺼내는 작업은 나를 발견하고 내 마음을 탐구를 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며 “불교크리에이터로서 창작을 하게 되는 동력도 수행하는 마음 덕분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불교크리에이터 선정은 트렌드를 따라가려는 불교계의 노력과 도전의 창구가 필요한 창작자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취지가 맞물려, 새로운 문화가 태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멈춰있던 지난 작업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게 돼, 발상과 작업능력에 자극이 되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저에게는 처음으로 긴 스토리를 끌고 나가는 작업이라 몇 개월간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많은 고민이 들겠지만 한편으로는 즐거운 여정일 것 같아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생명나눔, 제11회 산사음악회

10월 5일 불암사 경내서 사부대중 3천여 명 참석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0월 5일 남양주 불암사 경내에서 ‘제11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생명나눔 운동 확산을 위한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10월 5일 남양주 불암사 경내에서 ‘생명나눔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2007년에 시작해 올해로 11회를 맞은 생명나눔 산사음악회는 생명나눔 의식을 확산시키고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활성화하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일면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으로 시작됐다. 이날 수여식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 중인 학인스님 9명, 학생 7명 등 총 16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또한 만성신부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도 이뤄졌다.

생명나눔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회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생명나눔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후원공로부문에 김현업 회원이, 자원봉사부문에는 김남희 씨가 수상했다.

또한 생명나눔은 2014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장기기증 희망등록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동국대 참사람봉사단에게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어진 음악회는 BBS라디오 특별공개방송으로 진행됐으며 생명나눔 홍보대사인 이익선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다.

음악회에는 생명나눔 홍보대사 가수 박상민, 정수라 씨를 비롯해 ‘미스트롯’을 통해 이름을 알린 김양, 금잔디 씨 등이 출연했다.

또한 생명나눔 산하단체인 ‘마하무용단(단장 명선화)’은 아름다운 한국무용 춤사위를 통해 불암사의 가을밤을 풍성하게 채웠다. 신성민 기자

템플스테이 UCC 내 손으로 뽑는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라는 주제로 UCC 공모전을 실시, 1위부터 3위까지 수상작을 온라인 투표로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내가 바라본 템플스테이’ ‘내가 체험한 템플스테이’ ‘내가 체험하고 싶은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관련 자유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9월 2일부터 27일까지 작품을 접수해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총 10편의 영상이 10월 8일 템플스테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본선 작품은 해인사, 축서사 템플스테이 후기를 비롯해 청춘의 힐링, 행복찾기 여행 등을 주제로 제작됐다.

이에 10개의 영상 중 가장 인상적인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면 1표로 집계된다.

윤호섭 기자

한마음선원 15개 지원 청년 한자리에

10월 6일 안양본원서 열려
15개 지원 500여 명 참여



한마음선원 제16회 전국청년연합법회에는 전국 15개 지원에서 참여한 500여 청년회원들이 동참했다.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이 안양본원에서 전국 15개 지원 청년법우들이 모인 가운데 10월 6일 제16회 전국연합 청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청년법회에는 전국 15개 지원에서 참여한 500여 청년회원들이 동참했으며, 묘공당 대행 스님의 생전 영상법문을 시청하고 함께 선법가를 부르며 가르침을 되새겼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청년회원들의 정진이 지혜발현의 큰 힘이 된다며 청년회원들을 격려했다.

혜수 스님은 “우리의 각자 마음을 아끼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두루차고 밝은 지혜로 한마음 밝혀 정진해달라”며 “여러분 모두가 개개인이 함께 학교생활, 직장생활, 사찰에서 도반으로의 생활 등등이 여러분의 소임이다. 세상을 밝혀나가고 깊은 지혜로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 토론법회로 지혜롭고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청년회원들은 대행 스님에게 올리는 글을 통해 보다 활발한 마음공부와 공심으로 사는 삶을 다짐했다. 법회 후 청년회원들은 선법가 합창과 함께 조별 담선을 통한 화합의 장을 가졌다.

노덕현 기자

제30회 불교미술대전 수상작 선정

대상작 없이 최우수상 유현정 수월관음도 등 2점

제30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 올해 대상작 없이 최우수상 2점을 선정했다.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회(위원장 오심)는 접수된 총 107점의 작품을 심사, 최우수상에 회화부문 ‘수월관음도(유현정作)’와 공예부문 ‘석가삼불도 목판과 탁본(한초作)’을 선정했다. 우수상에는 ‘운흥사 괘불(이윤경作)’과 ‘수월관음상(이용희作)’, ‘양출된인경은제도금금강경(절첩본형식, 김정호作)’이 선정됐다. 운영위는 또한 장려상 6점, 특선 6점, 입선 25점을 선정했다.



제30회 불교미술대전 최우수상에 선정된 회화부문 수월관음도(유현정作).

심사위원장을 맡은 손연칠 동국대 명예교수는 심사평을 통해 “올해 대부분의 작품들은 과거의 전통적 기법을 재현하거나 표피적 형식의 답습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많았다. 시대적 정신이 반영된 새로운 창의적 작품은 너무나 적었다”고 아쉬움을 표한 뒤 “불교미술이라는 제한적 환경에서 시대적 정신을 요구한다는 게 무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공모전의 분명한 성격을 뚜렷이 하고, 창의적 정신이 투철한 신진작가를 발굴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교미술대전 시상식은 12월 1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날부터 2주간 수상작품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된다. 윤호섭 기자





밀양 표충사(주지 법기)는 10월 6일 표충사 표충서원에서 제552회 사명대사 추계향사를 봉행했다. 주지 법기 스님이 일본 흥성사가 사명대사 유묵 4점 영인본을 전한 것에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護國大聖' 높이 기린 사명대사 충혼

〈호국대성〉

제552회 사명대사 추계향사 봉행… 10월 6일 표충사서

하성미 부산경남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재약산에서 불어오는 가을바람과 함께 법고소리가 울려퍼졌다. 명종소리가 울리자 바람에 흔들린 태극기가 박수를 치듯 부딪치며 펄럭거렸고 사명대사의 영정 앞에는 향이 피어올랐다. 임진왜란 때 포로로 잡혀간 백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명대사를 '호국대성(護國大聖)'으로 높이 기리며 그의 충혼을 기리는 장엄한 향사다. 밀양 표충사(주지 법기)는 10월 6일 표충사 표충서원에서 제552회 사명대사 추계향사를 봉행했다.

향사는 불교제향인 종사영반과 전통유교제향인 석전의례로 서산, 사명, 기허 3대 성사와 의·승병의 업적을 추모했다.

만물의 깨달음을 기원하며 힘차게 울리는 법고와 마음속 우주 진리를 표현하는 범종의 소리에 맞춰 주지 법기 스님은 향을 피워 추계 향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대중들은 눈을 감고 임진왜란 당시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한 의병과 호국의 성자로 불리는 사명대사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마음을 모았다.

표충사 다인들은 차를 올렸으며 밀양불교합창단은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담은 찬가를 아름다운 화음에 담아 공양했다.

불교제향이 마무리 되자 성균관유도회 밀양지부에서는 석전의례로 정성을 다해 예를 올렸으며 사명대사가 불교의 영웅이자 나라의 호국대사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다.

추계향사는 의식뿐 아니라 특별행사로 일본 흥성사가 소장한 사명대사 유묵 영인본 기증식이 진행됐으며 사명대사 호국 혼(魂) 선양사업으로 추모헌정 뮤지컬 '사명'과 학술대회도 함께 개최됐다.

사명대사 유묵은 지난해 표충사에서 사명대사 다큐멘터리 촬영 당시 일본 흥성사를 방문해 발견한 것이다. 흥성사에는 사명대사의 친필 유묵 4점이 소장 되어있었으며, 그 중 전달 된 〈자순불법록〉은 당시 일본 흥성사 주지였던 원이 스님이 불법에 대해 사명대사에게 자문을 요청한 내용이 담겨 있다.

사명대사 친필 유묵 4점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며 10월 15일부터 한 달 간 전시한다. 영인본은 표충사에서 만나 볼 수 있으며 친필 전시는 11월(예정)에 표충사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향사에는 흥성사 주지인 모치즈키 고사이 스님이 직접 방문해 사명대사 친필 영인본 전달식을 진행했다.

주지 법기 스님은 전달식에서 "흥성사 주지 스님의 허락으로 사명대사의 친필을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었다"며 "오늘 향사에서 사명대사의 충혼을 기리며 기증식까지 열수 있어 기쁘다"고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불교 및 유교식 제향으로 추모
사명대사 호국 혼(魂) 선양사업
뮤지컬 '사명' 및 학술대회 개최
사명대사 친필 영인본 기증 받아

흥성사 주지 모치즈키 고사이 스님은 "오늘 기증식으로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화합으로 행복을 추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뮤지컬 '사명'에서는 주말을 찾아 표충사를 찾아온 모든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들었다. 가족단위로 찾아온 관광객들을 눈길을 사로잡은 뮤지컬 단원들의 노래 실력과 이해도를 높이는 구성으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입을 모았다.

뮤지컬에서는 사명대사가 임진왜란 당시 한·일 평화회담을 이끈 위대한 외교관으로 그려졌으며 특히 "무엇이 조선의 보배인가?"라는 가토 기요마사의 질문에 "그대의 목이 조선의 보배이다"라고 서슴없이 답한 사명대사의 용맹함이 담겨 큰 박수를 받았다.

김신덕(부산·55)씨는 "가족들과 함께 가을 정취를 느끼기 위해 표충사를 찾았는데 이렇게 멋진 뮤지컬을 보게 되어 정말 운이 좋았다"며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왔는데 더 없는 큰 선물이 됐다"고 말했다.

이미라(울산·45)씨는 "초등학교 자녀들과 함께 왔는데 오늘 사명대사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얻게 됐다"며 "뛰어난 뮤지컬 연출도 좋았고 무엇보다 사명대사가 '그대의 목이 조선의 보배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전율이 흘렀다"고 말했다.

사명대사의 충의와 위상을 위해 열린 학술세미나는 △송운대사와 덕천가강의 경도 복견성 회담-그 전야제로서의 녹원원 선회(조영록 동국대 명예교수) △밀양 표충사 서간첩으로 본 사명대사의 위상(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 △사명당 유정의 충의에 대한 사대부의 평가(이철헌 동국대 교수)가 발표됐다. 종합토론에는 동국학원 이사장 법산 스님,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오경후 동국대 초빙교수가 참여했다.

조영록 교수는 사명대사의 발자취가 담긴 역사서 〈사명대사집〉, 〈분충서난록〉 등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사명대사의 활동을 조명했다.

이에 대해 법산 스님은 "사명 대사는 전장에서는 평양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용맹한 승병장이었고, 외교의 무대에서는 조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상황을 이끌어 냈다"며 "하지만 본분사는 언제나 선수행이었다"고 강조했다.

표충사 주지 법기 스님은 "사명대사는 불력과 지략 그리고 담대함으로 전투를 이끌어, 그의 전투는 임진란의 분수령이 되었으며 평양성 탈환을 성공적으로 주도하셨다"며 "이뿐 아니라 적장에 홀로 들어가 한반도를 두고 벌이는 한·일간의 교섭을 탐정하여 위기의 나라를 구해냈다"고 칭송했다. 이어 "국력 융성을 위해 사명대사의 애국애민 정신이 스며있기를 간절히 발원하며 사부대중의 가슴에 표충사가 국찰로 자리매김하도록 정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사명대사 추계향사에는 통도사 전 방장 원명 스님,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 통도사 부주지 산옹 스님, 종회의원 효림 스님, 일본 흥성사 주지 모치스키 고사이 스님, 박준경 밀양경찰서장, 성균관유도회 밀양지부 유림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향사에 참석한 사부대중.



뮤지컬 '사명' 공연 모습.


설접전에서 열린 학술세미나.

현대불교신문 창간 25th을 축하합니다

佛紀 2563年

대한불교조계종 제11 교구본사 불 국 사

조계종 원로의원 · 회주 성 타

관 장 종 상 주 지 종 우 원 장 덕 민
부주지 정 문 총 무 종 천 교 무 정 수
재 무 성 심 사 회 성 주 포 교 성 만
호 법 상 락 신도회장 이영숙

-부설기관-
분당포교당 석가사 / 불국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사 문화회관
불국유치원 / 성림어린이집 /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 불국사템플스테이

대 중 일 동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진현동) (054)746-9912~4 FAX 746-1476

‘貧者救濟’는 시주 은혜 갚는 길

〈빈자구제〉

자비(慈悲)란 타인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이 여겨 베푸는 혜택이란 의미다. 세계적인 최빈곤 국가로 꼽히는 캄보디아에 17년 이란 적지 않은 세월동안 자비 실천을 해 온 수행자가 있다. 그 주인공은 2002년 창립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로터스월드를 이끌고 있는 이사장 성관 스님이다. 불교계 대표 국제개발구호NGO 로터스월드는 2004년 법인으로 등록했지만, 2년 전인 2002년 이미 캄보디아 지원사업에 착수했다. 그 점을 감안하면 로터스월드 역사가 내년으로 꼬박 18년을 맞는다. 이처럼 로터스월드가 국제구호NGO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한 것은 “아픈 사람을 보고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자비를 무위자연으로 실천해 온 성관 스님의 원력 덕분이 아니었을까. 창간 25주년 특집을 맞아 자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성관 스님이 회주로 있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보현선원을 10월 9일 찾았다. 〈편집자주〉



성관 스님 로터스월드 이사장, 수원 보현선원 회주

성관 스님은… 동국대를 졸업해 동대학 교육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또한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 문화사회부장 · 문화부장 · 호법부장을 비롯해 달라이라마 방한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수원사 주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16년 8월에는 제20회 만해대상 시상식에서 평화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는 3년전 창건한 수원 보현선원 회주, 조계종 여래마을 회주, 청수사 회주, 로터스월드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대담=김주일 편집국장 kimji4217@hyunbul.com

▲로터스월드는 이제 명실공히 불교계 뿐 아니라 국내의 대표적인 캄보디아 국제NGO로 꼽힙니다. 2006년 씨엠립에 아동센터를 설립하고 단발성 구호사업이 아닌 체계 · 지속적인 후원을 실시한 것이 가장 큰 밑거름일 텐데요. 혹시 여러나라중 굳이 캄보디아 서 구호 사업을 펼치신 계기가 있으신지요?

스님=1996년 캄보디아를 방문한 것이 계기였지요. 당시 수원포교당(현재 수원사) 주지로 있을 때 4명의 도반들과 함께 캄보디아 씨엠립을 방문했죠. 부푼 마음으로 공항에 내렸는데 그야말로 ‘폐허’와 다름없었어요.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잔혹한 참상이 그대로 널려 있었습니다. 거리엔 ‘1달러’를 외치며 구걸하는 어린 아이들로 넘쳐났고, 얼마나 굶었는지 뱃가죽이 등에 붙을 정도로 빼짝 말라있었어요. 남은 생 동안 살아갈 방향을 찾은 순간이었죠. 시주의 은혜를 갚는 길은 그 방법뿐이라고 생각했지요.

▲실제로 불교계에선 로터스월드를 롤모델(role model)로 삼아 국제구호활동을 펼치려는 단체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캄보디아서 본격적인 구호활동은 언제부터 하셨는지요?

스님=6년 후인 2002년 실천불교전국승가회 2대 의장을 맡게 되면서 부터였습니다. 제 3세계에 대한 구호활동을 선창하자 회원 스님들이 모두 동의하며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동센터 건립을 첫 목표로 삼고 방법을 찾아 나섰지만 예산 편성, 인력 확보, 부지 선정 등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었죠. 좋은 일은 함께해야 한다며 신도들의 후원을 독려하자는 여론도 있었지만 단호하게 ‘No!’라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우리 역량만큼만 시작해 점차 기반을 다져나가야 지속적인 구호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튼튼해야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법이죠.

▲아무리 원력이 있어도 말 안통하는 외국인데,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구호사업 펼치기가 힘들었을 텐데요. 비결이 있으시다면요.

스님=모든일에는 원력이 세워지면 최선을 다해야 시절인연의 기회도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03년 기업인 및 지인들과 캄보디아를 방문했는데 현지서 컴퓨터 지원 요청을 받았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퇴역 후 먹고 살게 하려고 컴퓨터 기술을 배우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서는 지원 약속을 해놓고 돌아와서는 흐지부지 된거에요. 약속해 놓고 안 지키면 국가적인 신뢰가 깨질 수 있다고 판단해 제가 사비로 지원했죠. 그 신뢰가 바탕이 됐고 캄보디아 현지 대사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정부가 앙코르와트 유적 인근 1만 2천여평을 30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 땅이 유적 인근서 캄보디아 정부가 소유한 마지막 땅이라니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었죠.



캄보디아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성관 스님.

2006년 씨엠립에 아동센터 건립
“교육 지속 가능해야 빈민 줄어”
연간 4회 무료 진료 및 개안 수술
리더는 변화 읽고 비전 제시해야

▲2014년 부터는 라오스 캄무안주 봉싼마을을 시작으로, 2015년 방비엥 니케마을에 도서관과 도서지원 사업을 하는 등 구호 활동 대부분을 교육 시설 확충에 신경쓰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는요?

스님=모든 것은 ‘교육’서 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백 개의 화장실을 짓고 맑은 물을 위해 우물도 팠지만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은 구호활동은 자립심을 저하시키고 오히려 의존성만 키우게 합니다. 교육이 지속 가능해야 빈민들이 줄어듭니다.

교육은 인간이 어려움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배우든, 스스로 깨닫든 상관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쉼 없이 정진하라’ 하셨지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방관하는 사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져 소통할 수 없게 되고, 종국엔 단절될 것입니다.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2007년부터 건양대 김안과병원과 협력해 아동센터 내에 안과병원을 설립하고, 연간 3~4회 무료 진료 및 개안수술을 진행 중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스님=사실은 아주 작은 인연서 비롯됐죠. 어느 날 김안과병원이 해외의료봉사를 위해 우리 캄보디아 아동센터를 찾아왔단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성주(당시 병원장) · 김용란 부부와 함께 여러 의사들이 왔어요. 원래 스리랑카를 가려고 했는데 내전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필리핀으로 가려니 현지 국제구호NGO와 전화가 닿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발길을 돌린 것이 캄보디아였어요. 독실한 불자인 김성주 · 김용란 부부는 그 인연을 계기로 지금까지 매년 3~4차례 20~30명의 대규모 봉사단을 꾸려 로터스월드 아동센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역시 불자인 김안과병원 설립자인 김희수 선생의 후원이 순풍에 돛을 달아준 셈이 됐죠.

▲평소 가슴에 새기시는 말씀이 있다면요…

스님=‘가승은 입성하고 진승은 하야 한다’는 제 은사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항상 저에게 참 수행자처럼 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을 자세히 음미해보면 현재의 시류에 휩쓸려 살아가면서 출세와 관력에 목말라 하는 가짜 수행자가 되지 말고, 모든걸 내려놓고 수행에만 전념하는 진실한 수행자가 되라는 경책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매일 가슴에 품고 새기며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접견실 책꽂이를 둘러보니 유독 문명과 역사를 다룬 책들이 많은데요. 요즘 즐겨 읽으시는 책좀 소개해 주시죠.

스님=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등 하라리 책들을 주로 읽습니다. 문명과 역사에 대한 식견은 인문적 소양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죠. 생태학자로 퓨리처상 수상자이며 글 잘 쓰기로 유명한 제럴드 다이아몬드의 책도 좋아합니다. 총균쇠를 읽어보았는데 전문지식을 포함 함에도 정말 재미있게 잘 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불교계를 포함한 사회의 리더들이 갖춰야 할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님=지도자들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읽고, 미래세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죠. 그러려면 끊임없이 소통하고 독서 등을 통해 자기계발에 힘써야 합니다. 여기에 자기 수행을 통해 포용력과 자비심을 갖춘다면 금상첨화겠죠.



1994년 10월 창간한 본지가 올해 창간 25주년을 맞았다. 불교의 생활화와 현대화, 세계화를 위해 25년간 끊임없이 달려왔다. 본지는 독자들에게 창간 25주년을 맞아 열린 눈으로 불교의 곳곳을 바라보고 정론직필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사부대중에게 창간 축하 메시지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정신문화 선도 미디어로 거듭나길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

현대불교신문의 창간은 불교 언론계의 새로운 활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창간과 함께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을 설립하고, 불교계 최초의 포털 사이트 '부다피아'를 구축해 불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새 시대의 포교를 알리고 사이버 세대와 소통하는 불교 언론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준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불교 역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모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불교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 혁명이라고까지 불리는 뉴미디어들의 약진들을 불교 언론들도 분석하고 연구해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편향된 정보와 가짜뉴스로 넘쳐나는 미디어 시장에서 '정론직필'이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구현하고 역할을 다하는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현대불교신문은 시대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정신문화를 선도하는 미디어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25년 동안 한국불교의 현대화와 생활화를 이끌어온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불교 발전을 견인하는 불교 언론사로서의 지평 확대를 위해 정진해 주십시오.

생명존중 가르침 실현에 감사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현대불교신문은 1994년 창간한 후 지금까지 치우침 없이 다양한 교계 소식을 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 오셨습니다. 그동안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교계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정론직필의 길을 지속해 오시고 늘 새롭게 변화하고 혁신하는 모범이 되어 오심에 수희찬탄합니다.

불교환경연대는 2001년 창립한 이후 부처님의 생명존중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무분별한 환경훼손과 오염으로 고통받는 생명을 살리고 생태계를 보존하며 생물다양성 보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불교의 발우공양 정신을 구체적인 사회운동으로 전개한 빈그릇운동을 확산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러한 운동의 과정에서 현대불교는 늘 벗이 되어 함께 해주셨습니다.

특히 2018년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을 때, 불교환경연대와 환경실천캠페인 협약을 맺고 "즐거운 불편함" 캠페인을 통해 텀블러 사용하기와 장바구니 사용하기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2019년에는 그린 부디즘을 기획 취재하고 사찰운영과 불자들의 삶에서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을 실천하도록 격려하고 불자들의 환경의식을 고양한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교의 절제와 소욕지족과 같은 삶의 가치가 현대문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앞으로도 환경 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하지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구니 수행, 활동 환하게 비춰주세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현대불교신문은 비구니스님의 참선수행도량인 한마음선원 대행스님의 원력 아래 불법홍포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불자들의 신심증장뿐 아니라 비구니스님들의 수행환경 개선에도 기여한 바가 컸습니다.

특히 현대불교신문은 특집보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구니스님들의 대사회적 활동과 감동적인 수행이야기, 잘 드러나지 않은 미담사례들을 발굴해 한국 비구니승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불교신문은 여성 초대국장이라는 당시 파격적인 인사를 선보이고, 문화포교지로서 여성불교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1968년 비구니 '우담바라회'의 발족으로 시작된 전국 비구니스님들의 결집은 이제 50년을 지나 10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교역직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대학교수, 복지시설 운영, 해외포교 등 다방면에서 비구니스님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뜬 달이 천개의 강을 비추면, 이는 모든 강에 달이 뜬 것과 같아 천겁(千劫)의 세상이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불교주간지로서 매주 밝은 달을 하나씩 띄워 6000여 비구니스님들의 수행정진과 사회활동을 환하게 비춰주길 바랍니다.

한국불교 도반으로 함께 갈 것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4년 발걸음을 시작으로 불교계에 첫선을 보인 후 어느새 2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한결같은 불심으로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온 관계자 여러분과 박종수 사장님께 큰 박수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은 그동안 불교의 사회참여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불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대변해 왔으며 서로 공존 공생하는 사회를 위한 정보의 전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바른 안목과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불교계 주요 언론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25년 동안 불자들의 긍지를 대변하는 매체로서 한국불교와 함께 해 왔듯이, 앞으로도 우리불교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중앙신도회도 그 숭고한 길에 기꺼이 현대불교신문의 도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창간 25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불자들의 눈과 귀가 되고 입이 되어 불법홍포는 물론, 사회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신문사가 되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론직필, 사회 나침반 역할 해주길

윤성이 동국대 총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선 열악한 교계 언론 환경에서도 불법홍포와 불교발전에 노력해온 현대불교신문 임직원들의 공덕에 감사드립니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기치로 창간된 현대불교신문은 최초 불교 포털 '부다피아'를 설립해 불교 교리 연구와 보급, 신앙생활, 각 종단 관련단체 소식을 전하고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한 정보사회 구현과 포교에 매진해 천만 불자의 긍지를 대변해 왔습니다.

현대 사회의 미디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불교계 언론들도 뉴미디어로의 확장성을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초 불교 포털을 만들며 시대를 선도했던 현대불교신문이 작금의 미디어 혁명 시대를 이끄는 미디어 매체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는 갈등과 다툼이 여전하고 약자들의 고통과 아픔은 곳곳에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불교 언론이 정파에 휩쓸리지 않고 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대안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합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불교의 부조리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간 25주년을 맞는 현대불교신문이 정론직필을 통해 불교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나침반 역할을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현대불교신문 창간 25주년을 축하드리며, 부처님 가르침을 정론을 통해 펼쳐주길 기대합니다.



자리이타의 전법길 걷는 도반 되어요

장유정 사단법인 미소원 이사장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때부터 함께한 전법 도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소원은 부산 범일동에 위치하는데 창간 당시 바로 옆, 가까운 범천동에서 현대불교신문 부산지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 저희 활동을 조명하며 응원해줬는데 벌써 25주년이 되니 마치 저희 미소원의 창간일 처럼 기쁩니다.

현대불교신문을 살펴보면 구독자도 많고 신문 가운데서 전법의 선구자로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거 같아 불자로서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미소원은 전법에 대한 원력이 많습니다. 전법을 위해 언론이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을 압니다. 언론의 역할은 전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깁니다. 불교 언론이 더욱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불자들이 함께 마음 모아주기를 바라며 저희는 언론 후원을 통해 전법에 더욱 후원하고자 합니다.

저희 미소원 정신은 '함께 웃는 세상'입니다. 봉사 · 후원 · 수행 · 전법 네 가지를 기둥으로 활동하며 자리이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온 가족 불자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웃는 세상을 꿈꾸도록 아빠 봉사단을 창립합니다.

145명으로 시작한 미소원이 이제 800여명이 넘는 회원들이 활동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함께 웃는 세상을 발원한 모든 불자들이 만든 결과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이 전법의 길을 함께 걷는 도반으로 앞으로도 더욱 성장해 아름다운 글과 사진으로 불법을 전하는 전령사 역할을 담당해주길 기대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5th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 14 교구 본사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방 장 지유대종사
주 지 경 선

총림대중일동

매월 하루 큰스님 모시는 화엄대법회
- 화엄천일기도 -

문 의 | 종무소. 051)508-3122 원주실. 051)508-3636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www.beomeo.kr

종교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WORLD BUDDHIST DHARMA-KING CENTRAL GOVERNMENT

문화체육관광부 2013-82호. 고유번호 101-82-23205.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매인 세계불교 법왕청.com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문화체육관광부 2009-19호
고유번호 101-82-18115

국제 승려 구족계 금강계단 제5회 비구 수계 대법회

테라와다 상좌부 사사나 양곤 승가대학에서 단기 출가의식 직접체험

2020년 2월 16일 - 2월 22일



세계불교정상들의 모임
개최 예정으로 각국불교대표 및 승왕

(금강계단과 회의 일정 조율 때 친견계획중)
세계불교도들의 우꾸마라 법왕 (미얀마연방승가회 회장, 종정)
한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스리랑카,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사아, 중국,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 네팔, 몽골, 인도

종교법인 세계불교법왕청과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는 450여 종단의 모든 스님들에게 출가승으로 거듭나 10년, 20년, 30년, 40년의 법납의 스님들을 행자, 사미승의 마음으로 초발심으로 되돌아가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갖고자 큰 마음 큰 뜻으로 미얀마연방 공화국 종교성의 후원과 미얀마 연방승가회의 도움을 받아 三師 七證 대원로 큰스님들을 모시고 승가대 많은 스님들의 독경 속에 장엄하고 여법한 국제 금강계단을 마련하였습니다.
미얀마 국립 양곤 사사나 승가대학교와 연방승가회 정식 비구 계첩을 받게 됩니다.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3501-04-14758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국민은행 023501-04-214874 세계불교 법왕청
■ 신청기간 : 선착순 50명 * 제출서류 : 이력서1통, 사진1매, 여권사본
■ 서류제출 : 03158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 303호)
■ 문의전화 : 02-733-5665 / 010-3618-6061

세계불교 법왕청이 동네 북인가





미얀마 종교성장관과 불교수호협회 주관하에 각국 승왕 및 지도자 회의



세계불교 법왕청 사무국 개원

왜 세계불교법왕청의 명칭을 도용하며 남의 명칭을 도용하는가?

그러면서도 왜 부끄러운 줄 모르는가? 참회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자중해야할 스님이라면 더더욱 그러하겠지요.

종교법인 세계불교법왕청에서는 정치를 멀리합니다. 시국선언을 한적도 없고 법왕, 승왕 임명장 내린 적도 없습니다.

세계불교 법왕청에서는 법왕과 승왕은 세계 각국 불교협회나 각국대표자들이 추대하는 법왕과 승왕이 진정 법왕이고 승왕이지, 동네 모임에서 한국에 와 있는 외국 스님들 초대하여 앉혀 놓고 스스로 자기가 법왕이요 승왕이라네요 그리고는 세계가 인정하는 법왕, 승왕이래요.

한국불교의 기둥인 모 종단의 종정예하에게도 감히 법왕, 승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데, 너도 나도 법왕이니 승왕이니 한국에는 왜이렇게 법왕과 승왕이 많은가.. 참으로 자랑스러워 해야 하나요? 부끄러워야 해야 하나요? 누가 알아주는 명칭인가요? 남의 명칭을 허락도 없이 도용하여 현판식하고 각료 임명장 주는 한국불교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탄스런 현상입니다.

이후 각종 법왕, 승왕이 난무하다보니 자신들이 세계인의 존경은커녕 한국불교계에서조차 내세우지 못하는 위치에서도 알아주는 이 없는 독불장군식이거나 나홀로 법왕, 승왕이 넘쳐나 한국에서 50여명이 법왕, 법황 등과 승왕이라는 명칭에 대승정까지 부끄러움 없이 당연한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현상은 한국 불교계에서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8 승려(승왕단)도 있다네요. 이들끼리 인정하고있는 법왕, 승왕, 승왕단이 공식대표에게서 인정받은 사람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전무할 것입니다. 만약 받았다면 공개해주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문자로 경고한 봐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명칭을 도용한 세계불교법왕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승왕 범만스님, 일광스님, 108승려(승왕)이라 지칭한 스님들 신문지상에 공개해명을 바랍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 이번만은 자칭 108 승왕들의 명단은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팔십을 바라보는 노승은 타종교의 교황청의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느끼는 바가 커, 승려로서의 자존심과 불교의 위상에 밑거름이 되고자 생에 마지막 회향이라 생각하고, 전 세계 각 나라 불교계 대표자들을 만나 설득에 나갔습니다. 환대와 냉대, 거절 속에서도 참아내며 오랜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한국땅 스님들의 무관심과 시기, 질투, 방해, 모략을 온 몸에 받으며 눈물로 10여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탄생된 법왕청입니다. 세계불교법왕청을 지칭하고, 법왕, 승왕이라고 지칭하는 스님들 부처님 전에 부끄럽지 않는 수행자의 모습으로 이런 일 겪어보셨나요? 이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통찰하시고 제발 명칭 도용하지 마십시오. 같은 일불 제자로 사회법으로 다투는 추한 모습 보이기 싫어 자중하며 편치 않은 마음으로 경고합니다.



세계불교도들의 법왕이신
우꾸마라 법왕
(미얀마연방승가회 회장)
책임 비서 대승정 목탁 합장





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국제붓다 평화봉사단

- 국내 외 활동 자원봉사자 환영합니다 -

지구촌 후진국 빈민촌의 어둠과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창단 된 국제붓다 평화봉사단이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흘려 봉사해 온지 4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성불자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어려운 이들의 인간방생의 도반이 되어 주시길 청합니다.

본부 02-733-5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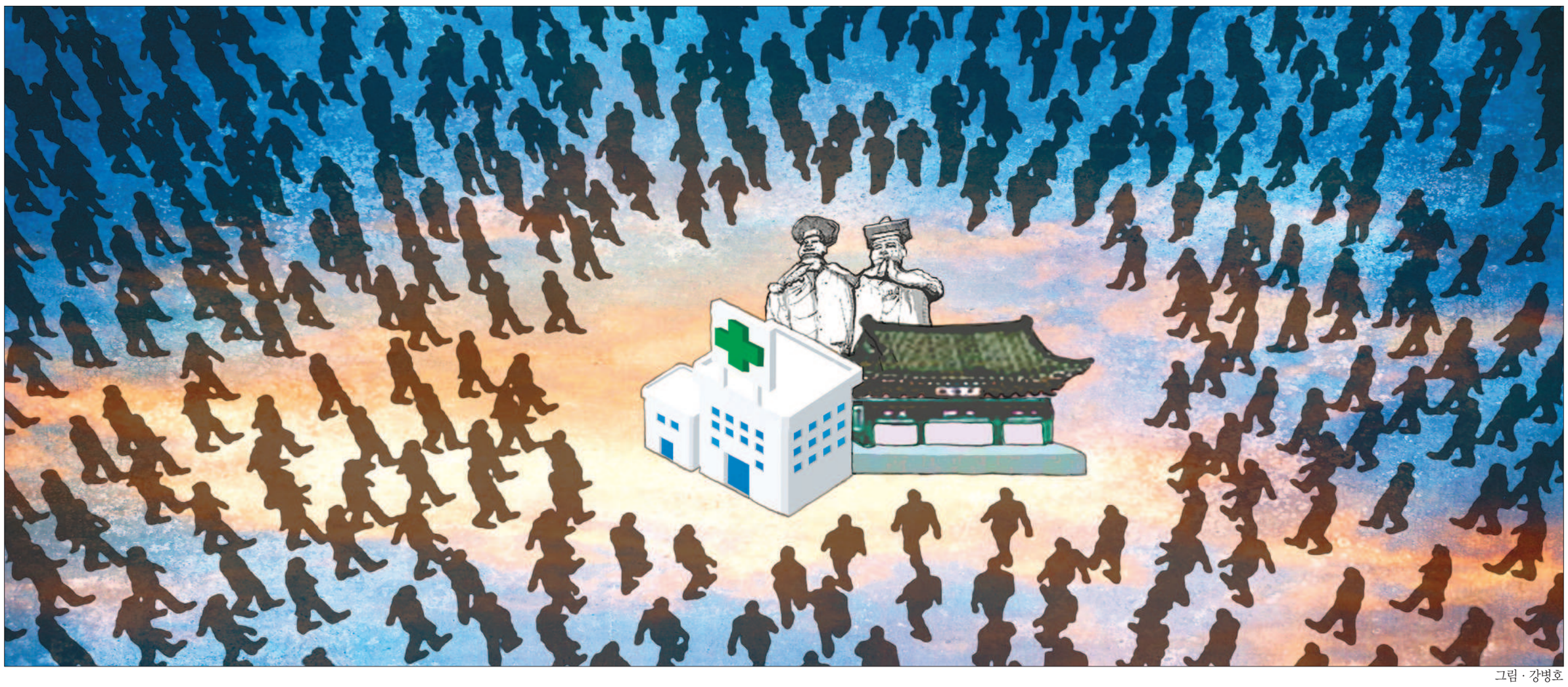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근본불교 정신 되찾는 힘 '願力'

[Prologue] 백만원력이 필요한 이유

원력(願力)은 범부가 부처의 길을 걷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다. 그 어떤 부처와 보살도 원력 없이 정각을 이룬 이는 없다. 아미타불이 부처가 되기 전 법장비구로서 극락정토 구현을 위해 세운 48대원은 불자들도 잘 아는 이야기다. 약사여래의 12대원, 보현보살의 10대원 모두 오로지 성불을 위해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이다.

원력은 분명 세우기도 힘들고, 실천하기도 어렵다. 그렇기에 원력인 것이다. 원력이 번뇌처럼 들쑥날쑥 한 것이었다면 원력이라 불리지도, 수승한 것이라 평가하지도 않았을 테니 말이다. 불도를 닦는 보살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원을 세워야 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을 내야 한다.

2019년 오늘날의 한국불교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 원력으로 삶을 살아가는가. 또 원력을 이루기 위해 무슨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한번쯤 되돌아볼 때가 됐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만고불변의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오늘날 한국불교는 인구감소와 탈종교화로 인한 종교의 위상 약화, 출가자 감소에 따른 어두운 미래, 고령화와 교세의 축소 등 어쩌면 근본불교와는 조금 거리가 먼 현상을 걱정하는 데 매몰돼 있다. 물론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를 걱정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남의 일로 치부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선행해야 하는 건 꾸준한 신행과 수행,

출가자 감소 · 탈종교화 직면
교세 위축 등 우려 커지지만
정작 근본에 대한 고민 적어
위기에 빠진 오늘날 한국불교
어떠한 원력으로 살아가는가
이제는 모두가 원력 모을 때

바로 근본불교의 정신을 되찾는 일이다. 이는 종교의 위기인 시대, 한국불교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다. 그 시작은 바로 불자 개개인의 원력이다. 지금 원력을 다지지 않으면 더 이상 한국불교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은 다시 한 번 불교중흥을 위해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선언했다. 출 · 재가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새기고, 부처님처럼 정진하고, 부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한 신행운동이다. 그리고 이 신행운동은 육바라밀의 제일 실천덕목인 보시로 이어져, 누구의 도움 없이 우리의 손으로 미래불교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

백만원력 결집불사는 찬란한 미래불교를 향한 실천 목표와 계획을 세운 것으로, 우리는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다. 첫째는 대승불교를 통한 불국토 건설을 위해 모두가 대승보살의 원력을 세우는 일이다. 가장 먼저 '이웃과 세상을 위한 발원문'을 매일 읽고 대승발원 기도를 올린다. 또한 스님은 물론이고 불자들도 매월 포살에 참여해 원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정진한다.

둘째는 기도와 더불어 원력을 실천하기 위해 적당량의 보시금을 매일 스스로 적립한다. 100원이라도 좋다. 내 손으로, 불자들의 손으로 미래불교를 그리는 일은 돈보다도 끊이지 않는 정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보시의 생활화를 통해 종단 목적불사에 동참한다. 경주 남산에 누워계시는 마애부처님을 일으켜 세우는 불사부터 인도 성지 부다가야에 한국순례자들을 위한 사찰 건립, 군포교를 위한 계룡대 3군본부 영외법당 건립, 스님과 불자들의 노후를 위한 불교요양병원 건립까지. 불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원활한 수행을 바탕으로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기여하자.

이 모든 시작은 역시나 원력이다. 아무리 거창한 계획도, 밝은 미래상도 원력 없이는 한낱 꿈일 뿐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불자가 한국불교의 오늘이고 곧 내일임을 깊이 자각하자. 이 시대 불자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원력이 백만으로 퍼질 때 대승보살의 원력은 반드시 성취된다.



일감 스님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25th을 축하합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낙산사

조실 설악 무산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TEL 033)672-2447~8
www.naksansa.or.kr

“풀뿌리 원력이 찬란한 불교 만들어”

백만원력 결집불사 4대 과제를 살피다

“한 사람의 원력이 100명을 움직이고, 1만의 원력이 100만의 강물이 되어 한국불교의 밝은 내일을 열 때까지 우리의 정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4월 17일 서울 조계사에서 선포식 개최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백만원력 결집불사가 어느덧 6개월의 시간을 보냈다. 2017~2018년 조계종 안팎의 갈등상황으로 인해 흩어진 불심을 다시 한 곳으로 모아 한국불교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백만원력 결집불사. 사부대중 개개인이 매일 대승원력보살 발원문을 독송하고, 100원씩 모아 매월 3000원을 기부하는 형식의 수행 · 보시 캠페인이다.

무엇보다 백만원력 결집불사는 단순히 수행과 보시를 넘어 불교의 미래를 사부대중의 손으로 직접 그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불 · 법 · 승을 주제로 △경주 열암곡 마애불 입불 △부처님 성지 인도 부다가야에 한국사찰 건립 △육해공 3군본부 계룡대 영외법당 건립 △불교복지 확대를 위한 불교요양병원 건립 등 4대 과제를 제시하며, 사부대중의 동참을 호소했다. 각 과제마다 적게는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이 필요한 대형불사다. 이에 본지는 4대 과제별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 등을 정리했다.


지난 10월 5일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가 봉행한 백만원력 결집 지역대회. 이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700여 명이 참석해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마음을 모았다. 사진=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열암곡 마애불 立佛



2007년 앞으로 넘어진 채 발견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8세기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애불 절벽이 통째로 뜯어지며 바닥을 바라본 형태로 자리 잡은 열암곡 마애불은 불상의 코가 지상에서 불과 5㎝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이른바 ‘5㎝의 기적’ 으로 불린다. 지난해 문화재청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해 연구한 결과, 진도 7에 달하는 강진이 잇따른 1430년에 넘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무엇보다 열암곡 마애불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4.6m, 발아래 연화대좌가 1m로 총 5.6m에 달하는 데다 불상 원형을 큰 훼손 없이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마애불이 발견됐을 당시에는 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현대과학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정도였다. 마애불의 무게만 70~80톤에 달하고, 참배조차 어려울 정도로 주변 공간이 좁아 입불은 언감생심이었다.

하지만 마애불 발견 후 10여 년이 흐른 현재, 마애불의 입불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공장 같은 대형 건물 천장에 크레인을 설치, 내부 물건을 옮기는 방식의 ‘호이스트 크레인(Hoist crane)’ 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다만 안전성을 파악하려면 모형을 만들어 실험해야 하는데, 여기에만 2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우선적으로 석축 보강 등 주변 정비작업에 나섰다.

조계종도 여기에 발맞춰 마애불 입불을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다. 현재 11월 중앙종회 정기회 이후 중앙종무기관과 중앙종회, 지역 교구본사인 불국사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꾸려 현장을 답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앙종무기관 · 산하기관 종무원 워크숍도 12월 14~15일 경주에서 개최하기로 정해 마애불을 참배할 계획이다.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인도 북동부 비하르(Bihar)주에 위치한 부다가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지 룸비니, 최초 설법지 녹야원, 열반지 구시나가라와 함께 불교 4대 성지 중 하나다.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은 곳으로, 이 자리에는 기원전 3세기경 아쇼카왕이 세웠다고 전해지는 마하보디 대탑이 있다. 부처님이 성도한 장소인 만큼 전 세계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성지다. 대탑이 위치한 마하보디사원 인근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원이자 복합단지로서 주위에는 전 세계 각국에서 건립한 사찰들이 있다. 이미 미얀마 · 베트남 · 티베트 · 태국 · 네팔 · 일본 등에서 사찰을 세워 순례자들에게 저렴하게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佛 · 法 · 僧 주제 4대 과제 제시
군포교 · 불교복지 등 가치 높아
불사별로 막대한 예산 소요 예상
모든 사부대중 동참 절실한 과제

조계종이 부다가야에 한국사찰을 건립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수많은 외국사찰이 들어선 부다가야에 한국사찰은 없기 때문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국내 7대종교 지도자들과 인도성지순례를 다녀왔지만 한국불교가 지은 사찰이 없어 아쉬움이 많았다”는 순례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다행히 부다가야에는 영축총림 통도사 부방장과 조계종 전계대화상 등을 역임한 청하당 성원 스님(1927~2001)의 유지에 따라 청하문도회가 마련한 부지 7000여 평이 있다. 이 부지는 청하 스님이 입적하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인도스님들 교육을 위한 도량을 만들라는 당부로 마련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청하 스님은 입적했지만 후학들은 수년에 걸쳐 마하보디 대탑 남쪽 300~400m 거리에 부지를 매입하고, 지난해 국제수행학교 ‘사띠 스쿨’ 을 설립했다. 이에 조계종은 통도사 측과 한국사찰 건립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사띠 스쿨 총장인 붓다팔라 스님에 의하면 현재 청하문도회의 인도법인이 인도정부에 한국사찰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따라서 종단은 설계 및 조감도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건축행위가 우리나라에 비해 복잡하지 않아 준비만 마치면 곧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붓다팔라 스님 설명이다.

계룡대 3군본부 영외법당



육 · 해 · 공군의 3군 통합기지인 계룡대 영외법당은 미래 군포교의 일익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포교 전진기지로 평가된다. 현재 계룡대 법당은 영내에만 있는 데다, 장성과 영관급 장교들이 많은 계룡대 특성상 사병이나 위관급 장교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개신교와 가톨릭은 이미 영외 군인가족 아파트 인근에 교회와 성당을 지어 더 많은 대중이 편안하게 종교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불교 역시 이웃종교와 같은 어려움을 인지하고, 영외법당 건립을 추진 중이다. 올해 초 불교교육관 건립을 위한 군 예산 약 40억 원이 책정됐으며, 조계종은 60억 원을 보태 법당까지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눈여겨볼 점은 계룡대 군법당 부지가 계룡대 제2정문으로 통하는 사거리라는 점이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곳은 계룡대 인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이다. 교회나 성당에 비해 부대 정문과 2~3배 가까워 부대에서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계룡대 주지법사인 공군장교 진홍 스님은 “영외법당 부지는 계룡대에서 가장 좋은 위치다. 서울로 비교하면 광화문사거리와 같다”며 “현재 국방예산으로 지어질 교육관은 설계업체가 선정돼 설계를 진행 중이다. 종단 지원이 보태지면 이를 공조해 법당 설계도 이뤄지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자 노후 책임질 요양병원



불교요양병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불교계에서 필요성이 두드러진 과제다. 종립 대학병원 등 의료시설은 있지만 스님과 불자들의 노후를 책임질 요양병원이 없어 노후에 불가피하게 개종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과거 전주에 머물 때 어느 날부터 신도회장이 보이지 않아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교회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를 찾아갔더니 기도하지 않으면 식사를 제공받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불편하다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영적돌봄 활동을 펼치는 스님들도 불교계 전용 요양시설이 없어 개종하는 불자들이 셀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종교계 설립 대학병원이 요양병원과 연계해 운영된다는 점을 불교계는 눈여겨봐야 한다.

현재 조계종은 승려복지회와 동국대 의료원이 협의해 일산병원 주변 부지에 불교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국대 의료원 소유의 일산병원 인근 수천여 평 토지를 종단 소유 토지와 대토하는 방법 등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설립 14주년을 맞은 동국대 일산병원도 앞으로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 종단이 추진하는 요양병원 건립에 적극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구체적인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초기단계에서는 요양병원 250베드, 요양원 50베드 수준이 논의됐다. 이는 토지 확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요양병원 건립은 앞서 소개된 다른 불사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부지를 비롯해 전문기기와 부대시설 등을 종합했을 때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이외에도 백만원력 결집불사는 한반도와 세계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나눔기금을 조성, 사회복지사업에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처럼 쉽지 않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향한 사부대중의 동참이 절실하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전국단위 동참” 백만원력 결집 신호탄

[현장] 제19교구본사 화엄사 백만원력 지역대회

조계종이 종단 현안 해결을 위해 불자 100만 명의 원력을 담은 대작불사에 나섰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0월 5일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에서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첫 지역행사를 열고, 종단 현안 해결을 위한 기금마련과 홍보활동을 펼쳤다. 백만원력 결집불사는 100만 명의 사부대중이 발원, 기도, 보시의 실천을 위해 매일 100원을 모아 한국불교의 미래에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모연된 기금은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건립, 계룡대 영외법당 건립, 불교요양병원 건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행사가 열린 화엄사는 교구차원의 독자적인 승려복지와 화엄음악회 및 불교종립학교 지원 등 호남지역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활동을 통해 모범적 교구운영을 하고 있는 제19교구 본사다.

화엄사에 문을 연 ‘백만원력 결집불사’ 지역대회에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명예 원로의원 명선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과 제19교구 화엄사 본말사 스님 200명 등 7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원행 스님은 법문을 통해 “백만원력 결집불사는 우리 종단과 한국불교의 밝은 희망을 세우는 첫 걸음”이라며 “불사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미래불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어서 시작하게 됐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스님은 이어 “종단의 예산은 대부분 경상비로 사용하기에 미래불교를 위한 특별한 불사는 기금을 만들어 사용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법문에 앞서 덕문 스님은 대회사에서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의미를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들었다.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것은 ‘불자 한 사람의 원력과 마음이 합쳐지면, 한국불교를 변화 시킬 수 있다’는 말이었다”라며 “오늘 첫 결집법회

화엄사, 5000만원 기금으로 기탁
동화사 · 월정사 · 수덕사 등 동참
“대승원력보살 거듭날 것” 발원

를 통해 교구본사 입장에서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통해 진정으로 한국불교를 바꾸고자 하는 원력의 마음을 내 서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덕문 스님은 “최근 종단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다. 한국불교가 변하는 모습에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집불사에 임하는 마음을 전했다.

이날 법회에는 화엄사 사부대중이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해졌다. 먼저 화엄사에서 마련한 기금 5000만원을 덕문 스님이 원행 스님에게 전달했고, 모든 참가자들은 휴대폰으로 ARS전화 3,000원씩 후원하며 힘을 보탰다.


백만원력 지역대회 화엄사 법회에 참석한 대중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ARS후원에 동참하고 있다. 화엄사는 이와 별도로 백만원력 기금 5000만원을 종단에 기탁하며 성공적인 불사를 기원했다.



화엄사는 백만원력 기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불단에 모연된 저금통을 올리는 신도들.

특히 미래불교의 주인공인 초등학교 아이들이 직접 발우저금통에 모은 기금을 원행 스님에게 전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신도들도 100원짜리가 모인 발우저금통을 불전에 올리며, 한국불교발전을 기원하는 시간을 보냈다.

행사는 불교의례에 이어 마하비라합창단 문화공연, 백만원력 결집불사 홍보동영상 상영, 대회사, 추진위원 위촉, 동참선언, 법어, 선언문 낭독, 발원문 낭독이 진행됐다.

화엄사는 제19교구에서 구체적인 결집불사 추진을 위해 화엄사 선재회 장길선 회장, 태안사 김영전, 한산사 문추자, 향일암 이영희 불자를 추진위원으로 위촉해 활동에 나선다.

행사 참가 대중은 백만원력 결집 선포식에 맞춰 선원문을 낭독하며 “우리는 대승 원력 보살로 거듭 나겠다. 보시 바라밀을 실천하겠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살겠다. 건강한 화합 공동체를 만들겠다. 부처님 도량을 잘 꾸미겠다”고 실천덕목을 다짐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미경(울산 도선암) 불자는 “행사에 참여해 보니 백만원력 결집불사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다. 결집불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한국불교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화엄사=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신행운동, 백만원력 결집 성공 열쇠”

[인터뷰] 백만원력결집위원장 금곡 스님

“백만원력 결집불사는 외면적으로 볼 때 특정 건립불사에 시선이 먼저 가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밑바탕을 이루는 신행운동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올린다든지, 108배를 한다든지 또는 경전을 독송한다든지, 이처럼 삶을 곧 생활불교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백만원력 결집불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산하 백만원력결집위원회 위원장인 금곡 스님은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방점을 ‘신행’에 찍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백만원력 결집불사 선포식 당시 조계종이 △경주 열암곡 마애불 입불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건립 △불교요양병원 및 요양원 건립 △계룡대 육 · 해 · 공군 본부 영외법당이라는 대작불사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앞서 불자들의 풀뿌리 신행이 정착돼야 한다는 의미다.

“백만원력 결집불사는 모든 불자들이 마음을 모아 우리 손으로 불교를 변화시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고 매일 100원씩 모아서 이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불사를 ‘모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100원씩 1년을 모아도 3만 6500원입니다. 요즘 시대에 결코 큰돈은 아니죠. 그래서 단순히 모연보다는 불자들이 생활불교로 나아갈 수 있는 인연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금곡 스님은 종단의 백만원력 결집불사 선포 후 약 6개월이 지난 현재, 가장 큰 변화로 불자들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꼽았다. 실제 결집불사 선포 초기, 불자들의 신행보다는 대대적인 모연이 언론에 조명 받으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복지재단이나 공익법인, 국제구호 NGO 등 이미 다양한 단체가 있어 기부에 부담을 느낀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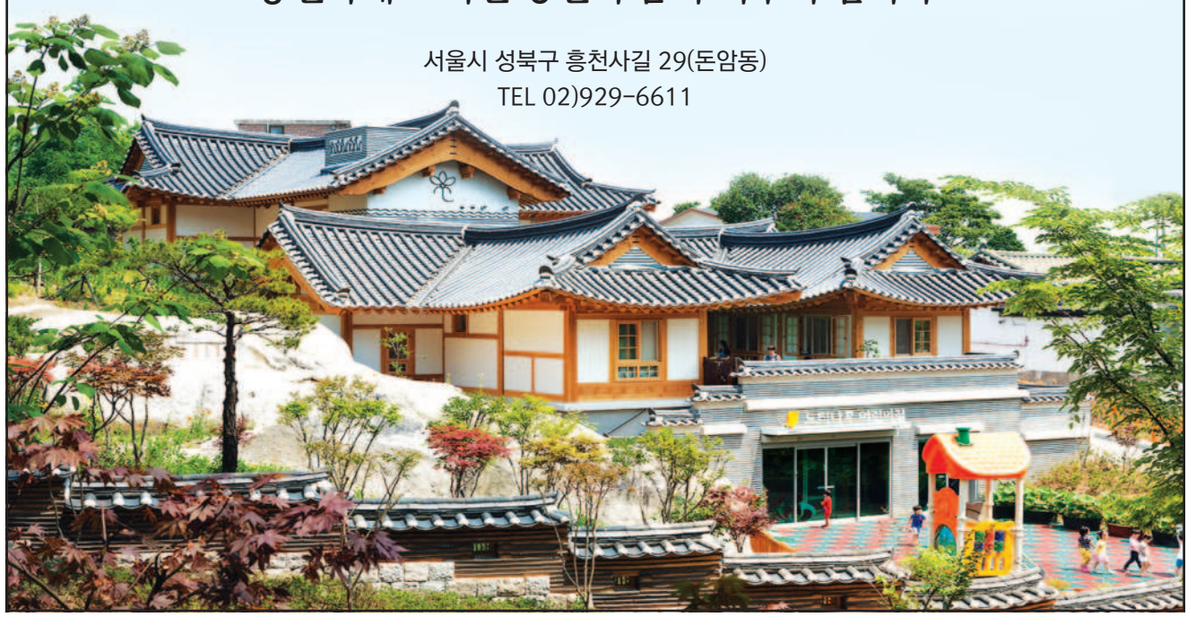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본래 취지는 모연이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대형불사가 계획으로 잡혀 이 부분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납부하는 교구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이미 여러 단체에 기부를 많이 하고 있는 불자들도 쉽게 마음을 내기 어려웠죠. 하지만 최근 중앙종무기관 차원에서 전국 교구본사를 순회하고 백만원력 지역대회를 개최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금곡 스님의 말처럼 최근 조계종은 제19교구 화엄사를 시작으로, 팔공총림 동화사, 제4교구본사 월정사 등을 순회하며 백만원력 지역대회에 동참했다. 각 대회마다 수백여 명의 불자들이 운집하고, 정성껏 모은 저금통을 기부하는 등 백만원력 결집에 힘을 보탰다. 모연보다 불자들의 신행증장에 담긴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렸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덕숭총림 수덕사와 제10교구본사 은해사도 지역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나머지 교구도 올해와 내년 상반기에 순회할 계획이다.

“우리가 매일 같이 부처님을 떠올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찾으려 노력한다면 삶을 살아가며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발심으로 시작해 곧 생활로 이어지고, 하루하루 습관이 된다면 〈반야심경〉의 구절처럼 온갖 고통에서 건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백만원력은 이처럼 불자 개개인의 발심으로 완성됩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한 명이 아닌 백만 명이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글=윤호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25th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흥천사
사부대중일동
“흥천사에 오시면 당신의 꿈이 이루어 집니다”
서울시 성북구 흥천사길 29(돈암동)
TEL 02)929-6611



현대불교신문 창간 25th을 축하합니다
천년관음기도도량
옥천암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지문길 1-38
www.okcheonam.com ☎ 02)395-4031



백만원력 모으는 화주들의 이야기

백만원력 결집불사는 말 그대로 한 명이 아닌 절대 다수의 원력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대작불사를 위한 길에는 수많은 사부대중이 동참하고 있다. 평생 모은 돈을 불사기금으로 기탁한 익명의 노스님부터 3대에 걸쳐 불심을 닦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도 매월 3000원의 보시를 이어가는 할머니까지. 무엇보다 값진 개인의 원력이 모두의 원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백만원력 결집을 위해 발로 뛰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아봤다. 누군가는 소박하게, 또 다른 누군가는 사활을 걸 정도로 백만원력을 생각하는 마음은 각각 다르지만,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공심(公心)'이다.

윤호섭 기자



돈보다 끊임없이 마음 내는 일

법본 스님 前 울산 무룡사 주지

"백만원력 결집불사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백만원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백만이 아니라 모든 종도가 힘을 쏟아야 할 원력이라고 생각했죠. 액수보다 마음을 내는 일이기에 정성만 모인다면 그 어떤 불사라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前 울산 무룡사 주지 법본 스님은 최근 주지소임을 내려놓으면서 그간 신도들과 함께 모은 10여개의 저금통을 백만원력 기금으로 기탁했다. 사세도 크지 않은 산골사찰 무룡사가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동참하게 된 배경은 조계종뿐만 아닌 한국불교의 앞날을 걱정하는 공심이었다.

"무룡사는 작은 절이지만, 신도들의 기도공간이자 신행공간입니다. 이렇게 작은 절이라도 내가 활동하는 곳이라는 마음에 더 아름답게 가꾸게 되겠죠. 그런데 먼 미래를 봤을 때 전 종도가 자랑스럽고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결집된 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집에 있는 동전이라도 갖고 오라고 부탁했죠."

법본 스님은 신도들에게 백만원력 결집불사가 마음을 내는 일이기에 굳이 액수에 연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형편이 어려운 이는 10원을 낼 수 있고, 여유 있는 이는 1000원을 낼 수 있는 것"이라며 정성이 끊이지 않는 데만 신경 쓰라고 말이다.

"무룡사에서 보낸 저금통 총액을 따져보면 분명 큰돈은 안 될 겁니다. 그래도 그것은 무룡사 대중의 마음을 전부 모은 것이기에 가치가 큽니다. 무룡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찰이 그렇게 마음을 모은다면 불교가 아니라 세상을 바꿀 힘이 생기겠죠."



지난 8월 1일 서울 조계사가 백중 5재를 맞아 개최한 백만원력 보시바라밀에서 불자기족들이 저금통을 전달하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새로운 포교전략 만드는 계기

이정우 군승법사 · 육군 대령



"지난해가 군승파송 50주년이었고, 제 군생활이 30년째입니다. 앞서 선배들이 군법당 불사에 평생을 매진해온 덕에 후배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배들이 먼저 나서 백만원력을 결집해야 불사의 참된 의미를 후배들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우 군승법사는 현재 불교군종장교 중 최선임이다. 그는 백만원력 결집불사 선포 이후 고참군승들을 모아 후배들에게 불사 동참을 권유하도록 이끈 화주이기도 하다. 그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백만원력을 결집한 이유는 간단하다. 꾸준히 이뤄진 군법당 환경개선으로 불사의 중요성을 느끼기 어려운 초임장교들에게 왜 불사에 나서야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다.

"과거 법당을 짓기 위해 힘을 쏟았던 것은 이제 완료단계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포교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새로운 50년을 위해 전환해야 하는 것이죠. 종단이 펼쳐준 백만원력이라는 장을 활용해 기도와 신심으로 다져진 군불자를 키워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정우 군승법사는 각 군법당이 신행을 고취하며 모금에 나설 것을 권유하고, 개인적으로는 루게릭병 환자들을 돕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와 비슷한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백만원력 결집은 모연만이 아니라 신행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불자들의 보시를 받기 위해서는 승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죠. 군법당 차원에서라도 백만원력을 결집하기 위해 선배들이 선도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인터뷰를 하려니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모든 포교사들과 함께 나부터, 그리고 가족으로, 주변 이웃까지 동참을 이끌어내려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호균 포교사단 서울지역단 수석부단장은 포교사로 활동한지 10여 년 된 베테랑 포교사다. 오래 전부터 서울지역단 군포교팀에서 활동하며 불자장병들의 신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런 그가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 계기는 바로 '계룡대 3군본부 영외법당 건립'이라는 과제 때문이다.

"저의 포교사 활동 대부분을 군포교로 보냈기 때문에 무엇보다 계룡대 영외법당에 눈길이 갔습니다. 그곳이 초임장교와 장병들이 신행활동하기 얼마나 어려운 여건인지 잘 알기 때문이죠. 이웃종교에 비해 청년층이 빈약한 한국불교의 미래가 군포교에 있다고 생각해 결집불사에 동참했습니다."

전호균 포교사가 활동하는 포교사단 서울지역단은 매월 각 팀장들의 회의에서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노력한다. 우선적으로 포교사들이 직접 모연에 동참한 뒤 온라인 홍보와 저금통 배포, 교육 등을 전개하고 있다. 연말에는 앞서 배포한 저금통을 회수해 일괄적으로 종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지역단뿐만 아니라 전국에 포교사가 약 5000명입니다. 포교사단 차원에서 먼저 참여하고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포교현장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제 목표는 백만원력 결집불사 정기후원자를 5000명 모아보는 겁니다. 제가 주위 사람들을 만나서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취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니 대부분 동참했습니다. 결집불사가 누구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불자를 위한 일이기에 가능한 거겠죠."

김창애 태하여행사 대표는 이미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500명 동참을 이끌어냈을 정도로 불심 깊은 불자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인 스님과의 30년 인연 덕분에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알게 된 김 대표는 마애불을 세우고, 불교요양병원을 짓는 등 종단이 세운 과제에 깊이 공감했다.

"경주 남산 열암곡의 마애부처님은 우리나라의 문화이고, 요양병원을 짓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다가야 한국사찰과 계룡대 영외법당도 마찬가지고요. 중요성을 느끼고 나니 제 원력을 바치고 싶었습니다. 후손들을 위해 우리가 지금 당연히 해야 할 의무 아닐까요?"

김 대표는 매일 아침 〈화엄경〉과 〈금강경〉 등 경전을 독송하면서 향후 가진 것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고 죽겠다는 뜻깊은 원력으로 살아간다. 많은 스님들을 만나며 '항상 베풀라'는 가르침을 들어온 그는 지금도 매일 발구모양 저금통에 동전을 모으고, 주위 사람들에게 백만원력 동참을 권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 건강에 문제가 생겨 백만원력 결집불사 홍보를 예전만큼 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건강을 회복하고, 결집불사의 회향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다시 뛰겠습니다."



5000여 포교사 一心으로 동참

전호균 포교사단 서울지역단 수석부단장

개인 아닌 모든 불자 위한 길

김창애 태하여행사 대표



현대불교신문 창간 25th을 축하합니다
천년고찰
성남 봉국사
주지 혜일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 봉국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216-2
TEL (031)755-0329, 721-0329 FAX (031)722-3761

현대불교신문 창간 25th을 축하합니다
大韓佛敎 天台宗
종정 김도용 대종사
총무원
총무원장 이문덕
총무부장 이월장
교무부장 방경혜
교육부장 정장호
재무부장 정월중
사회부장 정도웅
규정부장 김갈수
원로원
원로원장 전운덕
원로간사 주정산
종의회
종의회의장 김도원
종의회부의장 김세운
김우영
감사원
감사원장 조진덕
감사위원 곽수산
종정사서실
사서실장 박덕수
금강대학교 총장 송희연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전화 (043)423-7100 팩스 (043)420-7399
www.cheontae.org

현대불교신문

“25주년”을 축하합니다

자성의 불을 밝히는 생활 속의 참선수행도량

진화의 원동력인 자기의 불성을 믿어라

재행선사법어



그림_계상

재단이사장 혜 수
주 지 혜 솔
사부대중 일동

국내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황사평6길 176-1 (영평동)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동삼동)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04번길 23-1 (치평동)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 (천곡동)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 (중동)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위안양골길 157-61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 (우현동)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109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하평5길 29 (포남동)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266번길 31-1(상동)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직통)070-7883-5239 TEL:(1-718)460-2019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E-mail : hanmaumla@naver.com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1-847)674-0811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54-381)425-1400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55-11)3337-529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석수동) Tel.031-470-3100 Fax.031-470-3116

대한제국 불교정책이 남긴 흔적



김경집의
사찰 속 숨은 이야기
⑲ 원흥사와 안양암

1. 대한제국 대법산 원흥사의 창건

서구 열강에 맞서 황제의 나라를 천명했던 대한제국은 1897년에서 1910년까지 14년의 짧은 기간 존속했다. 칭호와 달리 나라의 모든 상황은 점점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불교 역시 개항 이후 진출한 일본불교가 1895년 도성출입금지가 해제된 계기로 점점 증가되는 추세였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대한제국은 지금까지 방치하였던 한국불교에 대한 관리를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일본불교 각 종파는 이미 한국 내 포교소를 설치하고 법회를 통해 상당히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 그중 정토종은 경성개교소를 세워 상당히 큰 위세를 발휘했다. 대한제국은 일본불교를 고갈시키고 정토종 회원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웠다.

한국불교를 통합할 수 있는 중심 사찰을 세워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영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의도에서 대한제국은 동대문 밖 창신동에 별장이었던 영미정을 매입해 사찰로 개축했다. 처음 명칭은 소흥사였던 이 사찰은 1902년 1월 원흥사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원흥사는 창건되면서부터 한국불교의 대법산으로 총종무소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설치된 승직 가운데 중요한 것은 도섭리와 내산섭리였다. 여기서 도섭리는 총무원장이며 내산섭리는 경성 부근의 사찰을 총감독하는 위치였다.

경성 내의 궁녀와 양반가의 부인들의 참배가 빈번하여 다른 곳의 사찰과 구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승직 이외에도 좌우교정, 대선의, 상강의 각각 1인 그리고 이무 5인을 두었다.

이와 함께 13도 각각 1개소의 중법산을 두었다. 이곳에는 섭이, 도교정, 부교정, 선의, 강의 각각 1인씩을 두고 도내 사찰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였다. 각 사찰에는 주지 1인을 두었다.

1902년 1월 25일에 거행된 원흥사 개당식에는 공사 책임자인 권종석과 중추원의관 조병덕 그리고 도섭리로 임명된 순일을 비롯하로 승려 500여 명과 재가신도 약 300여 명이 모였다.

정토종의 책임자였던 광안진수를 초청하여 법문을 들었다. 이처럼 많은 숫자의 대중들이 모여 법회를 개최한 것, 정토종 포교책임자를 초청한 것은 한국의 사원관리를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와 원흥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던 가를 보여주는 단서이다.

그렇지만 대한제국의 불교정책이라는 원대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원흥사는 창건 후 특별한 활동을 펼치지 못하였다.

정부의 계획 역시 후속으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한국불교 스스로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04년 사사관리서가 폐지되자 대법산 제도 역시 폐지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이곳을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하겠다는 생각한 것은 불교연구회의 홍월초와 이보담이었다. 신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교육기관 설립을 생각한 그들은 1906년 2월 5일 내부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청원에 대해 내부는 2월 19일로 허가를 하면서 학문을 연구하고 교육을 개발하여 자비와 수선에만 힘쓸 것을 당부하였다.

1906년 2월 19일 허가를 받은 불교연구회는 각도의 수사찰에 그 취지와 학생을 모집하는 통문을 보냈다. 13세에서 30세의 학생들을 뽑았으며 경비는 연구회에서 부담하였다.

이 같은 목적에 의해 설립된 명진학교는 당시 의식 있는 승려들의 지지를 받았다. 한국불교의 국가적인 관리는 실패하였지만 근대식 불교교육은 시작할 수 있었다.

그 후 원흥사는 명진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 1916년 매각되었고, 그 후 창신공입보통학교가 세워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2. 사찰을 관리하던 사사관이서

대한제국이 일본불교에 대한 경각심에서 한국불교 재건의 목적으로 세웠던 것이 원흥사였다면, 사사관리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직 관리를 하겠다고 1902년 4월 11일 세운 정부부서였다. 관리서의 설립 목적은 7월 36개조의 시행규칙인 '국내사찰현행세칙'을 제정할 때 권종석이 쓴 연의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구한말 승려들의 폐해와 어리석음이 많아져 승려들 스스로가 불교의 가르침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둘째, 조선조 오백 년을 지내면서 배불정책으로 많은 수모를 당한 승려이지만 역시 그들도 교화하고 가르쳐야 할 백성이고, 불교계의 유적이 폐허가 되어 임의대로 널려 있지만 관리해야 할 대상이다.

셋째, 위의 두 가지 현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리서를 세워 사찰을 총괄한다면 불교계를 정리, 발전시킬 수 있다.

넷째, 이처럼 불교계를 통합 · 정리하고자 함은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침략과 일본불교의 진출에 따른 위기감에서 국가를 보위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불교계가 이 뜻을 받들어 더 이상 참혹한 경지에는 나가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이러한 내용들로 볼 때 대한제국은 일본불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불교계를 통합, 관리한다면 그것이 곧 일본과 일본불교의 침략에서 국가를 보위할 수 있는 길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교관은 조선조 배불의 경향에서 본다면 상당히 변화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사찰현행세칙에서 제일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은 한국불교의 특색이다. 하나의 교리나 종파에 구애되지 않고 돈, 점, 비밀, 부정, 장, 통, 별, 원의 8교의 수기문을 선양하여 견성성불을 진리를 개시할 것을 말하고 있음에서 통불교로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재 창신동에 있는 안양암. 염불신앙의 중심지였다.

관리서에 설치한 승직과 행정적 조직은 불교가 시대적 조류에 맞추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진보된 것이었다. 그러나 불교계 스스로 조직한 것이 아니고 국가의 사원관리라는 목적에 의해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면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국가적인 제한으로 두드러진 것은 행정적 지휘감독권이 전적으로 관리서에 일임되어 사찰들의

개항 후 일본불교 대응해 창건
대법산 제도 폐지 후 쇠락
국가주도 불교관 반영된 곳

독자적인 사원관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좌우교정이나 도교정은 사원과 승려에 관한 범위 내에서의 사무만 관장하고 나머지 행정상의 일들은 모두 관리서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좌교정 이하 각 사원의 책임자 임명장을 관리서에서 지급하고 있음도 국가적인 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사찰현행세칙이 반포되면서 역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국가에서 승려가 되는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주었다는 사실, 승려의 사회적 신분을 높이고 교단의 발전을 위해 보상과 징계의 규칙을 시행한 점, 그리고 학교를 설립하여 승려 가운데 총명하고 재주가 있는 자를 교육하여 교단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정책들이 들어있었다.

이는 비록 국가적인 관리라고 하지만 불교가 어두운 시대를 청산하고 비로소 근대적인 모습을 지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사관리서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폐지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대한제국의 정치가 부패하여 훌륭한 법령도 올바르게 실행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도 예기했던 성과를 거둘 수 없자 1904년 1월 관리서를 폐지한 후 그 소관업무를 내부관방으로 이관하였다. 그리고 2월에 칙령 제15호로 사사에 관한 사무를 내부지방국으로 옮겼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는 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사사계로 편성되었다가 1919년에 학무국 종교과로 이관되었다.

3. 거사모임 종교회를 두었던 안양암

원흥사를 창건하고 사사관리서를 설치하였지만 그곳에 신행단체를 둘 수 없었다. 일본불교 신도회 같이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했던 대한제국은 원흥사 옆 안양암을 주목하였다. 그곳은 거사들이 중심이 되어 창건되었고, 그들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양암은 1889년 성월에 의해 창건되었다. 그는 철종 때 창경궁 남쪽에 살며 불교를 독실하게 믿던 이재청과 부인 김씨의 후손이었다. 그들은 불심으로 자식을 얻어 훗날 불사를 크게 일으키는 인물로 키우고 싶어 사찰에 갈 때마다 득남 기도를 올렸다.

어느 날 김씨 부인의 꿈에 나이 많은 노스님이 장삼을 걸치고 와 절을 하면서 "소승은 삼각산에 있는 승려인데 산을 내려 왔다가 날이 저물어서 갈 곳이 없으니 댁의 사랑에서 하룻밤을 재워 주면 고맙겠습니다."

부인은 스님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남편과 의논하겠습니다."하고 남편이 있는 사랑으로 나오는데 잠에서 깨었다.

꿈꾼 내용을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였다. 그 뒤 열 달 후 내외는 남자아이를 얻었고 이름을 창진이라 하였다. 어릴 때부터 글재주가 탁월했던 그는 이십 때 진사가 되어 재주를 드날렸으나 썩어가는 나라의 관리가 되기 싫어 출사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술과 벗하며 세월을 보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의 병이 깊어지자 술을 끊고 병간호에 전념하였으나 임종이 가까워졌다. 그러자 창진은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부친의 입에 넣었다. 잠시 기력을 회생한 부친에게 마지막 말씀을 당부하였다. 아버지는 "염불하라. 지성으로 염불해야 극락에 간다." 하고 숨을 거두었다.

부친의 유훈을 받들고자 염불 공부를 위해 사찰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염불정진은 잘 되지를 않았다. 십여 년을 지낸 후 환옹 스님을 친견하게 되었다. 그에게 불법을 잘 닦아 생사대해의 큰 바다를 벗어나는 방법을 물었다. "자네는 육자염불을 주야독송 하여 극락길을 찾으소."

큰 감응을 받은 창진은 출가하기를 간청하였으나 환옹은 거사로 살기를 바라며 성월이라는 법명을 주었다. 이때가 1889년이었다. 염불에 대해 공부하며 여산 혜원이 백연결사를 한 내용을 알고 자신도 절을 지어 염불을 하며 여생을 마치려는 생각이 불같이 일어났다. 그 해 9월 사방으로 터를 구하려 다니다가 동대문 밖에 초옥을 사서 칠성각을 짓고 무양회를 건설하여 염불 도량을 열었다.

칠성각은 거사 사찰이라는 점과 염불 왕생을 목적으로 30여 명에 달해 장안에 화제가 되었다. 1899년 사세가 커지자 이름을 안양암으로 고쳤다. 성월은 1901년 4월 환옹에게 출가하여 선주라는 법명을 받았다. 그 해 5월 도봉산 망월사에서 비구계와 보살계를 받았다.

이렇게 건립된 동대문 밖의 안양암은 대한제국의 대법산 원흥사와 한국사찰을 관리하던 사사관리서와 지근거리에 있었다. 원흥사에 신행단체를 둘 수 없자 1902년 7월 이곳에 거사들의 모임인 종교회를 두었다.

종교회는 임원으로 교장 1인, 부교장 1인, 참사와 서기 2인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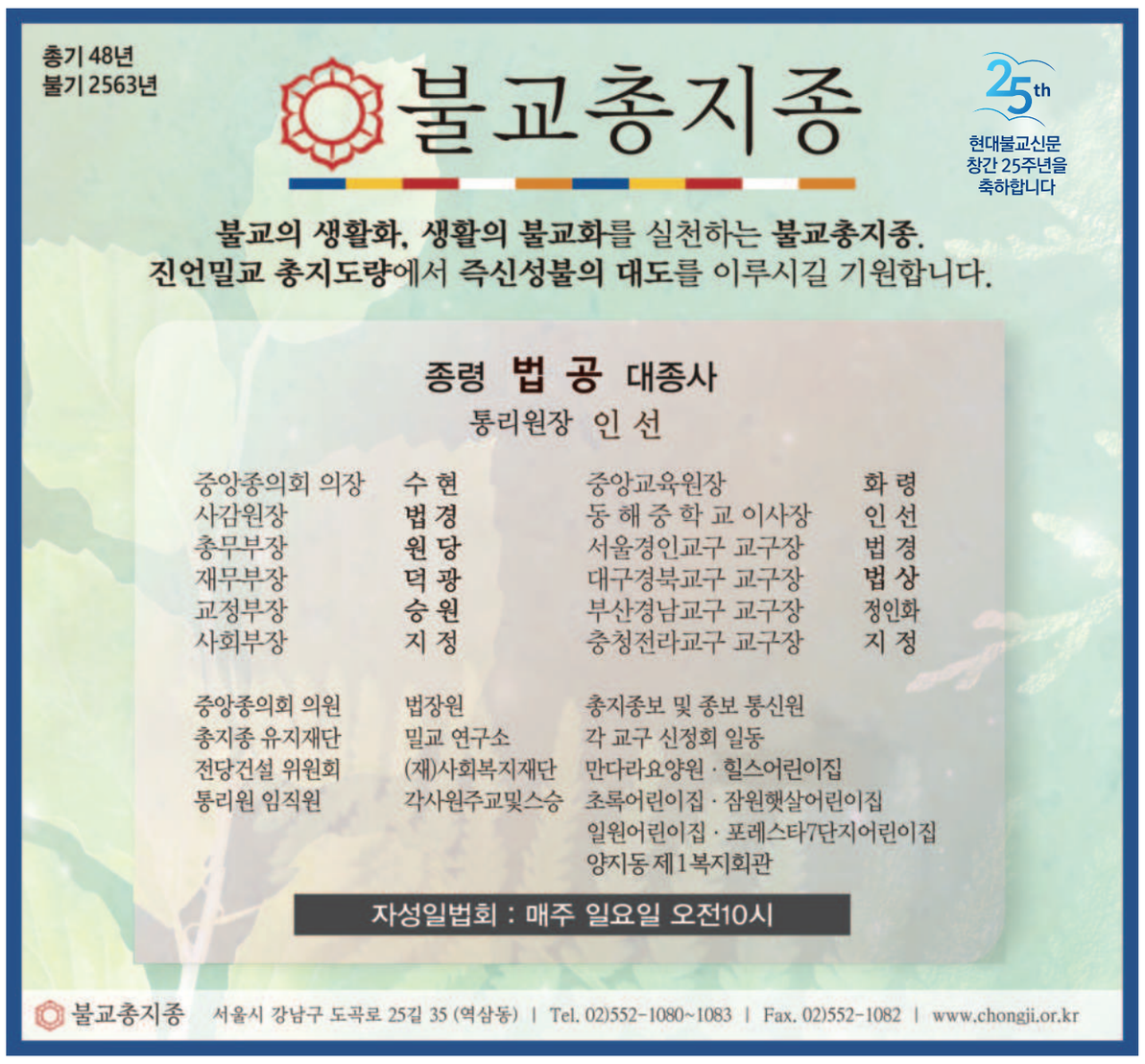
안양암에도 수십 명이 집회하여 자신들의 신앙활동을 하였고, 또한 각 도의 거사들을 관장하였다는 기록으로 볼 때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이 전해지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이런 기록으로 볼 때 대법산인 원흥사가 일본불교에 대한 견제의 일환으로 세워진 것처럼 관리서가 중심이 되어 안양암에 조직한 재가불교운동 역시 그와 같은 의미를 지녔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사사관리서가 격변기를 맞아 많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1904년 1월 폐지되자 주도했던 재가불교운동 역시 중지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안양암은 지방에 명망 있는 스님들이 한양에 오면 이곳에 머물며 설법도 하고 불공도 하면서 서서히 다가오는 근대불교를 준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산불교대학 사찰역사문화연구회 지도교수〉





쉬운 결심이 지키기 더 어렵다



남혜경의
Buddhist Coaching

⑲ 금단의 고통 줄이기, 명상



그림 · 박구원

코칭 단골 이슈는 여성에겐 다이어트, 남성에겐 금주다. 그만큼 쉽게 결심하고 시도하지만 중도 실패율이 높은 미션이라는 뜻이다.

50대의 기택 씨. 술자리 접대가 많은 영업 업무를 하던 그는 일의 연장으로 술자리를 이어갔고, 술에 취해 일상의 걱정거리를 잊는 음주생활에 익숙해져 매주 서너 번은 취하도록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업무를 마무리하고 인생의 시즌 2를 준비하려는 지금, 기택 씨는 새로운 도전에 가장 큰 장애가 음주 습관임을 새삼 깨달았다. 저녁 시간을 술자리에 뺏기다 보니 새로운 공부나 운동을 이어가기가 어려웠다.

점점 심해지는 음주 후의 주사(酒邪)도 금주를 해야 하는 큰 이유가 되었다. 지난 명절에는 일가친척이 다 모여 집안 대소사를 의논하는 자리였는데 사촌 형에게 소리를 지르고 쌍욕을 해대는 일까지 일어났다. 뒷날 아내에게 자세히 전해들은 그는 자신이 너무 한심해 견딜 수가 없었다. 여러 번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금주를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영국의 신경정신약리학자인 데이비드 너트가 조사한 약물 피해 비교에 따르면, 알코올의 피해는 마약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영국의 경우이지만 음주문화에 관대한 우리나라에서도 알코올에 따른 피해나 범죄가 상당히 심각한 건 사실이다.

술이 주는 기쁨, 술이 주는 고통

술을 멀리 하고 싶은 코칭은, 거꾸로 술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찾는 것으로 시작했다.

Q: 술은 자신에게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서 술을 찾게 되며, 술을 마시면 어떤 이로움이 있는가.

A: 힘든 일을 끝내고 홀가분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오랜만에 지인을 만났을 때, 친구들과 편안한 만남에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무조건 술 한 잔으로 시작한다. 그러다보니 좋아서도 한 잔, 우울해서도 한 잔, 늘 술을 찾았다. 취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걱정하던 일이 별 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평소에 못할 말도 용기 있게 하게 된다.

Q: 술이 편안하고 좋은 친구인데도 멀리 하려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술을 마실 때는 즐겁지만 그 후유증과 부작용이 점점 커지고 있다.

뒷날 숙취로 고생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40대까지만 해도 몇 시간 더 자거나 사우나라도 다녀오면 거뜬해지곤 했지만 이제는 뒷날 오후까지도 두통과 속 쓰림에 시달린다. 매번 그러면서도 술을 줄이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져 최근에는 술에서 깨어난 후에는 음주우울증이라고 할 정도로 기분이 좋지 않다.

술을 마시느라고 또 숙취 때문에 버리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도 많이 든다. 중요한 약속을 미루기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등 일상에 지장을 많이 준다. 그리고 취중에 지인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번 건강검진에서는 의사가 복부비만이 심각하고 지방간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다.

기택 씨가 꼽는, 술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다섯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많았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 질문에 접근해야 할 때이다.

Q: 술자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나

A: 만나자는 약속을 거절하기 곤란하다. 특히 대학 동창으로 30년 지기인 친구들과 술자리를 함께 하는 재미를 포기하기 힘들다. 그리고 해가 질 때가 되면 맥주 한잔의 유혹이 간절하다. 집에 일찍 들어가는 게 어색하고 심심하게 느껴진다.

기택 씨는 친구들과 즐거운 술자리를 못한다는 것을 가장 아쉽게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술을 안 마시면 딱히 할 일도 없다고 생각했다.

코칭의 핵심 철학은 긍정성에 있다. 이렇게 술을 끊으면 생기는 여러 결핍을 고객이 강조할 때 술자리를 대신한 무엇이 가져올 이득에 시선을 돌리게 한다. 긍정의 효과로 변화를 시도하게 하는 것이다.

Q: 평소에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어놓은, 하고 싶은 일들은 무엇이 있는가. 술자리로 보내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고 그 시간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코칭의 핵심철학은 '긍정성'
금단의 불쾌감 그대로 바라보기
명상 통해 자신의 변화 유도

A: 예전부터 그림을 배우거나 악기를 하나 배우고 싶었지만 미루고만 있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을 아쉽게 떠올리던 그는 퇴근 후 자신의 저녁시간을 그림으로 그려보기로 했다.

선과 도형, 색깔과 리듬의 묘사는 놀라울 정도의 알아차림을 하게 해준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던 시간 낭비를 실제로 시각화하면서 기택 씨는 새삼 깨달았다. 그는 술 마시는 날은 회색빛으로 칠했으며 운동을 하거나 뭔가를 배우는 시간은 화사한 색깔로 표현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에 3~4시간 씩 술을 마시느라 시간을 보내는데다가 어쩌다 일찍 들어가는 날이나 주말에도 피곤해서 누워 빈둥거리기 일쑤였다. 술 마시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시간은 멈추거나 죽어있는 시간이었으며, 애써 외면하던 시간이었다.

술자리를 안 한다면 저녁마다 자신이 하고 싶던 운동이나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등을 충분히 하고도 주말을 가족과 상쾌한 컨디션으로 보낼 수 있었다. 두 그림을 비교하면서 기택씨는 잿빛의 시간을 밝은 화사함으로 빨리 바꾸고 싶어졌다.

건강한 저녁 활동과 고통을 덜어줄 명상

그 상쾌하고 화사한,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기택 씨는 술자리를 하지 않는 아쉬움을 정면돌파할 용기를 갖게 되었다. 30년 지기 친구들과는 다른 활동으로 시간을 같이 보내도록 유도해볼 계획이다. 함께 수영이나 스쿼시 같은 운동을 해도 좋고, 주말에 부부동반으로 등산을 해도 좋겠다.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동안은 자신이 왕따가 되더라도 술자리를 피해볼 생각이다.

기택 씨는 다음날로 헬스클럽에 등록을 했고, 문화센터에 가서 연필드로잉 강좌를 신청했다. 이후 주 1회 그는 어떻게 그 결심을 실천하고 있는지 문자 메시지로 코치와 변화를 공유했다.

한 달이 지나자 기택 씨는 애써서 새로운 일정을 지키기고 있지만 자주 나타나는 금단의 증상이 힘들다고 호소해왔다. 코치는 금단의 고통을 완화시켜줄 해법으로 명상을 강력하게 추천했다. 불교에서는 정신의 의존증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중독을 갈애에서 비롯된 집착으로 본다. 집착은 또다시 집착을 불러 습관이 되는데 이 상태가 중독이다. 습관의 관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습관이 쌓이면 업이 되고 이 업은 끝없이 감각의 만족을 원하는 갈애에 가득 차있다. 술 중독은 대표적인 갈애의 하나이다.

갈애에서 벗어나는 가장 평화로운 방법이 바로 명상이다. 명상의 알아차림과 깨어있음으로 정신의 의존에서 벗어나서 고요함과 평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경험자들은 말한다. 마음챙김 명상에서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는 목적은 마음을 고요하게 안정시켜 지금 일어나는 감정에서 도망가지 않으면서 집착하지도 않고 관찰하기 위함이다.

명상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진화심리학으로 불교철학에 접근하는 로버트 라이트 교수의 말에 다시 귀를 기울여보자.

생존과 진화의 과정에서 오랜 세월 굳어진 인간의 감정이란 순간순간 달라지는 환영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그는 갈애에 빠져 있는 이 느낌이 진실인지, 명상으로 그 느낌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놓여난 그 상태가 진실인지 근본의 질문을 던진다.

"내가 매우 큰 슬픔을 느낄 때 자주 시도하는 방법이 있다. 우선 자리에 앉아 눈을 감는다. 지금 느껴지는 슬픔을 찬찬히 살펴본다. 슬픔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내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관찰한다. 예컨대 나는 울음을 터뜨리기 전에 눈 주위에서 슬픔을 느낀다. 슬픔에 대해 명상하기 전에는 몰랐던 사실이다. 슬픔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주의 깊게 관찰하면 불쾌한 기분으로부터 상당 부분 자유로워진다. 이 방법은 환영이라 할 수 있는 모든 감정, 두려움이나 불안, 자기혐오 등의 감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부정적인 느낌에 대해 명상함으로써 환영을 물리칠 수 있다."

로버트라이트의 저서 〈불교는 왜 진실인가〉 중에서

명상을 처음 시작한 몇 주간 기택 씨는 자신이 빠져있는 금단의 불쾌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노력했다.

"무척 어려웠습니다. 내 감정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다 새벽에 눈이 떠졌는데 우울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마음을 발견했죠. 명상모임에서 배운 대로 깊은 호흡을 하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척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기택 씨는 명상을 시작하고 다달이 변하는 상태를 코치와 공유했다.

"아직 금주를 완성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술을 끊으면서 느끼는 몸과 마음의 자잘한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발견하고 가끔씩은 통제할 수 있다는 데 안도하면서 계속 해나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성질이 급하고 집중력이 약하다고 여겨온 자신이 명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다는 그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 방법을 추천하고 싶다고 말한다.

〈한국코치협회 전문코치〉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조계종 계율청정종단

25th 현대불교신문 창간 25주년을 축하합니다

■ 종정 대행 : 혜 인
총무원장 대행 : 법 광 사서실장 : 천 산 율원장 : 혜일
중앙선원장 : 도일

■ 원로원 :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 총무원
부 원 장: 동안, 도불, 서봉금산
총무부장: 법성
재무부장: 혜만
교무부장: 혜일
사회부장: 동오
문화부장: 태산
총무국장: 남산
재무국장: 정일
교무국장: 율조
사회국장: 법일
문화국장: 호산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교육원장: 무공
교육부원장: 덕산
교육부장: 법광
교육국장: 진산
포교원장: 정산
포교부장: 송산
포교국장: 영암
국제포교원장: 천산인월
기획원장: 혜타
기획실장: 대덕화
호계원장: 법철
호계부장: 태산
규정부장: 명원
규정국장: 지산
호법부장: 법안
호법국장: 지호
감찰원장: 정오
감차부장: 백산지견
감찰1국장: 금산
감찰2국장: 인산
비구니회장: 지성
비구니부장: 혜승
교수사: 덕산
총무: 금산
부회장: 혜산, 해원
재무: 도은, 정해
교무:본각, 수정
교육: 보림, 성담
문화: 남산, 진화
포교: 보명, 홍산
강원: 각원, 해인
복지: 화광, 무연
감찰: 서호, 보현
불화: 혜담, 인산
의식: 련성, 지해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현조
경기종무원장: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해인
인천종무원장: 혜원
강원종무원장: 광덕
충북종무원장: 학산
충남종무원장: 혜덕
경남종무원장: 백산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천산
경남창원종무원장: 지원
경북종무원장: 덕운
부산종무원장: 서봉금산
울산종무원장: 법철
광주종무원장: 지각
전남종무원장: 도명
전북종무원장: 법성
제주종무원장: 청호
일본오사카종무원장: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해산
베트남종무원장: 청목

◆ 학교법인 삼화학원 ◆

▣ 불교조계종 대학림
학 장 : 혜일
교 수 : 해운, 진산, 태산, 덕산, 현조, 혜승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오,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 불교조계종 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 중국남경중의약대학
교 장 : 혜인
부 교 장 : 손영진
한국총장 : 홍창석
교학처장 : 손 정
학생처장 : 지안영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기자: 나윤하
사회부기자: 이근진
편집인: 문화부장 태산, 문화국장 황산, 사회국장 법산
이사: 혜원, 정산, 각원, 덕산,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경기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경북총림 대국사

▣ 전국신도회
전국신도회장: 홍창석
고문: 설주성
수석부회장: 윤근
여신도회장: 김준자
서울신도회장: 서우연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 청년신도회
회 장: 손정일
홍보처장: 이근진
기획대리: 나윤하
기획실장: 홍의현

총무원 :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6가길 50-1 (돈암동 83-2)
총무국 : 02)511-2026~7 / 팩스 : 02)511-2028
종단사업부 : 02)549-1918
총무원장실 :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 02)511-2026~7
일간동국신문사 : 02)511-1080
홈페이지 : 불교조계종.kr (www.jogye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buddhijogyesm.co.kr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이메일 주소 : samhwade@naver.com
samhwade@hanmail.net

시간 속에 난 어떻게 존재하는가



김성규의
緣起 이야기

⑲ 시간연기에 대한 이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를 인식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시간적인 관점에서 존재를 이해 하는 방법과 공간적 관점에서 존재를 이해하는 방법이다. 또 시공간이 통합된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오온 연기는 공간적 관점에서 연기를 보는 것이며 12연기는 시간적 관점과 공간적 관점을 통합해서 이해하는 방법이다.



그림 · 강병호

연기에 대한 인식

시간연기에 대해서는 〈금강경〉 제18장 일체동관문에 잘 나타나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물었다. "부처는 육안이 있느냐?"

그러자 수보리는 "예 육안이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석가모니 부처님은 천안과 혜안, 법안, 불안이 부처에게 있는지를 물었다. 육안, 천안, 혜안, 법안, 불안이라는 것이 12처에 대한 이해와 6근과 6식의 이해가 바로 육안에 대한 인식이다. 삼법인의 속성이 이해되면 천안이 열렸다고 한다. 부처의 혜안은 시간연기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되면 혜안이 있다고 한다. 법안이란 오온연기에 대한 인식의 이해이다. 수십억 겁을 수행해야만 부처가 된다고 하고 있다. 부처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어렵고 힘든 수행과정을 거쳐 부처되고 나를 아는 것이 바로 12연기에 대한 인식과 이해이다. 오온에 대한 인식과 이해와 시간연기에 대한 이해가 절대 쉬운 것이 아니다.

시간연기의 발생양식

시간연기를 산스크리트어로 표현하면 '프라티아트야 우뜨파다' 이다. 우리말로 풀어보면 '기대어 일어남 연하여 일어남' 이며 이를 한문으로 간단히 표현한 것이 '연생(緣生)' 이다.

기대어 일어나다, 연하여 일어나는 것이 시간연기의 발생양식이다. 시간연기의 기본적인 형태는 기대어 일어나고 연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바로 연생인 것이다.

'프라티' 는 '~에 대하여, ~을 향하여' 이며 '아' 는 '가다' . '트야' 는 '~하여, ~향하여 가서' 이다. '우뜨' 는 '위로, 위로는 일어남' 을 뜻하고 '파다' 는 '가다' 의 뜻이다.

즉, 시간연기의 발생양식은 기대어 일어나고 연하여 일어나는 연생이라는 뜻이다. 기대어 일어나고 연하여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 내가 눈을 통해서 부처님을 본다고 하자. 눈을 통하여 그 대상을 보면 대상에 대한 어떤 식이 생겨난다. 이것이 연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다른 것이 뒤이어 일어난다는 것이다. 뒤에 오는 행위가 이어서 일어나려고 하며 반드시 선행하는 것이 있어야 그것에 의해서 그 다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기서 연하여 일어난다. 기대어 일어난 다는 것은 의지하여 일어난다는 것이다. 앞에 것이 없으면 뒤에 것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는데 기본이 되는 '안이비설신의' 가 있다. 이 6근에 대한 대상이 항상 존재한다. 예를 들어 눈이 있어야만 건물이 보인다. 지금 강의를 듣는 것은 귀가 있어 가능하다. 다른 것으로는 들을 수가 없다. 귀가 있어야만 들을 수가 있다. 냄새를 맡는 것은 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코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냄새 맞는 것만 가능하다. 맛을 느끼는 것은 혀가 있어 가능하다. 누가 손을 만졌을 때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는 것은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총체적으로 대상에 대한 생각을 일으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6근에 대한 대상은 6경으로 이루어진다. 6경은 색성향미촉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6근과 6경이 합해서 12처가 된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12처니라 '라는 말처럼 부처님은 존재하는 것을 표현할 때 12처로 표현했다. 6근과 6경이 합해지니 6식이 생긴다. 눈으로 인해서 대상을 보는 작용인 안식이 생기고 소리를 듣는 것으로 인해서 이식이 생기고 안이비설신의까지 6식이 생긴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이 몸뚱이는 끊임없이 변해왔다.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무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해간다.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는 것은 없다.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다. 우리 몸뚱이도 1백 년을 쓰고 나면 허물어져 버린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변해가는 끝은 멸이며 죽음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변해가는 6근을 무상하다고 했다. 그래서 모든 것의 마지막은 멸로 끝나고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고(苦)라고 하였다. 왜 '고' 인가. 그 이유는 마지막 종착역이 멸이며 죽음이기 때문이다.

> 안이비설신의는 무상이고 고이다
> 변화하고 그 끝에는 멸하게 되니
> 나라고 주장할 만한 주체는 없다
> 그러므로 6근은 무아이기도 하다

그래서 6근은 무상이고 고인 것이다.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변해가는 끝은 멸하므로 무상이며 고인 것이다. 나라고 주장할 만한 주체성이 없다. 그러므로 6근은 무아이기도 하다. 나라고 주장할 만한 독립된 주체가 없는 것이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나라고 주장하는 독립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아인 것이다.

시간 연기의 전개

6근은 기본적으로 삼법인의 속성과 의지적 작용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6경은 색성향미촉법이다. 색경, 성경, 향경, 미경, 촉경, 법경인 6경도 삼법인의 속성을 갖고 있다. 6근의 대상인 6경도 똑같이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진다.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몸뚱이가 삼법인의 속성을 갖고 있듯이 대상인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삼법인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6경도 결국은 무상이다. 지금 우리가 건물을 지었다 할 때 천 년이 지나고 나면 허물어져 버린다. 목조건물을 예를 들어 1000년이 지나면 보물이 되고 국보가 된다. 잘 보존하여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귀하게 되어서 보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 년이 지나고 나면 다 허물어져 버리고 없다. 허물어지고 난 끝이 멸이기 때문에 고인 것이다. 그러므로 6경도 무상이고 고이고 무아인 것이다.

6근과 6경이 삼법인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삼법인의 속성을 갖게 된다. 여기서 6경은 필연적인 반응의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을 이해해야 된다. 무상의 기본인 속성은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변한다. 예를 들어 술을 놔두면 식초가 된다. A술이 B식초로 변하게 된다. 술을 놔두었더니 시간이 지나서 보니 식초가 되었다. A는 없어져도 B는 남아있다.

처음에는 술이었다가 뒤에 식초가 되었다면 앞에 것은 없어지고 남아 있는 것은 식초이다. 존재는 인식이라고 했다. 그런데 술이 발효되어서 식초가 되었고, 변화된 상태에서 인식하는 것은 식초밖에 없다. 변화의 끝인 식초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B는 존재하지만 A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 A는 없어졌으므로 A는 멸했다고 한다. 없던 B는 어떤 시간을 기점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 시간을 기점으로 볼 때 A는 멸했고 B는 생한 것이다. 이것이 앞에서 배웠던 연기로써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인 것이다.

무상하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일정한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변화를 한다. 이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술A가 식초B로 변한 것이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변화 속에서 술은 없어져 버리고 식초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6근과 6경이 부딪쳐서 생긴 6식의 기본적인 속성은 변화인 것이다. 우리가 인식할 것은 변화하는 것을 변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 죽는 다는 것을 지금 받아들인다면 즉 내일 죽는다면 오늘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떻겠는가? 죽음을 인정한다면 현재의 삶이 훨씬 더 진지하고 긍정적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릴 때의 내가 다르고 자랄 때 내가 다르고 나이 들어서 내가 다르듯이 성장함에 따라서 내 모습이 변해간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통일체이지만 다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즉 변화의 기본적인 속성은 다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6근과 6경에서 보았듯이 무상의 기본적인 속성은 변화이다. 이것이 부딪칠 때 6식이 생기고 이 식을 의지가 판단하고 생각을 한다. '식' 의 기본적인 속성이 바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주어진 모든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식인 것이다.

삼사 화합– 6근 · 6경 · 6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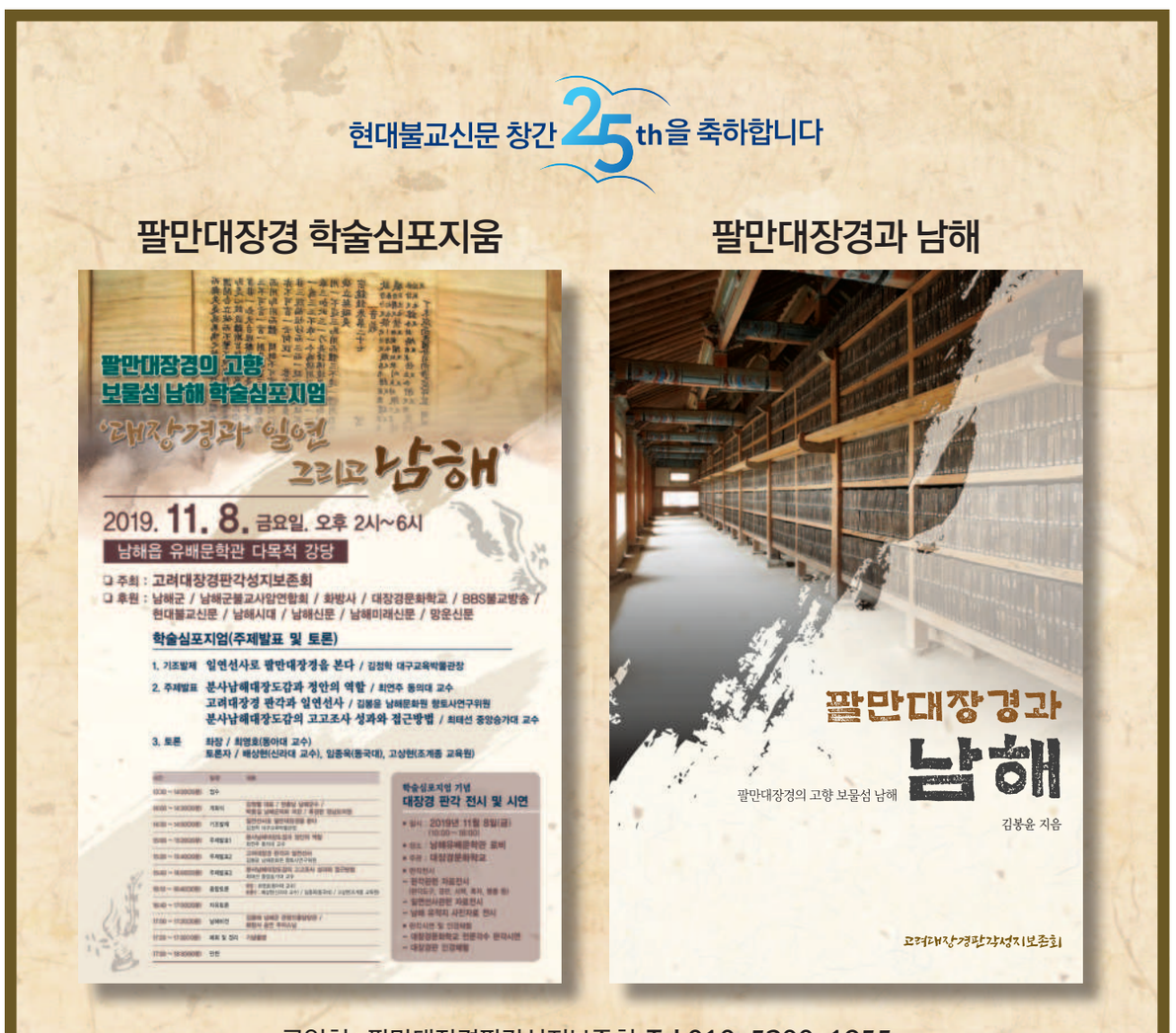
6식을 바탕으로 한 시간연기는 연하여 일어나므로 6식은 6촉으로 연하여 일어난다. 촉은 일반적으로 시간연기에서 설명한 탐진치로 인하여 생기게 된다. 이제 다르게 인식하는 6식까지 왔다. 대상을 인식하면 행동이 따르게 되며, 6근을 통해서 대상을 판단한다. 대상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6식이다. 6식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촉이며, 판단이 끝난 다음에 행동인 촉이 일어난다. 6촉은 눈으로 부딪칠 때, 소리로 부딪칠 때, 냄새로 부딪칠 때 맛으로 부딪칠 때, 몸으로 부딪칠 때, 뜻으로 부딪치는 것이다. 6촉에서 충돌, 부딪침, 접촉 등을 만들어낸다. 촉을 보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촉에는 안과 색이 연하여 안식이 발생하고 또 안과 색과 식의 화합으로 촉이 된다. 이 삼사 화합이 이루어져 촉이 되는 것이다.

촉은 산스크리트어로 말하면 '스파사' , 즉 충돌이다. 6근 · 6경 · 6식이 결합하여 부딪쳐 촉이 이루어진다. A에서 B로 변했을 때 변하기 전 A가 나 자신인가? 변하고 난 후의 B가 나인가? 충돌이 일어나기 전의 나를 나로 인식할 것인지 충돌이 일어난 후 나를 나로 인식할 것인지 여기서 갈등이 일어난다. 갈등하는 기본의 바탕은 충돌 때문이다. 근본적인 의식의 저변에는 분명히 충돌이 일어나기 전을 나라고 했는데, 이 충돌이 일어난 후의 나를 나라고 할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촉에서 변화를 바탕으로 갈등이 생긴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충돌하기 전과 충돌하고 난 후의 가장 극한 상황은 죽음을 생각할 수 있다. 바로 충돌 전의 나는 분명히 살아있었는데 충돌 후의 나는 죽었는 것이다. 죽음 전의 상황과 죽음 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많은 상황 중에 가장 극한 상황은 죽음으로 인한 충돌 전후인 것이다.

〈영남대 의대 교수〉





습관, 인생을 바꾼다



新 불교사자성어

㊱ 적습성성(積習成性)

적습성성(積習成性)이란 습관적인 행동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본성이 된다는 뜻이다. 〈대지도론〉에 있는 사자성어로,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오래되면 그 습관은 곧 그 사람의 본성, 성품이 되어 버린다(積習成性)' 는 말이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는 말과 같이 인간은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 친구 관계 등 교육과 생활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사회적 범죄를 일삼는 악인이 선인이 될 수도 있다. 역사적 사실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 가 그런 것이고, 향 싼 종이에서는 향기가 나고, 생선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 고기 냄새가 난다는 말이 그런 말이다. 그만큼 습관이나 버릇은 중요하다.

그런데 습관이나 버릇이 천만다행으로 선(善), 겸양, 겸손, 정직, 근면, 독서 등 인간 형성에 매우 바람직한 것들이라면 훌륭한 인품이나 인격을 이루게 하지만, 만일 그것이 바람, 게으름, 거짓말, 절도, 사치, 알코올 중독, 척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한 인생을 망치게 하는 치명적인 습관이 된다. 마치 악취가 한번 집안에 배게 되면 절대 빠지지 않는 것처럼, 나쁜 습관이 한번 몸과 가슴(마음)에 박히면 이생에서의 인생은 대략 거기서 멈추게 된다.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이며 유명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즈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하였다.

어떤 생각이나 습관이 5년에서 10년 정도 지속하게 되면 그 생각이나 습관은 곧 그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을 형성하고 성품은 곧 한 인간의 인품이나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 습관과 생각이 일상만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와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인데, 특히 인격은 하루 이틀 사이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더욱더 60세 이후의 고상한 인품이나 인격은 그 사람의 삶을 말해주기도 한다. 그러니 좋은 생각과 습관을 익혀야 하는 것이다. 흔히 '성질이 더럽다' 고 말하는데, 그 역시 평소의 생각과 습관이 만든 결과가 아닐까?

노자는 "생각이 쌓이면 말로 표출하게 되고, 말로 표출하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행동이 쌓이면 습관을 이루고, 습관이 쌓이면 성품을 이루고, 성품이 쌓이면 한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다(積思成言, 積言成行, 積行成習, 積習成性, 積性成命)."고 하였다. 즉 생각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나 습성은 성품을 만들고, 그리고 그 성품은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습관은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데, 나쁜 습관이 몸에 배게 되면 쉽게 고치기 어렵다. 그래서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 한다. 습관은 곧 언행으로 나타내게 되고, 언행은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한다.

〈대지도론〉에는 "날마다 성질(화, 분노심)을 내서 오래도록 지속하게 되면 나쁜 성품(惡性)을 이루게 된다."라고 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성품만이 아니다. 불교에서 제거 대상 1호로 삼고 있는 탐진치 등 욕망과 번뇌 망상도 스스로 억제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면 욕망과 번뇌에 사로잡힌 허무한 인생이 되어 버린다. 그것을 흔히 '노예' 라고 하는데, 자진해서 노예가 되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요즘엔 청소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워낙 폭력, 음주, 흡연, 매춘, 도박, 마약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아차 하면 악으로 빠지기 쉬운 환경이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물들어 버린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갑자기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다. 악은 반사회적 행위로 자신은 물론 사회 전체를 망가뜨린다.

사람은 대체로 타고난 성품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따지고 보면 타고난 성품이나 천성이라기보다는 후천적인 영향이 더 크다. 성장과정에서 가정의 문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당사자도 훌륭한 인격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치겠다는 생각이 없거나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고쳐야할 사항이나 경구(警句)을 메모하여 책상이나 거실, 방, 화장실 등 생활공간 곳곳에 써서 붙인다. 눈뜨면 보이고 보이면 자각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쯤 지나면 어느새 고쳐진다. 적습성성(積習成性). 원위치로 돌아가면 또다시 메모하여 반복한다. 이렇게 하면 고쳐지지 않는 것이 없다. 좋은 습관이나 언행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바람 없는데 물결 일어난 곳은?



격절록 강설

㊱ 조수한국 3

[評唱 3]

只如 棗樹問僧 "近離甚處" 僧云 "漢國" 樹云 "漢國天子還重佛法也無" 僧云 "苦哉 賴值問著某甲 若問著別人即禍生也" 樹云 "作什麼" 僧云 "人尚不見有 何佛法可重" 樹云 "闍黎受戒來多少時" 僧云 "二十夏" 樹云 "大好不見有人" 便打. 所以雪竇拈云 "這僧棒雖喫了 要且去不再來" 雖然打了 這僧却不瞥地 當時莫傷鋒犯手. 他若省去 無你撼動處. 古人有三度喫六十棒者. 且道 他意作麼生.

그건 그렇고(앞에서 운문과 북선이 말한 것은 그렇다 치고), 조수가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스님이 말했다.

"한나라에서 왔습니다."

조수가 말했다.

"한나라 천자는 불법을 중하게 여기는가?"

스님이 말했다.

"(말하기가) 괴롭습니다. 다행히도 제게 물으시는군요. 다른 사람에게 물었다면 바로 화를 입으셨을 것입니다."

조수가 말했다.

"어떻게 하는데?"

"스님이 말했다.

"사람이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불법을 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조수가 말했다.

"스님! 계 받은 지 얼마나 됐지?"

스님이 말했다

"20년 되었습니다."

조수가 말했다.

"대단하구나! 사람이 있는 것도 보지 못하다니!"

그리고는 바로 쳤다.

그래서 설두가 염拈하기를 "이 스님이 비록 방망이는 맞았지만 내쫓아서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던 것이다. 설사 쳤어도 이 스님에게는 갑작스런 것도 아니었을 것이니, 당시에 칼끝도 상하지 않고 손도 다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만약 알아챘다면(省) 그대들 마음을 흔들지 못했을 것이다.

고인에게는 세 번에 걸쳐 60방을 치는 방망이가 있다. 자, 말해보라! 그 뜻이 무엇인가?

雪竇云 "這僧恁麼喚 也喚不迴頭來" 且道 他意作麼生. 棗樹令雖行 且道作麼生是無風起浪處. 具眼衲僧 試去辯別看.

설두가 말하기를 "이 스님은 이렇게 불러도 머리도 돌리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자, 말해보라! 그 뜻이 무엇인가? 조수가 비록 법령을 행했지만, 어떤 것이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일어난 곳(無風起浪處)인가?

안목을 갖춘 납승(具眼衲僧)은 시험삼아 변별해 보라.

---

*무풍기랑(無風起浪): (성어) 평지풍파를 일으키다. 생트집을 잡다. 공연히 시비를 걸다. 까닭 없이 사고가 일어나다.(중국어사전)

*구안납승(具眼衲僧): 원만 숙달하게 수행을 이루어 사물의 도리를 철저하게 볼 수 있는 선승을 가리킨다(具眼衲僧 即指修行達於圓熟 而能徹見事物道理之禪僧, 불광대사전)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㊱ 이해의 길 16

붓다의 마지막 가르침

붓다는 삶과 죽음에 대한 실존적 고뇌를 느끼고 29세에 출가하여 6년간의 처절한 고행 끝에 깨침을 이루었다. 중생 싯다르타가 깨친 사람, 즉 붓다가 되는 역사적 순간이다. 이는 불교의 처음이자 끝이라 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붓다란 깨친 사람(覺者)을 의미하는데, 불교는 깨친 붓다(佛)의 가르침(敎)이기 때문이다. 이후 그의 삶은 진리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해 나누는 실천으로 이어진다. 열반에 들기까지 45년 동안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이 깨친 진리를 전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기, 3법인, 4성제, 8정도는 전체 가르침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에 대한 평가를 마지막 모습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갈 때 보자.' 는 말을 하곤 한다. '잘 가신 분' 이란 의미의 선서(善逝)가 붓다의 명호 가운데 하나인 것도 이를 보여준다 할 것이다. 어쩌면 죽는 순간은 한 사람의 전체 삶이 압축된 시간일지도 모르겠다. 예수나 공자, 소크라테스 등이 모두 그랬다. 그렇다면 붓다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을까?

붓다는 80세에 이르러 죽음을 예감한다. 그는 몸을 겨우 가눈 채 병든 몸을 이끌고 쿠시나가라 교외에 있는 말라(Mala)족 땅에 이르렀다. 그리고 사라쌍수 아래에서 머리를 북쪽으로 향한 채 자리를 펴고 누웠다. 그는 제자들을 향해 마치 벗이 벗에게 말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라고 말한다. 질문이 없자 스승은 널리 알려진 마지막 가르침을 이렇게 전한다.

"너희들은 저마다 자신을 등불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또한 진리를 등불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덧없으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가르침을 마지막으로 붓다는 열반에 들었다. 아주 평온한 모습이었다. 그때 사라쌍수 에서는 때 아닌 꽃비가 내렸고 하늘에서는 미묘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담담한 표정으로 스승 붓다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제자들도 있었고 슬픔을 참지 못해 목 놓아 흐느끼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뿐만 아니라 사슴이나 토끼, 지렁이 등도 함께 슬퍼했다고 전한다. 깨친 이는 평화롭게 진리의 세계로 떠났지만, 그렇지 못한 중생들에게 이별의 고통은 쉬이 감당키 어려운 일이다.

붓다는 떠나는 마지막까지 자신과 진리를 등불 삼아 정진하라고 당부하였다. 흔히 '자등명법등명(自燈明法燈明)' 으로 알려진 마지막 가르침을 통해 불교의 지향점이 어디인지 알 수가 있다. 물론 불교는 붓다의 가르침이지만, 이를 통해 각자 스스로 깨침에 이르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이런 점에서 불교의 모든 경전은 깨침을 향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붓다가 마지막까지 자신과 진리를 등불 삼으라고 한 이유가 분명해진다. 불교의 본질인 깨침은 자신과 진리에 의지해서 정진할 때 비로소 맛볼 수 있는 종교적 체험이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은 모두 진리를 깨칠 수 있는 바탕, 붓다의 성품(佛性)을 본래 갖추고 있다는 것이 불교적 시각이다. 많은 선사들이 부처를 '절대 밖에서 구하지 말라(切莫外求)' 고 강조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붓다의 명호 중에 '여래(如來)' 란 말이 있다. 진리(如)의 세계에서 오셨다(來)는 뜻이다. 그런데 이 말은 본래 여래여거(如來如去)의 줄임말이다. 글자 그대로 진리의 세계에서 오셨다가 진리의 세계로 가신 분이라는 뜻이다. 붓다는 35세에 큰 깨침을 이루고 진리의 세계로 갔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중생들의 세계로 오신(如來) 분이다.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다. 진리라는 정신문화를 바라문들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중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그의 역사적 소명이었기 때문이다. 그 본분을 모두 마치고 다시 진리의 세계로 가신 것이다.

이제 붓다의 DNA를 물려받은 자식(佛子)으로서 우리의 할 일만 남았다. 그것이 무엇일까?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38년 전통 전국 최초 최고 명품교육

부산불교교육대학

2019년 겨울학기(4개월)

핵심기초교리반(주간) 개강

개강일 : 11월 4일(월) 오후1시~오후3시

수강료 : 4개월 총 15만원

현대불교신문 창간 2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학장 평천 범혜 합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홍 / 총동창회 회장 권혁란
신도회 회장 전재근 / 포교봉사단 단장 김영철
불교문화포교사회 회장 김소양 / 환희지합창단 단장 유순금
수화봉사단 단장 조경미 / 사물놀이단 단장 허애명
불교대학원회 회장 문종균 / 불교학과 회장 조규보
교리학과 회장 강성화 / 불교문화학과 회장 조성래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빌딩 5층(서면 롯데백화점 건너편) Tel.051 711-0700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창간 25th을 축하합니다

홍법사 행복드림센터 (라이프 가든)

2019년 9월 홍법사 행복드림센터에서

화장실에서 홀로 출산한 산모의 다급한 전화.. - 경북 ○○ -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자신의 딸이 홀로 9개월간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부산 ○○ -
출산 3일째 된 20세 산모와 아기를 도와달라는 이웃 주민의 전화.. - 경남 ○○ -

진정한 방생의 의미와 실천은 무엇일까요?

아직 우리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새로운 생명과
아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외롭게 세상과 소통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국민행복실천 운동본부는 홍법사와 함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바른 뜻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담 및 후원 문의

홈페이지: www. happywave.or.kr | 전화: 051) 664-7300 | 이메일: happiness2121@hanmail.net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KNN타워 8층 (사)국민행복실천 운동본부

“베트남불자 신행, 한국서 원만하길”

태고종 전북종무원–참좋은우리절 합동법회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과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은 10월 6일 베트남 닥락성 보명사 주지 팃치민 스님을 초청해 한국과 베트남 합동 관정수기 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번역된 108참회 기도염송으로 시작된 합동 관정수기 대법회는 진성 스님과 회일 스님, 군산불교사암연합회장 도연 스님, 태고종 전북종회의장 법전 스님, 부원장 도홍 스님 등 스님들과 한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베트남 스님, 한국과 베트남 불자 4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관정수기 법회는 한국과 베트남 스님들이 각각 상대방 국가의 불자들의 이마에 감로수를 뿌리며 성불을 기원했다.

회일 스님은 “그동안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오늘 법회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이 더욱 가까워지고 서로 돕는 사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팃치민 스님은 “성대한 법회를 마련해준 진성 스님과 회일 스님께 감사드리며 베트남 불자들도 열심히 수행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성 스님은 “우리 모두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율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과 참좋은우리절은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등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시생 합격 묵묵히 도운 천불정사

올해 행정고시 합격생 2명, 감사 인사 전해

부산 인재불사도량인 천불정사에 행정고시 합격자가 방문했다. 지원을 아끼지 않은 스님과 신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다.

천불정사(주지 고담)는 10월 5일 경내에서 행정고시 합격자를 위한 축하연을 개최했다. 천불정사는 부산대에서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신목 고담정에 특별 후원해왔다. 신목 고담정은 사회과학대 내 5급 국가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습공간 신목정으로 활용됐으나 고담 스님이 2006년 기숙사와 학습공간을 제공하면서 신목 고담정으로 변경됐다.

올해에는 이영민(29 · 무역학과) 학생과 이형경(31 · 사회복지학과) 학생이 시험에 합격했다. 이들은 “도움을 주신 스님과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고담 스님은 “종교와 상관없이 공부에 매진하는 사람을 위해 후원하는 기쁨이 크다. 합격한 학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공부하는 학생들은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불정사는 현재 고시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무료 기숙사를 운영 중이다. 현재 5명은 사찰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사찰 앞에 위치한 단독 주택에는 12명이 무료로 거주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창원불교, 제29회 山海原 후보자 공모

11월 8일 공모 마감 ‘10년 이상 전문 활동경력자’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월도)는 오는 11월 8일까지 제29회 (향기로운)산해원문화상 후보를 공모한다. 시상 부문은 문학상, 예술상, 언론상, 행원상(지역개발)이다. 후보자 자격은 경남도내에 거주하고 해당 분야 10년 이상의 전문 활동경력을 가진 문화예술인, 언론인, 사회봉사자 등이다.

산해원(山海原)문화상은 불교와 향토문화 창달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예술 · 언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창원지역불교계가 지난 1991년 제정했다. 산해원 명칭은 통합 창원시 이전의 마산, 진해, 창원의 끝 자를 합친 것이다. 수상자에게는 창작지원금 5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시상식은 12월 9일 오후 6시 30분 창원풀만호텔 2층 대연회장에서 열린다. (055)222-1393 성낙두 경남지사장

신라 대국통 자장율사 지계 잇다

통도사, 개산 1374년 영고재 및 법요식 봉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영축총림 통도사가 개산 1374년을 맞아 산문을 연 신라 대국통 자장율사의 지계 정신을 되새기며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통도사는 아울러 영축문화축제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전통불교문화의 향연을 개최했다.

통도사(주지 현문)는 10월 7일 해장보각에서 영고재를 봉행했다. 영고재는 개산조 자장율사의 창건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올리는 재이며, 해장보각에는 자장율사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영산재에서 방장 성파 스님과 주지 현문 스님은 향과 차를 올렸고, 대중스님들과 불자 1000여 명이 우중에도 자리를 지키며 자장율사의 수행정신을 기렸다.

통도사는 이어 설법전에서 개산대재 법요식을 진행했다. 개산대재에는 김일권 양산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해 통도사의 창건을 축하했다. 특히 통도사는 매년 개산법요식에서 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해 더욱 정진할 것을 당부해왔다. 올해는 해외유학생 1명, 박사 7명, 석사 11명, 학사 17명, 율원 · 학림 · 승가대학원 20명, 강원 4명 등 60명에게 총 5410만원을 장학금으로 수여했다.

행사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대중스님들의 사진전 ‘나도 작가다’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양산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주창돈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외 3명에게 공로패가 주어졌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이 법회는 해동 화엄의 초조이시며 신라 대국통이신 자장율사의 높은 뜻을 기리고 찬탄하기 위해 봉행한다”며 “통도사는 국지대찰 불지종가로서 청정지계의 빛나는 수행가풍을 이어왔다. 이를 바탕으로 정신적 귀의처가 되고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이름에 그 빛을 더해가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雨中 1000여 사부대중 운집해
자장율사 수행정신 깊이 기려
스님들 장학금 5410만원 수여
각종 부대행사 축제의 장 마련

통도사는 법요식에 앞서 영축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7일에는 통도사를 빛으로 장엄하는 ‘LIGHT UP 축제’가 시작됐다. 야간 조명 축제 ‘LIGHT UP’을 위해 통도사 진입로인 무풍환송로부터 성보박물관까지 1.5㎞ 구간에 LED 조명 1080개가 설치됐다. ‘LIGHT UP 축제’는 20일까지 이어진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개산 1374년을 맞아 영고재와 법요식을 개최하고 개산조 자장율사의 정신을 되새겼다. 사진은 방장 성파 스님이 향을 올리는 모습.

이외에도 대중스님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나도 작가다’ 사진전과 4인 4색 특별도자기전도 명월료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국화장엄과 괘불조성체험, 월저 선생 기증 유물전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됐다.

한편, 통도사는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BC) 사업단과 10월 11일 통도사 종무소에서 협약식을 거행했다. 앞으로 통도사와 사업단은 사찰역사 자료 수집, 정리와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통도사는 “이번 협약은 통도사 사지 자료 조사, 촬영, 번역, 역주 사업을 위한 것이다. 통도사의 문화유산을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 신자나 대중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통도사 영축문화연구원의 첫 사업활동”이라고 밝혔다.

통도사의 사지 관련 자료는 약 300종 정도로 추정되며 1600년대부터 근현대 자료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통도사는 “통도사의 기록문화유산은 오랜 역사와 비중만큼이나 다양하고 방대해 조사와 활용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불교기록문화의 발굴과 활용에 능통한 다수의 전문가가 있는 사업단에서 통도사의 기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현대화하는 데 앞장서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에 담아낸 빛고을 불교문화

광주불교연합회 사진기획단
3년간 성과 전시, 대중 공개

광주지역 불교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첫 사진 전시회가 열렸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동현)는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우영갤러리에서 ‘제1회 광주불교문화 사진전시회’를 열고, 지역의 다양한 불교문화를 사진으로 담은 작품을 대중에 선보였다. 연합회 사진문화기획단(단장 무등)이 주관한 전시회는 사찰 문화재, 전경, 스님 인물, 보도사진 등 지역의 다양한 불교 구성요소를 담은 총 40여 점의 작품이 전시돼 큰 호응을 얻었다.

7일 기념식은 광주불교연합회장 동현 스님, 도계 스님(소원정사 주지), 단장 무등 스님을 비롯해 100여 명의 사부대중과 선종백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지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10월 7일 우영갤러리에서 열린 광주불교연합회 사진문화기획단의 제1회 광주불교문화 사진전시회 기념식.

동현 스님은 봉행사에서 “오늘날 역사를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사진이고, 사진에 투영된 산사의 모습은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며 “사진은 단순히 현상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부처님의 가르침과 우리의 삶을 기록하는 좋은 도구”라고 사진의 중요성과 작가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광주불교연합회 사진문화기획단은 ‘내 사찰은 내가 기록한다’는 의미를 담아 각 사찰과 불교단체에서 광주불교를 기록할 사진활동가를 양성해왔다. 2015년 11월 사진문화기획단 발족 이후 2016년 4월부터 이론 강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펼쳤다. 윤혜숙 사진작가의 지도 아래 지난 3년간 매월 정기 출사와 특별촬영을 통해 작품 활동과 지역 불교문화를 사진에 담아 이날 첫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다.

기념식에서 윤혜숙 작가는 봉행사에 이어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전시회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활동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불교문화도 더욱 창달하는 토대가 되길 기원한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참여한 많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생애 첫 합동 전시회를 경험한 김광수(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불자는 “막상 우리들 전시회를 갖는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윤혜숙 작가와 회원들이 힘을 다해 준비하면서 자긍심과 보람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9빛고을관등회의 행사로 진행된 광주불교문화 사진전시회는 앞으로 매년 개최할 계획이며, 참여한 활동가들은 소속된 각 사찰과 단체에서도 촬영을 진행해 불교문화 포교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25th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 원당암
“혜암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도량”
사부대중일동
〈법회안내〉
■철 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새벽 3시
■7일 철야 용맹정진 ·음력 7월 1일~8일 / 음력 12월 1일~8일
■재가불자 참선결제 ·동안거 결제 음. 10월 15일~1월 15일
·산 철결제 음. 2월 15일~3월 29일
·하안거 결제 음. 4월 15일~7월 15일
·산 철 결제 음. 8월 15일~9월 30일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치인리) http://www.wondangam.org
전화 055)932-7308 / 전송 055)931-7515 (상담시간 : 오전 8시~오후 6시)

현대불교신문 창간 25th을 축하합니다
(사) 대한불교조동종
종 정 심월
부종정 원봉
부종정 달제
사부대중일동
승정원장 보경
총무원장 대은
종회의장 해권
교육원장 법성
포교원장 혜천
호법원장 혜산
문화원장 송담
전국비구니회 회장 도선
총무부장 지원
교무부장 월광
재무부장 소원
사회부장 지현
문화부장 다운
교무국장 운산
사회국장 백광
재무국장 묘덕
총무원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145길 103 (상계동, 도선사) TEL 02)2091-0408



창건 120주년 맞은 광법사

10월 6일 산신제 · 산사음악회

군산 광법사(주지 명각)는 10월 6일 창건 120주년을 맞아 산신제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산신기도 후 열린 산사음악회는 차공양 시연을 시작으로 명각 스님의 법고시연, 살풀이, 퓨전 난타공연, 가야금 연주, 색소폰 연주, 초대가수 공연 등이 진행됐다.

광법사 주지 명각 스님은 "광법사는 울창한 숲속에 자리 잡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힐링 장소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며 "창건 120주년을 맞아 대중에게 회향하는 의미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법사는 창건주인 송암 스님이 과거 수행정진하던 중 호랑이가 쌀을 씻는 스님을 위해 불을 밝혀줬다는 설화가 전해지는 호암바위가 있는 도량이다. 매년 봄 · 가을이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인근 학교의 소풍장소로도 잘 알려져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난치병 어린이에 통 큰 기부

배우 수지, 생명나눔에 1억 원



가수 겸 배우 수지<사진>가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 남몰래 1억 원을 기부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수지는 10월 10일 자신의 26번째 생일을 맞아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에 생명존중 확산 운동과 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 수지가 생명나눔과 인연을 맺은 것은 그의 어머니 덕분이다. 어머니의 영향으로 수지 역시 백혈병, 소아암 등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 지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난치병 어린이 지원을 위해 지난 2016년 생명나눔에 1억 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6년 'Let's share the heart' 캠페인을 통해 44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으며, 생명나눔이 연말을 맞아 달동네 백사마을 주민들을 위해 펼치고 있는 '따뜻한 정 나누기' 행사에도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지가 생명나눔에 기부한 금액은 4억 원에 달한다. 생명나눔은 수지가 기부한 1억 원을 백혈병, 소아암 등의 난치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포교성과 얻은 10년 찾아가는 불교 다짐"

Interview

창건 10주년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절에 오지 않는 불자와 비불자에게도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할 방법을 모색하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와 청소년 및 어린이를 위한 포교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서 도심포교의 선두주자로 활동하며 포교 성공을 이룬 대광명사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주지 목종 스님은 10월 10일 기자를 만나 '바른 불법'을 강조하며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하는 것만이 포교의 성공 열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뉴미디어를 활용한 포교 방법이 앞으로의 포교전략에 주를 이룰 것이라며 최근 개설한 유튜브 채널 '불바보TV'의 취지를 설명했다. '불바보'는 '불교를 바로 보자'를 줄인 표현이다.

"10년 전 포교를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처님의 정법입니다. 오직 정법을 전할 때 포교는 자연스레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법을 바르게 알 때 불법으로 삶이 변하고 우리는 진정한 불자가 됩니다. 불자가 절에 오고 불교매체를 통해 공부를

도심포교 성공 모범 사례
시대 변화에 새 시도 나서
유튜브 '불바보TV' 개국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집중적으로 불법을 전해야 할 사람은 비불자들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입니다. 유튜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한 명이라도 제대로 불법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불바보TV'는 목종 스님이 활동했던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위원회' 인연들이 모여 시작하게 됐다.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위원회는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다채로운 활동을 펼쳤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지난해 말 정식 회향했다. 위원회는 사라졌지만 포교 열정은 그대로 간직한 스님들과 재가자 인연들이 모여 지속적으로 포교 방안을 모색했고, 지난 8월 6일 '불바보TV'를 정식 개설했다.

프로그램 진행은 목종 스님을 비롯해 BTN불교TV '울림' 진행자 운성 스님과 재가 실무자들이 동참한다. 목종 스님은 '한통속'과 '활발발'이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통속'은 티베트 밀교, 초기불교, 선불교 등 여러 모습으로 나눠진 불교가 본래 하나이며, 부처님이 전하고자 하는 법도 하나임을 강조한다. '활발발'은 생활 속에서 불교가 살아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보다 나은 신행생활을 조언한다. 이외에도 불바보TV에는 달라이라마의 핵심법문을 전하는 '마음으로 읽는 달라이라마', 불교 의식 및 사찰 용어 등을 설명해주는 '이뭣꼬' 등이 있다.

목종 스님은 앞으로 불교가 가야할 포교방향이 '찾아가는 불교'라고 힘줘 말했다. 더 이상 대중이 절에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인 포교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목종 스님은 대광명사 10주년을 맞아 10월 13일 부산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에서 '가을, 빛의 소리장엄-대광명사 개원 10주년 기념 합창공연'을 개최했다.

"이제 우리는 사찰을 찾아오지 않는 불자들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는 작업을 할 때입니다. 부처님 정법으로 마음을 열고, 모든 이를 품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신라문화로 민족 정체성 회복"

불국사, 신라불교 영산대재
소외이웃에 1000만원 기탁



경주 불국사가 10월 4일 신라문화제 일환으로 신라불교 영산대재와 평화통일 기원대재를 봉행했다.

조계종 제11교구본사 경주 불국사(주지 종우)는 10월 4일 경내 무설전에서 제47회 신라문화제 문화예술행사 일환으로 신라불교 영산대재와 평화통일 기원대재를 봉행했다. 이 행사는 불국사를 창건하고 중흥시킨 역대 조사를 추모하는 자리로, 불국사는 법흥왕과 이차돈 성사, 표훈 · 원효 대성사, 월산 대종사 등을 기렸다.

또한 500여 명의 사부대중은 태풍 피해를 입은 경북 동해안 지역에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기원했다.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은 "찬란한 신라문화와 삼국통일 정신을 이어 한민족 정체성 회복과 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영산재는 불교적 의식이기는 하지만 무명에서 허덕이는 중생들의 눈을 뜨게 하고 선조들의 은공을 생각하면서 그 공덕을 찬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은 주낙영 경주시장에게 소외이웃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전달해 영산재의 의미를 더했다. 성금은 (사)경주외국인센터에 지원될 예정이다.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은 "신라불교 영산대재 행사를 통해 성금을 기탁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웃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후에는 보살계 수계가 진행됐으며, 불국정토 구현의 서원과 모든 중생들의 자유와 편안함의 나날이 되길 발원하는 탑돌이가 이어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지혜 닦는 삶 살아가자"

해인사 원당암, 조상영가 합동천도법회



해인사 원당암은 10월 7일 중양절을 맞아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이 법사로 참석한 가운데 선망 부모 · 조상영가 합동천도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서 원각 스님은 "불자들은 자기 주장, 사상, 철학을 내려놓고 근본 마음자리에서 자성을 깨달아 생사의 도리를 깨쳐 복도 짓고, 지혜를 닦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법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행복 찾아 떠난 법문여행

부산불교지도자포럼, 혜민 스님 초청법회



부산불교지도자포럼(회장 정종원)은 10월 4일 부산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혜민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혜민 스님은 행복에 대한 참 가치와 뜻을 전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행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당부했다. 법회는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정종원 회장, 김수현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승불교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부산 서림사서 현각 스님 철학 강의 등



(사)한국대승불교조계종은 10월 8~9일 부산 서림사에서 승려연수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종단스님 20여 명이 참여해 불교철학에 대한 현각 스님 특강과 혜관 스님의 불교의식 집전, 성군 스님의 참선 이론 및 실습 등의 교육을 수료했다. 현각 스님은 교육에 앞서 "수행자는 지속적으로 자경하고 발심하라"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25th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청계사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11 (청계로 475)
전화 031)426-2348, 2221
전송 031)426-3666



현대불교신문 창간 25th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대광명사

대광명불교대학
해운대백병원 불교법당

주지 목 종

사부대중일동

대광명사 서울분원 지금선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5길 20 서주빌딩 5층
TEL 02)522-7772 FAX 02)522-366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순환로(로데오아울렛 3층)
TEL 051)742-7610 FAX 051)742-7606 www.daekangmung.com

현대불교신문 창간 25th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세계 불교를 앞장서는 한마음선원 청년회

일체의 것에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는 대장부가 되라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대행선사 법어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264호 | A21 | 전면광고

오근(눈, 귀, 코, 혀, 몸)을 제어하여, 그것이 방일해서 오욕(빛, 소리, 냄새, 맛, 촉감)에 들어가지 말게 하라. 마치 소치는 사람이 막대기를 쥐고 단속해서, 소로 하여금 날뛰어 남의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유교경》에서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사찰행사전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사찰건축전문
문화재기능962호
대웅전 한옥별장
요사채 재실
누각 산신각
펜션(육송 나무목재만 사용)
원명 010-4300-9104

허리병 고치는 법 발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책-검색★
①인생최고의 깨달음(참불교)
②천기소설 예언자(현존불)
③기도와 명상(최상수행법)
④천등산(신통해탈기도비법)
⑤출세의 기술(성공출세술)
⑥평생돈벼락 운(運재테크)
위 책이름검색 / 1권 구입해보세요
문의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부 전 스 님
모 십 니 다
010-2078-9595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영통철학
영통철학 1개월 완성 (책임 지도)
• 고승비급 전수 •
동국대 대학원 졸업(석사)
정 광 합장
010-3936-2295

소포장 동지팥죽
11월 30일 마감, 500g 3000원
사암법회용 100개단위 신도님께 법회후 판매도 가능 큰포장은 10L, 상담후 접수
문자접수 010-3410-0004
도평스님 043-744-9997
농협 356-0070-5251-33
동지팥죽 저작권 있습니다.

효보당108사주(모집)
한손으로 가장 쉽고 빠르게 인생을 푼다
- 왜왔는가. 현재의 궁금점과 대안책
- 과거/현재의 사주와 미래의 대안책
- 스님. 무속인. 철학인. 법사 대상
- 특별반/개인 5개월 과정모집(완전 이수됨)
- 출장 및 개인지도 가능

010-2901-8923

결혼신청안내
• 부모님께 효도를
• 꼭 짝을만나 행복을
광복사 결혼상담실
02-306-7988
010-5624-1365

명리·육효강좌
• 초보반 : 3개월 (월10만원)
• 실천반 : 3개월 (월20만원)

영가 찾는 법
• 초보반 : 3개월 (월10만원)
• 실천반 : 3개월 (월20만원)
백암역리원 02)597-1101
(2,4호선 사당역 8,9번 출구)

대주스님의 특수비술기도
☎ 02)963-1148 / 011-741-0867
스님에게만 ? 전수합니다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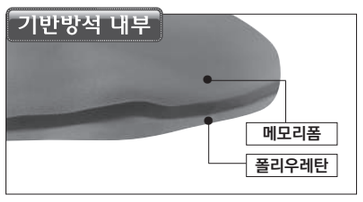
단원 정통 명리학
• 교육 : 수시접수 | 초급, 중급, 연구(격국)반 접수 | 1년 과정 수강료 : 360만원
• 단원 정통 명리학 : 실증철학 정규과정 수강생 접수 단원역리학협회 법인 자격증 제도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 학문
지현명리연구원 : 역학전문교육처 志晛 : 韓 基子(恩炅)
명리학 / 작명학 / 육효학 / 간지체성론과 육십갑자론(특허)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명륜4가 54-1 3층 웹사이트 cafe.daum.net/3332han cafe.naver.com/3332han
단원역리학협회 010-4470-6314

평행수기법(계곡수 치유)
계곡수(물)로 병든 몸을 치유하는법
❶ 만성피로 면역력이 떨어진 분, 고도비만인 분
❷ 면역력이 떨어져 항암치료를 받지못하는 분
❸ 수족마비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분
❹ 조용한 산사에서 기도 및 휴양이 하고픈 불자
❺ 평행수시 동호인 들은 공덕사로 오시면 안전하게 평행수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 경산시 하양읍 환성로 205 공덕사
010-3549-2270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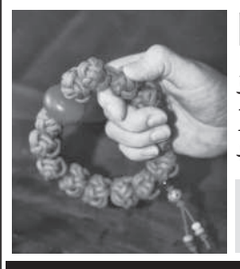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TEL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사찰화재 보험
• 목조건축물 OK!! •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종단기관지 양도
종단 기관지
(신문·잡지)
양도합니다.
010-5412-8040



매듭으로 뭘 만들까요?
모던하고 멋있는 장신구는 물론, 108염주, 인테리어 소품, 단주, 묵주도 만듭니다.
◈ 매듭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드립니다. ◈
지도 성낙윤 010-5285-8431

수강생 모집
사주 추명설 알기쉽게 단시일 지도함
• 길흉직업 • 궁합선택
• 영가천도 • 작명상담
010-9323-5693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이상 / 울산
010-3034-2113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2004-8216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염불 스트레스! 쌓이면 질병!

염불소리 구경법!
염불소리구경 신청이 와도 귀 사찰지역에 몇개가 모여야만 가며, 단! 소리구경값은 언젠가 다시 이어질 좋은 인연으로 만족합니다.

염불소리 비교방법!
비교방법은 본사의 초간단 견본으로 법당에서 스님 자신이 양쪽 시설의 마이크로 소리를 비교시 엄청난 소리의 차이속에 내 귀에 내 염불소리가 지극히 편안하게 들려올때 견본 그대로의 시설 신청만이 수 천번 반복으로 쌓이는 염불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원스톱 시스템이란?!
본사를 낙원상가에서 경남으로 옮긴 후 수없는 법당현장에서 서투른 시설 때문에 땜질보수로 스트레스 받는 스님들을 보며, 프로에게 맡겨 한 번에 최고의 시설만이 해결법이며, 오히려 큰 절약이라는 뜻입니다.

▣ 사찰 전체음향 시설비는 일백구십만원~삼백구십만원
▣ 무상A/S기간 7년, 할부가능

▣ 앰프1, 스피커 4개, LG오디오 1개, USB, 무선마이크 종류별로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완벽시설까지 390만원이면 명산대찰 억대의 시설보다 염불소리 하나만은 확실히 월등함.
※ 각종 마이크, 방송장비 및 방생용 구경!

방송시설 전문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Projector EPSON
MASS Concert MICROPHONES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HITEC 하이텍 미디어 대표 박공희

제103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義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나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강일 : 10월 첫째주 월요일
◆ 강의일시 : 매주(월)오후 1시 ~ 4시 30분
◆ 담임교수 : 기봉스님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무형문화재 50호 전수조교)

102기 강의중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6시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선동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義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02)741-0495~6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264호 | A22 | 전면광고

욕심과 번뇌를 여읜 이는
부처님과 다를 바가 없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제법집요경》에서

삼보사찰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8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인천
◎ 대지 : 101평
◎ 법당 : 34평
◎ 요사 : 34평
◎ 가액 : 12억

◎ 위치 : 부산
◎ 대지 : 196평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6억 8천

❖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절대 비밀보장 ●
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포교원양도

- 위치 : 서초구 양재동 5층 중 3층. 약 40여평
- 월세 : 1백 3십만원(근처 시세 10평 미만 원룸도 6-70만원)
- 내용 : 10년 이상 운영. 건강때문에 양도
- 조건 : 명리 및 작명. 건강 관리 등에 능력있는 분에게는 시설비 및 보증금 없음 ● 최상의 위치와 조건

02-571-9197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백병길 171)
- 총 5,830평. 대웅전 1동. 요사채 및 종무소 1동. 극락전 1동
- 특징 : 백병산 중턱의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기도사찰. 교통편리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장기 임대 가능
- 가액 : 현장답사 후 협의결정

주인직접 010-4225-0012(주,야)
02-403-3333 / 031-772-1251

광진불사

◎ 위치 : 경기도 시내
◎ 대지 : 6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매가 : 6억5천

◎ 위치 : 서울신도시
◎ 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매가 : 14억 5천만원 정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 신행상담, 사찰순례,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광진불사 010-4586-4525

포교원 전세 안내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루원시티(인천전철2호선 5분거리, 서울7호선 연말개통)교통편리
- 주변재래시장 인근 유동인구 최다, 20년 운영중인 포교원
- 3층건물 : 반지하 1층 요사채(방2개, 공양간, 야외화장실) 2층 주지실, 상담실겸 서재, 거실 3층 법당, 제반시설 완벽하고 (삼존불, 신중탱화, 칠성, 산신, 소불, 인등)
- 주차장 및 도시가스 시설 완벽, 몸만 오세요
- 전세 사신 후 저렴하게 양도가능, 투자가치 확실
- 전세보증금 : 2억(절충가능)

문의전화 010-5002-7392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가능)

010-5421-1536

절터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구성면 용호리 835번지 / 836번지
- 836번지 : 약 300평, 835번지 : 임야 약 130평, 총 430평
- 암자 지어서 수행 하실 분(깨끗한 약수샘물 나옴)
- 사정 상 급양도 3700만원

010-6431-0408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찰안내

- 위치 : 창원역 15분. 마금산 온천 5분 거리. 신도시 개발지 인접 ● 대웅전(단청완료). 삼성각. 주지상담실(황토방). 요사채. 공양간. 대형 저온창고 대형창고 2개. 차고. 주차장 500평 ● 총면적 : 6,200평
- 사찰 총 불사비용 35억 투자함 ● 가액 : 16억(대출금 5억 포함) ● 계약 시 5억 주시면 등기부등본 넘겨줌. 나머지 6억은 10년간 연차적으로 불사금으로 완납 가능
- 신도시 개발로 4차선 공사 착공. 사찰연결

010-9647-0723

서울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암사역 1번 출구 도보 1분 거리
- 37평. 2층 법당. 종무소. 방1. 공양간. 차실. 남여 화장실. 주차타워
- 보증금 3000 / 월 80만원
- 시설투자 : 5000 중 1700만원(협의가능)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010-3061-4402

사찰 및 수목장 부지안내

- 위치 : 경주시 양남면 상계리 산70번지 / 마우나 리조트 부근 울산, 포항에서 25분 거리임
- 용도 : 사찰 및 수목장으로 최적지임
- 토지 : 2만7천평임 / 현.지목은 대지 및 임야 주차장이며 임야는 70% 부지 조성되어 있음
- 건물 : 800평(6층/현재 연수원으로 사용하며 깨끗함)
- 특징 : 정남향. 전면하천. 청수폭포. 인근 민가 없음
- 양도가는 현장 답사후 결정함(양도. 임대협의)

010-3877-6899

전국사찰안내

- 사찰 / 사찰터 / 암자 / 포교당 수익성 부동산 거래하실 분
- [30년] 전문 경험으로 연결하겠습니다.
- 망설이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주십시오.
- 보물불감(작은 법당. 3존불 조각) 30년전 천만원 매입. 개인사정 급하여 파격으로 거래(상담환영). 원통지름 12㎝×높이 25㎝

불자공인중개 공신공인중개사

010-3382-0555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북 포항 오천
- 2층 상가 60평. 거주가능
- 삼존불. 탱화. 시설완비
- 다량 주차가능.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천 / 월세 2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2857-2811

전원주택/사찰

- 위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지방도로변
- 거창읍에서 6분 거리. 정남향 집 뒤 북쪽 소나무산
- 총 1200평 중 대지 329평 전 489평. 기타토지
- 주택건물 35평(황토방1) 창고 57평(황토방1)
- 암반우물1. 자연수물1. 소나무 정원
- 가액 : 3억 8000만원

010-3848-2452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 종무소. 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 1층 화장실(해우소) / 2층 공양간 / 3층 법당(큰법당)

011-9394-8511

포교원(급)안내

- 위치: 서울 강북 수유역 5분(주변 재래시장)
- 64평(층전체). 도심 포교 최고입지(재기도 많음)
- 3000만원/월150만(주변 시세보다 저렴)
- 시설비 4천 9백 소요(급 지방 이전으로 먼저 계약 하신 분께 5백만에 무조건 양도)
- 도봉산, 삼각산 조망권 최고
- 주차 및 시설 완벽. 직접 오셔서 확인하세요.

02-6053-9797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교통요지. 지하철/버스 2분 거리
- 대도로 변 3층 건물 3층. 약 50평
- 옥상 사용 가능. 주변 주차시설 양호
- 보증금 500 / 월 45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10-4514-0384

암자안내

- 위치 : 상주시 일원
- 대지 : 약 오백평
- 법당 약 27평
- 요사채 25평

010-5152-1222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금산 추부면 ● 종교부지 280평. 임야 50평. 총 330평 ● 법당 23평(철재경량골) ● 삼성각 : 30년된 목조기와 7평. 단청 ● 요사채 : 철재스레트 30평 ● 방5개. 거실. 주방. 화장실(실내 1, 실외1) ● 사찰 뒤는 산, 앞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전망좋은 곳
- 가액 : 2억(융장 6천만원)

010-3875-6305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
- 대지 : 360평 ● 사용 가능 부지는 약 500평(하천 부지 포함)
- 법당. 삼성각. 약사여래. 3층 탑. 석탑 요사채 2개. 창고 3개. 주차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3억 8천만원

010-4583-4895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정류장 앞, 옥상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1,900만원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99만원

02-957-0824
010-7409-0490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봉곡동 상가 2층
- 약 80평. 법당 완비
- 보증금 250만원 / 월 40만원
- 시설비 4천만원
- 쑥뜸방 20평, 고정수입 있음
- 철학하시는 분 환영

010-9422-1233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에서 20분 거리
- 사찰 총 500평. 종교부지 350평. 임 150평. 법당 20평(원통 보전). 요사채 3동
- 바다가 바로 앞에 있고 주차장 넓음
- 도량 내 많은 나무와 잔디로 조경
- 스님 타계로 급매
- 가액 : 4억 5천(절충가능)

010-5430-4672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구로4동 남구로역 5번 출구 5분 거리. 시장 2분 거리
- 3층 건물 중 2층 전체
- 법당. 공양간. 상담실. 주지실. 실내 화장실
- 약 35평 단독 계단 사용. 시설 완벽함
- 가액 : 보증금 1천 / 월 1백만원
- 시설 및 집기일체 : 1천2백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413-4268

사찰(급)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만수소방소 건너편)
-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 건물 : 지하1층-창고형,1층-공양간(방3개,화장실), 2층-방3,화장실, 3층-법당,3존불,지장불상,칠성,산신
- 가액 : 3억3천5백(사찰연력:40여년)
- 답사 하실분만 연락요망

010-8360-8259

사찰안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6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사찰안내(포교원)

- 위치 : 경남 양산시 주남동 701-10번지
- 2층주택 : 대지 200m², 1층 100m², 2층 64.26m², 삼존불, 천수천안불
- 가액 2억 1천만원, 도시가스
- 법사님, 보살님, 기도성불 이루지 못한분, 꼭 필요한 인연을 기다립니다. 원효스님이 주석하신 천성산의 명당자리를 내어드립니다.

010-2647-5532
055-364-5532

◑ 입 종 안 내 ◐

〈불교조계종〉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T 02)511-2026~7 | F 02)511-2028

사찰 임대합니다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근처에 있는 사찰
- 대지 700평 : 대웅전. 지장전. 관음전. 산신각. 요사채
- 전세 5천만원 / 월 50만원
- 공양주가 있어야 함

010-3636-6477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 대지 : 355평
- 대웅전. 삼존불. 목불. 목후불탱화. 목조단청12평. 요사채. 방3개. 목조단청19평. 공양간. 방1개. 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상대동 도심속 큰 포교당 운영하실분
- 32평. 3층중 2층
- 삼존불. 신중탱화. 산신당. 침실및 공양간 있음
- 보증금500/월35만원/시설비25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7476-9002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서구 3층건물 2층 약 45평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소불 108불. 방2칸. 공양간. 실내화장실2칸. 냉난방시설완비
- 시장 가깝고 지하철 도보 5분거리
- 보증금 500만원 / 월세35만원
- 시설비1천8백만원. 도량이 참하고 완벽

010-3152-2732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별장같은 토굴

- 위치 : 경북지역 일월산자락 아담한 현대식 목조건물
- 앞마당에 계곡물 흐르고 스님 공부하시는데 아주 좋은 도량
- 대지500평. 농지500평. 건평 30평. 법당은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2억3천(가격 절충 가능)

010-5424-4969

사찰안내

- 위치 : 경기 파주 지역
- 대지 : 90평
- 건평1층. 70평 중 45평. 황토방 편백나무
- 2층 30평. 법당
- 주차편리. 교통편리. 최상시설
- 용도 : 포교. 교육. 사찰. 명상. 쉼터
- 가액 : 4억 7천만원

010-4012-5500

사찰·기도(터)안내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주록리 148-2번지, 북여주IC. 동곤지암IC에서 10분거리 기도터로 좋은 대지.전답(650평)
- 토지 : 2148m²
- 건축물면적 : 135.49m²
- 가액 : 4억5천

010-9506-2549

사찰(급)안내

- 위치: 부산 최고 바다전망
- 부산시내(문화재 사찰)
- 토지 : 임야 대지4,100평
- 건물 : 법당38평, 산신각6평
- 지대방10평
- 요사채 공양간 95평
- 가액23억

010-5346-4138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 대지 365평. 토굴법당 30평 산신각 10평. 스님직무실 5평 요사체 30평. 방2개. 주방
- 창고 그외 부속건물 방 4개
- 전체심야전기 ● 가액 상담후 결정

010-5347-0270
010-8571-9383

사찰안내

- 위치 : 용인터미널 10분거리.버스, 빌라.주택많음.아파트 단지 건설중
- 대지 : 456m2. 138평. 목조 5칸
- 법당3칸.방2개.식당 큰방 1개. 창고
- 인연되면 몸만 와도 됨(비구니 최적도량)
- 지붕 칼라강판 ● 창건연대 40년 이상된 고찰. 생활불편 없음 ● 주변 고속도로 완공예정. 무한 발전 지역 ● 가액 : 4억 2천

010-3565-0087

포교당안내

- 위치: 창원시 마산 합포구
- 3층건물에 2층 60평
- 법당 30평,(방 2개)
- 요사 30평.(주방,거실)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 월세5십만원, 시설비1천만원

010-5114-0703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불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2004-8216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후위기 알리는 '멸종저항' 번지다

런던 불교도, 전 세계 대대적인 시위 동참 '눈길'

박정현 객원기자

27개국 60개 도시서 진행되는 XR운동에 불교도들 직접 나서 정부에 대응책 마련 촉구하며 의도적 교통 방해… 경찰 제지



런던 불교도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정부에 전하고자 XR운동에 동참한 모습.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영국 런던 불교도가 '멸종저항(Extinction Rebellion, XR)' 운동에 동참했다. XR운동은 각국 정부에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급진적 환경운동 단체의 시위다. XR운동 참가자들은 전 세계 주요 도로에서 시체처럼 드러누워 스크럼을 짜는 등 의도적으로 교통을 방해하며 정부에 압력을 가한다.

복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런던의 불교 지도자 및 불자들이 10월 7일(현지시간) XR운동에 동참했다.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27개국 60개 도시에서 진행되는 조직적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것이다. 이른바 'XR불교운동'이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에서 각국 정상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내용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평가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국의 강력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전 세계 생태계가 전례 없는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최근 UN의 과학 보고서 결과에 따라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참가한 불교도들은 "기후변화 위기는 가장 끔찍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구의 대량 멸종 가능성은 우리가 오래 잊어 온 진실을 직면하게 한다. 그 진실은 바로 모든 것은 전부 연결돼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그동안 이 세계를 공유하는 (인간 외) 생명체의 놀라운 은총과 아름다움을 망각했다. 이러한 망상적 상태는 결국 인간에게 치명적 피해를 끼칠 것이며, 우리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참가자 개개인은 종교인으로서 급진적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담보다 인류의 가치를 좇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번 XR불교운동의 주최자 중 한 명인 영국 말버른의 심리치료사이자 불교 지도자인 사탸 로빈(Satya Robin) 작가는 시위 참여 후인 8일 페이스북에 "기독교, 무슬림, 불교도들이 멸종저항을 위해 모였다. 최소 30명의 친구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하지만 나는 우리 중 누가 또 체포될지 동료와 내기를 하며 상황을 즐겼다"며 "내 조카들은 내게 '나무를 구해줘서 기쁘다'며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하루 종일 울었다"고 벅찬 마음을 전했다.

XR불교운동에 함께 행진한 기독교도인 홀리-안나 피터슨도 "웨스트민스터 주변 도로를 폐쇄한 게 극단적 행위처럼 보이겠지만, 우리는 이런 조치가 세계 기후의 급격한 위기를 알리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기후변화의 피해가 우리 땅과 해양에 미치고 있다는 UN의 과학 보고서를 받았다. 또 아프리카부터 호주에서까지 발생하고 있는 가뭄 등 기후위기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했다.

XR운동은 지난해 10월 영국 남부의 소도시 스트라우드에서 생물물리학 박사 게일 브래드브룩과 농부 로저 할람 등이 마을 사람들과 결성한 단체다. 이들은 기후위기를 알리고 각 정부에 유의미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체포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단숨에 전 세계 485개 지부를 둔 국제적 환경단체로 커졌다.

티베트 불교 지도자 달라이라마도 지난달 트위터를 통해 "젊은 세대가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는 것은 꽤 옳은 일"이라며 XR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웃주민 억지고소 이겨낸 美사찰

텍사스 베트남 불교사원, 사생활 침해 재판 승소

재산권 및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기소된 미국의 베트남 불교사찰이 혐의가 없다는 판결로 승소했다. 10월 4일 미국 텍사스주의 지역언론 '헤럴드 제이퉁'은 사찰과 재판과정에 대한 소식을 상세히 보도했다.

텍사스주 뉴브라운 펠스 지구에 소재한 베트남 불교사찰 '다오땀 사원'은 지역의 유일한 불교사찰이다. 사찰은 베트남 이주민들의 신행활동과 현지에 불교문화를 알리는데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 그러나 사찰은 이웃주민으로부터 재산권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지방법원에 기소 당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사찰에서 진행되는 불교의식이 항상 밤늦은 시간까지 진행되면서 사생활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교부지인 사찰에서 허용되지 않는 농업과 일부 상업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으며, 일부 건물을 비롯해 근접 도로 사용에서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이에 사찰 측 변호인은 "원고의 주장은 텍사스주의 종교자유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사찰이 건립되고 지난 4년간 오히려 원고의 재산 가치는 상승했으며, 도로 공유 제한 요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다오땀 사원 인근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은 "문을 열면 사찰이 보이는 곳에 살지만, 단 한 번도 사찰 의례나 불교도들이 방해된 적이 없었다. 의례도 밤 8시를 넘긴 적이 없다"며 다른 이웃이 사찰을 기소했다는 것에 의문을 표했다.

3일 과달루페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사소송에서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다오땀 사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을 담당한 듀윗 피쉘 판사는 "원고의 주장처럼 다오땀 사원이 종교부지 이외의 상업 및 농업 활동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재산권 침해 역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2명의 배심원단도 단 2명을 제외하곤 모두 종교적인 활동의 일환에서의 농업과 상업으로 판단했다.

다오땀 사원 주지인 헝 반 응우엔 스님은 "다시 도량이 평화롭고 차분한 일과로 돌아갔다"며 판결에 기쁨을 표했다. 신도회장인 안당 씨도 "올바른 믿음이 실현되는 느낌이다. 자비와 친절, 정의가 우선할 것이라고 믿었다"며 판결에 감사했다.

조우인 객원기자

달라이라마 "조만간 중국 방문 희망"

인도 언론들 인터뷰서 언급
홍콩시위 우회적 지지 표명


최근 다람살라에서 열린 법회에서 설법하는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는 10월 2일 인도의 '라이브 민트' '뉴스 18' 등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상황이 변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르면 1~2년 안에 중국에 방문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1959년 티베트에서 인도로 망명한 달라이라마는 인도 언론에 "다수의 중국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중국공산당과 당내의 일부 인사들"이라고 말했다. 달라이라마는 "중국 정부 내의 많은 인사들이 지난 70년 이상 티베트에 진행해온 정책들이 비현실적인 것을 알고 있다. 달라이라마라는 직책에 대한 힘을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달라이라마는 2011년 정치적인 모든 권한을 망명정부에 이양하고, 종교적인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같은 해 열린 망명정부와의 공식회담을 마지막으로 어떠한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현재 티베트 망명정부는 롭상 쎙게 수상을 수반으로 두고 있으며, 인도 내엔 약 15만 명의 망명 티베트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달라이라마에 대해 '인도의 명예로운 손님'이라며 정치적인 활동과 발언을 장려하지 않고 있다.

현재 티베트 망명정부와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의 상황에 대해 독립이 아닌 고도의 자치권을 요구하고 있다. 달라이라마는 인터뷰에서 "쓰촨성의 일부와 칭하이성을 포함한 모든 티베트 지역이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티베트의 문화와 언어, 종교가 보장된다면 중국정부와 함께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달라이라마는 "많은 상황이 변하고 있다. 이르면 1~2년 안에 중국을 방문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도 언론들은 달라이라마의 말을 인용해 "최근 티베트인들 사이에서 달라이라마가 다시 라싸를 방문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달라이라마의 요구처럼 고도의 자치권을 가졌던 홍콩에서 최근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 "중국인을 비롯한 모든 일반 시민들은 자유를 원한다. 중국이 만약 정권을 유지하길 바란다면 더 강한 규제와 제한이 아닌 더 많은 자유를 언론과 시민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답했다.

조우인 객원기자

"티베트 불교, 서양학자들이 만든 것"

티베트 현자 삼동 린포체, 더힌두와의 인터뷰서

"'티베트 불교'라는 것은 없다. 불교는 지리학으로 나뉘지 않는다."

티베트 망명정부의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삼동 린포체(Samdhong Rinpoche)가 10월 10일(현지시간) 더힌두(The hindu)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티베트 불교라는 것은 서양학자들이 쓰는 표현"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기독교를 말할 때 '영국 기독교'와 '미국 기독교'를 분리해서 말하는가. 불교 역시 지리에 의해 나뉘지 않는다"며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나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리적으로 불교를 표현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도"라며 "왜냐하면 부처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이다. 불교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인도인"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불교가 "티베트의 완전한 전통"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는 "나란다(Nalanda), 탁실라(Taxila), 보드가야(Bodhgaya), 사르나트(Sarnath)와 같은 교육센터는 불교의 표준 문학을 생산해 냈다"고 설명했다.


티베트 망명정부 국무총리를 역임한 고승 삼동 린포체. 사진출처=더힌두

삼동 린포체는 4대 삼동 린포체 후신으로 인정받아 7세에 출가했다. 12세 때 티베트 라싸 대풍사원에서 경론을 배웠고, 1959년 중국 침공을 받자 달라이라마와 함께 인도로 망명했다. 현존하는 티베트 최고의 고승으로 명망이 높다.

박정현 객원기자

생활 불교 · 실천 불교 · 효행 불교

현대불교신문 창간 25th을 축하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이사장·총무원장 석도선 고 문 석암도 승정원장 석벽봉

승 정 석화담 승 정 석혜암 원로고문 석법령
원로위원 석일우, 석청산, 석우암, 석도명, 석정호, 석법산, 석법광, 석자광

총무원장	석도선	교육원장	석남산	기획원장	석담허	어산장	석도암
법계고시원장	석일두	호법원장	석청강	의전원장	석법도	비구니회장	석경호
총무부원장	석대공	총무부장	석도흥	감찰부장	석성보	조사부장	석성도
수행부장	석보각	사회부장	석자광	사서부장	석성우	조직부장	석성각
종무부장	석법민	문화부장	석성원	포교부장	석보현	연수부장	석원희
총무국장	석성덕	지원국장	석해인	봉사국장	석성호	포교국장	석혜진
포교국장	석법정	포교국장	석성원	의전국장	석균중	수행국장	석성탁
종무국장	석성안	문화국장	석원종	의식국장	석성혜		
비구니부회장	석효성	비구니부장	석지현	비구니국장	석충효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부천중앙종무원장	석원해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영주중앙종무원장	석문교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영천중앙종무원장	석도명	천안중앙종무원장	석함월
시흥중앙종무원장	석지일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일지	태백중앙종무원장	석일현	김해중앙종무원장	석천각
문경중앙종무원장	석정현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암	대구중앙종무원장	석성담	제천중앙종무원장	석진공

종단법인 임원
이사장 도선
감 사 성덕 성민 선화
이 사 남산 체법 일두 성만 성우 학산 성원 일현 도명 청암 혜천 의공 성안 법광

종단법률 자문위원
변호사 김진우(明眞) 법무사 이익렬(雲虛) 세무사 이수열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이사장 · 총무원장 석도선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이종길)
부회장 진불심(이순임)
총 무 대각심(김경숙)
임 원 혜명심(박현숙)
임 원 보덕심(박경남)

종립종합예술원
원 장 묘 각(이재인)
부원장 혜 담(이정민)
국 장 불심화(정형숙)
무 용 무애심(박순애)
연 출 원각심(도지연)

법사승 임원

경남원장	도혜	충북부장	상학	청주부장	혜원
울산원장	법광	부산부장	혜성	전남부장	혜명
경북원장	성인	경기부장	자운		
법사원장	목암	구미부장	혜진		
홍보부장	원명	대구부장	혜련		
경남국장	성광	포교국장	청운	삼척국장	정허
사업국장	소현	통영국장	덕인	영천국장	원명
포교국장	덕운	포교국장	혜림	통역국장	정연
종무국장	도연	봉화국장	혜정	포교국장	혜경
서울국장	명덕	화순국장	보정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총본산 경북 영양군 수비면 절터길 54-39, Tel 054)682-5808 / Fax 054)682-9848 총무원 서울시 은평구 증산서길 91 2층, Tel 02)303-5612

‘타자화’로 바라본 객관적 자기감정



김성수의
글쓰기 명상과 자기상담

⑲ 감정의 동기 찾기



싫은 사람의 장단점 글쓰기

살다보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사람’이 싫을 때가 있다. 까닭 없는 눈물처럼 슬그머니 지우고 싶은 사람.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았지만 어쩐지 외면하게 되는 사람도 있다. 며칠 전 논쟁으로 인해 아예 꼴 보기 싫은 친구도 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하나 싶으면서도, 막상 만나면 둘도 없는 사이처럼 호들갑 떠는 관계도 있다.

‘나는 왜 싫어하면서도 싫다고 못하는 거지? 내가 싫어하는 거 맞긴 해?’

‘싫은 사람의 장단점 찾기’는 그런 점에서 내가 왜 그를 싫어하는지, 제대로 살펴보자는 의도가 깔려있다. 그를 싫어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나. 그의 말본새? 아님, 행동거지? 몸 냄새? 걸음걸이? 이런 품목 중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형성됐을 수도 있다. 아니면, 그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자주 듣다보니 부지불식간에 퇴적된 악감정일 수도 있다. 타인의 말이나 소문에 노출된 경우, 그 말을 전해주는 이에 대한 신뢰감이나 그와의 권력적 상하관계, 인간적 교류 정도에 따라 당신의 평가는 흔들릴 수 있다.

‘싫은 사람의 장단점 찾기’는 미처 나도 모르는 ‘내면의 진영논리(陣營論理) 드러내기’ 작업이기도 하다. 전쟁터의 병사처럼 덮어놓고 피아(彼我)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이런 작업할 이유조차 없다. 당신은 선택의 여지를 상실한 기계 상태이므로. 그러나 당신 스스로의 자존과 자율, 자유의 덕목을 소중히 여긴다면 이 작업의 가치는 크다. ‘내가 왜 그를 싫어하는지’ ‘그의 장점은 무엇인지’를 통찰함으로써 그에 대한 부정성이 어떤 동기로 형성됐고, 왜 그를 마음의 적군으로 치부하는지, 치밀하게 비춰보는 일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당신 감정의 주인이 되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당신은 싫은 사람에 대한 마음의 원인이 본인의 오해나 결핍, 트라우마에서 기인됐음을 발견할 수도 있다. 질식할 것처럼 숨넘어가는 어린 시절의 당신과 조우할 수도 있다. 증오와 무력감, 좌절, 수치심 따위의 부정성 집하장 같은 어느 한 시절과 대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 싫음의 원인이 나였구나.’

‘그 시절 내 상처가 투영된 것이었구나.’

이런 글쓰기를 통해서 마음의 적군(敵軍)이 나를 자각하는 매개체일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삶은 그만큼 가벼워지지 않겠는가.

- 본인이 현재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나에게 싫은 사람, 나에게 좋은 사람, 나에게 싫지도 좋지도 않은 사람’을 분류해본다.

- 왠지 모르게 싫거나 거부감이 드는 한 사람을 떠올린다. 그의 표정, 태도, 말투, 걸음걸이, 미소 띤 모습, 웃음소리, 언젠가 듣게 된 말 등을 세세히 적어본다.

- 좌우 대칭 표를 만들어서 싫은 사람의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것과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점을 나열해본다. 장점을 적기 싫으면, 그의 키, 생김새, 표정, 말투 등 알고 있는 내용을 사실 그대로 적어본다. 그가 언제, 어느 순간에 싫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본다. 그런 후, 그의 싫은 점이 내 기억 속 어떤 사람, 어떤 시기, 어떤 상황 등과 겹쳐지는지, 하나씩 적어본다.

- 자신이 싫거나 거부감을 갖는 사람을 떠올려서 그에 대해 직접 보거나 경험한 사실과 제3자에게서 들은 말 등을 분류해본다.

- 자신의 기억 속, 부정적 사건이나 상황을 떠올려본다. 그 일에 대한 주관적인 장 · 단점을 간략하게 적어본다.

> 이유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처럼
> 그 사람이 그냥 싫은 경우 있다
> 하지만 싫음의 원인을 찾아내면
> 삶은 그로부터 한결 가벼워진다

이쪽저쪽, 편 가름하는 나의 감정선은 돌쇠처럼 재빠르고 충직하다. 그럴 법도 하다. ‘좋고 싫음’이라는 느낌은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불가결한 ‘윤회’의 한 축이다. 싫고 좋고의 느낌은 생명 탄생기부터 세포 하나하나에 유포된 천부적 분류 감정이다. 갓 태어난 영아도 싫거나 낯선 감각은 밀어내려 한다. 유전 공학이나 뇌 과학의 관점에서도 ‘좋고 싫음’은 유전자의 흐름을 타고 내려온다. 그러므로 실망할 일 아니다. 내 탓도 아니다. 굳이 따지자면, 파충류의 뇌 시절부터 이어져 온 핏줄 탓이고 조상 탓이다. 그들은 그런 ‘느낌’에 의존하여 맹수를 피하고, 적을 피하고, 재해를 피해 살아남았다.

수십만 년 전 조상의 돌도끼를 지금도 사용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도끼 시절의 감정을 걸핏하면 휘두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상대의 생각이 내 철학과 맞지 않으면 즉시 싫은 사람, 불온한 사람으로 분류하는 내 안의 돌도끼. 이 케케묵은 원시 감정의 화신이 되어 먼 조상의 춤판과 접신된 상태를 우리는 전쟁이라고 명명하는 게 아닐까.

잘 살펴보면, 좋고 싫음의 감정은 회색처럼 모호할 때가 잦다. 사회적 쟁점에 대한 친구와의 논쟁에서 가끔 듣는 말이 있다. “왜 싫은지 설명이 필요해? 싫으면 싫은 거지. 나는 그냥 싫어!” 이처럼, 말인지 감정인지를 함부로 ‘내던지는’ 친구는 싫기도 하고 좋기도 하다. 싫은 이유는, ‘어떤 사안’에 대한 ‘일도양단식 무관용’에 대한 거부감이다. 좋은 이유는 그런 단순, 직설, 담백의 언어를 ‘내던져도’ 되는 친밀한 관계의 확인이 즐겁다. 어찌 보면, 이런 두 감정의 교직이 오래 묵은 인연의 특성 아닐까. 내 인간관계의 대부분이 회색 같은 모호함이라니. 내 안의 자괴감을 주시하면서 이런 질문을 다시 해본다.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타인들도 모두 싫어합니까.”

“타인들도 싫어한다는 근거를 갖고 있습니까.”

“당신의 좋고 싫음 감정은 향후 얼마나 가는 것입니까.”

관점 바꿔 글쓰기

‘관점 바꿔 글쓰기’는 당신이 일시적으로 조물주가 되는 글쓰기 기법이다. 비록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더라도 당신은 하나의 사안을 두고 다양한 관점을 체험함으로써 낯선 생각과 의미의 탄생을 주도하게 된다. 관점을 바꿔본다는 것은, 내가 타인 혹은 물건이 돼보는 도전성이 개입하는 일이다. 〈관점을 디자인하라〉의 저자 박용후는 관점 바꾸기에 대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들을 듣고, 느껴지지 않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한다.

‘관점 바꿔 글쓰기’는 ‘나라는 자아’의 일시적 소멸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공감 강화 연습이다. 내가 나를 떠나 그 사람이나 사물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런 변환이 익숙해지면 상대에 대한 이해나 수용 근육이 튼실해진다. 나를 섭섭하게 하거나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 그의 입장이 돼보는 힘을 갖추는 일이다. 어떤 사건 당사자로서 그의 마음을 잘 소화한 후, 그의 거친 행위에 대해 평화롭게 살펴보는 힘 갖추기 학습이다. 아직 덜 떨어진 인간적 감성 수준에서 말하면, 적진 내면으로 들어가 내안의 불꽃조차 태워버리는 탁월한 복수법이다.

관점에 관한 불교명상적 체계가 있다. 불교는 소위 ‘나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해보는 일에 공부의 중심을 둔다. 불교명상은 모든 존재의 연결성이라는 관점에 방점을 찍는다. 눈으로 보기에는 분리돼 있지만 ‘아뢰야식’이라는 깊은 의식 속에서는 당신과 나 그 어떤 것도 본질적으로 분리돼있지 않다는 연기(緣起)적 관점이다. 서양 심리학자 칼 융의 이론에서도 엿보이는 연결성과 전체성 논의는 현대 양자물리학을 통해 과학적 뒷받침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관점 바꾸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뭘까. 변명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모처럼 갖게 된 귀중품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다면 당신의 관점은 귀중품에 묶이기 십상 아닐까. 이 문제는 고도로 문명화된 현대인의 삶을 ‘귀중품’으로 대체하면 분명해진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현대문명 전반을 내면화한 존재들이다. 우리의 내적 정서는 소위, ‘속도와 물질과 죽음에 대한 저항’으로 가득하다. 이런 의식이 강하다보니, 이 흐름에 대한 반동적 사유 또한 팽창하게 된다. ‘느림과 평정과 죽음공부’라는 개념이 그것이다. 이것은 자아 성찰적 삶을 기본 지표로 삼는다. 〈글쓰기명상과 자기상담〉 또한 ‘느림과 평정과 죽음공부’의 실천적 한 쪼가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느 언어 쪽으로 가는 편인가. ‘속도와 물질과 죽음에 대한 저항’인가 아니면, ‘느림과 평정과 죽음공부’ 쪽인가.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이와 같은 시대적 거대 담론을 직시하며 삶의 진정한 방향성을 탐색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소한 사안을 연습하는 것 또한 이 시점에서는 실속 있는 자기사랑이기도 하다.

- 나를 ‘너’ 혹은 ‘당신’으로 바꾸어 오늘의 일기나 메모 작성하기

- 나를 ‘그’ 혹은 ‘그녀’로 바꾸어 일기나 메모 작성하기

-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이 되어, 나에게 말하듯이 글쓰기

-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의인화하여 나에게 글쓰기

- 나를 다른 사물이나 하늘의 입장으로 바꿔서 ‘나 자신에게 말 하듯이’ 글쓰기

- 내가 기르는 반려동물이 되어 나에게 말하듯이 글쓰기

- 지나간 내 삶의 어느 한 시점을 의인화하여 지금의 나에게 글쓰기

- 죽음을 앞둔 내가 되어 지금의 나에게 글쓰기

‘관점 바꿔 글쓰기’는 막연한 생각이나 상상하기와는 다르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음의 흐름을 문자로 드러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손에 펜 따위를 쥐지 않고 하는 방법이 없지는 않다. 그냥 입장 바꾼 상황을 상상해보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이나 상상만으로 그의 입장이 돼 보는 것은 강한 정신력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 그런 훈련에 익숙해져 있으면 상관없다. 다만, 자신의 입장이나 견해가 더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자세는 유지하는 게 좋다. 자칫하면 자신의 입장이나 변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수행하게 된다.

글쓰기는 그런 오류를 줄일 수 있어서 권한다. 지금의 사유를 문자화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관점을 조망하고 있는지 일관성과 지속성과 심화성을 담보할 수 있다. 당신은 단 한 어휘를 쓴 후에도 멈춰서 돌아볼 수 있다. 관점 바꾸기의 상대가 만약 사람이라면, 평소 그의 말투, 표정, 태도, 습관 등을 계속 떠올리면서 적어보는 데 무리가 없다. 모든 기억과 상상력을 총동원하다보면 어느 순간 내 자신이 그에게 동화되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한다. 상대의 입장과 나의 내면이 동일시되는 것이다. 동일시 된 자신을 알아차리면서 적어가는 일. 그의 심중과 감성이 당신 가슴의 진동판이 하나의 맥놀이를 하게 될 때, 당신은 그때 알지 못했던 그를 만난다. 생각지도 못한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옮아왔음을 보게 된다.

〈마음과학연구소 대표〉





대행 스님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이지 개별적인 혼자는 없습니다

아침저녁 자고 깨는 것도 실감 나지만 우리가 흩어졌다가 모이는 것도 실감 나죠. 허허허…. 이렇게 흩어졌다가 모이는 것도 일종의…, 우주 자체도 그렇게 흩어졌다가 모이고, 모였다 흩어지고 하는 작용을 쉴 사이 없이 하거든요. 먹고살기 위해서, 가정생활 속에서 내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 또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생각해 보지도 못하면서 살아나가는 수가 많습니다. 자기 죽을 날도 생각하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도 죽을 날은 생각지 않죠.

요새 난 '여러분이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채 부자유하게 살고 있구나.' 하는 거를 생각할 때 너무나 딱해서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창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창살 속에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면서 구속을 받고 살고 있나.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폭넓게 생각을 해 보십시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체 천차만별의 사생(四生)들, 그 모두가 어떻게 살고 있나. 천차만별의 사생들이 모두 자기가 살아온 습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벗어나지 못할까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연어인가, 은어인가? 하여튼 왜 그것은 자기가 태어난 자리를 떠나서 세상천지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는, 자기 모습을 형성해 놓고 자기는 없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쉴 사이 없이 하게 될까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모습들로 인해 먹히고 먹고 살아온 그 습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습이 쉴 사이 없이 반복되는 반면에,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려고 한 번도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대로만 따라갈까요? 그대로 따라가더라도 우리 마음은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음의 발전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도 발전이 생기고, 또는 발전이 생기는 반면에 창조력이 생기고, 창조력이 생기면 물리가 터지고, 물리가 터지면 지혜로워지죠, 마음이 넓어지고. 그래서 우주 천지를 곳곳마다 심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유스러운 사람이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넓게 봐야 하나. 첫째, 우리가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사실만 알아도 그것은 아주 폭넓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알고만 있어서도 안 된다고 했죠.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한 찰나에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다. 삼천 년 전을 지금 현재에 일 초로 갖다 놓을 수도 있다. 미래를 일 초로 갖다 놓을 수도 있다. 이것은 못을 박아서 '미래의 어느 때에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시공을 초월해서 멀고 가까움이 없이, 또 가고 옴이 없이 자유롭게 가고 옴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도력이 어디서 생기나. 마음이 폭넓고, 폭넓은 그 무리들이 사는 그 가운데에 바로 나도 더불어 함께 한마음으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를 형성시킨 놈이 어떤 놈인가? 내가 나를 형성시켜서 지금 끌고 다니는데, 물론 혼자는 할 수 없어서 어느 부부를 등장시켜서, 정자 난자를 빌리고 몸을 빌려서 형성시키는 겁니다. 벌레가 나무를 의지해서 자기 몸뚱이를 붙들어 매서 진화를 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기대지 않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해 드리는 말이 '공생(共生), 공심(共心), 공용(共用), 공체(共體), 공식화(共食化)하고 돌아가고 있다' 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데로 가서 공부를 하겠다, 산으로 올라가서 공부를 하겠다, 홀로이 앉아서 공부를 하겠다 이런 것은 아주 어긋나는 일이죠.

어떤 선지식께 제자가 이런 말을 했다죠. "분주하고 시끄러워서 저는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토굴을 묻고 살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너는 지금 곧바로 가되 길을 딛지 말고, 남이 짜 준 옷을 입지 말고, 남이 농사지은 밥을 먹지 말고, 남의 물을 먹지 말고 남의 땅에다가 오줌도 누지 말라. 그리고 남이 농사지어서 지붕을 만든 건데 그 지붕 밑에서 어떻게 자느냐? 남들이 다 해 놓은 데서 너도 더불어 같이 살면서, 더불어 같이 사는 너의 모습과 너의 생명과 너의 아픔을 다 버리고 무슨 공부를 한다고 하느냐!"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그때서야 알고 '어허! 이게 모두가 한도량이구나!' 하고 가는 바도 없고 오는 바도 없이 공부를 했더랍니다.

그런 거와 같이, 이걸 말로 꼬집어서 어떻게 다 하리까? 말로 해서 마음이 승화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말로 꼬집어서 다 할 수가 없어요. 비밀문서라는 것이 정신세계의 비밀이니까요, 전부. 우리가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것도 비밀이거든요. 예전에는 모습을 가지고 축지법을 했지만 정신계의 축지법이 지금 시점에는 필요하니까요. 지금은 정신을 먹고 살고, 정신을 잡아먹느냐 정신을 뺏기느냐 하는 문제들의 싸움이라고요. 지금 구순히 사는 것 같지만 전체가 전부 싸우고 있는 거죠. 이런 싸움을 안 하고 어떻게 평등하게 공법으로 대치를 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두가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형상 아님이 없는데 모든 거를 밟고 먹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도리를 다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법은 없을까? 그래서 삼천 년 전에 부처님께서 그 뜻을 일러 주셨고 지금까지도 일러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리를 깨달았다 해도 각각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도리를 자세히 들으세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무리 많이 마음을 통해서 들어와도 두드러지지 않고, 여러 부처님들의 마음이 여기를 통해서 바닷물 내놓듯이 다 내놔져도 줄지 않아요. 이렇게 광대무변하고 묘한 도리가 우리들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관습에, 습에, 인연줄에 매달려서 그냥 꼼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식구, 부부, 자식이다 할지라도 그 자식들의, 부부의 몸을 붙들고 매달리지 말고, 만약에 그 마음을 둘 아니게 놓고 슬기롭게 굴린다면 몸은 저절로 붙들어지고, 사랑은 저절로 화(化)해서 자비의 정이 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이 이어져 가면서 더불어 하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묘법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떡하면 요것을 요리를 잘해서 잘 먹여서 그 맛을 알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도무지 쉽지가 않고 땀이 부쩍부쩍 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구에 붙어서 사는 사람 벌레는 화해서 한 발을 떼어 놔야만이 이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자유자재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내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평등봉에 같이 한자리를 할 수 있어서 여래 자리라고 하죠.

우리가 옷을 벗었다고 해서, 이 모습을 벗었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옷을 벗으면 자기 차원대로…. 아니, 내가 테레비를 보니까요, 배를 갖다가 놓고, 같은 배인데도 크고 작은 것을 가리려고 기계에 넣고선 굴러 떨어지게 합디다.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큰 것은 큰 것대로 굴러 떨어지게 해요. 그렇게 해서 같은 배건만 크고 작은 걸 가려내더라고요. 그러고는 작은 건 작은 것대로 큰 것은 큰 것대로 중간 것은 중간 것대로 놓고 팝디다.

그러니 천차만별의 그 모습들을 죄들 각각 놓고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살아온 습, 그 습으로 인해서 오는 인과, 인연에 따라서 인과가 되는 거니까, 그것이 업이 되는 거죠. 이게 악업이 되느냐 선업이 되느냐. 사랑을 하다가도 어떠한 문제 때문에 헤어지면 악업이 되죠. 선업이 그냥 순

☞ A26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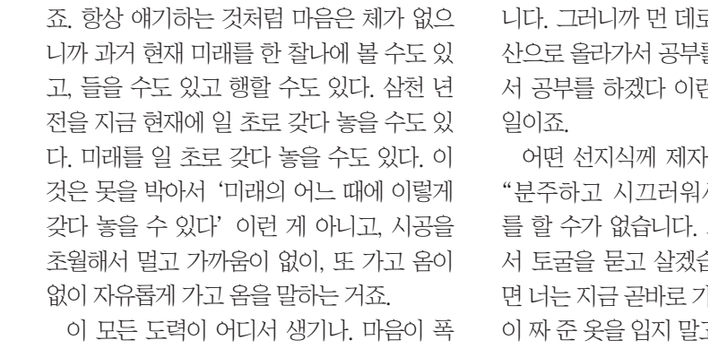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25th 현대불교신문
창간 25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41길 76 (중동) | 전화 053)767-3100 | 팩스 053)765-1600

현대불교신문 창간 25th을 축하합니다
동산 창립37주년 기념 및 동산인의 밤
동산가족과 가정에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동산 창립 37주년 기념법회 및 동산인의 밤'에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9년 11월 7일 (목) 오후 6시 30분
■ 장소 : 아펠가모 (전화 02- 730-0230, 종로구 종로1길 50, 중학동, The-k, 트윈타워 A동)
■ 행사 : 제1부 - 기념법회 (대종사 법산 경일 큰스님 법어)
제2부 - 동산인의 밤 (불자가수 초청공연 및 경품 추첨)
■ 회비 : 50,000원 (좌석 준비 관계로 참석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사무처 ☎ 02-732-1206
■ 후원 : 동산불교대학총동문회, 동산법사단, 동산 포교사단
동산불교대학총학생회, 동산로터스, 동산신도회
법 주 법산 경일대종사 합장
이사장 이 종 현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내면의 절차가 잘되어 있어야 외부의 절차가 다 잘된다

☞ A25면에서 계속

간에 악업이 돼 버리고 말죠.

그러니 이 악업 선업이라는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은 짐작도 못 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몸뚱이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가지각색의 모습을 해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하나도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업식의 굴레에서 그냥 그대로…. 컴퓨터에 넣으면 그대로 나오듯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식이 딱, 아주 기정사실로 들어 있거든요. 그렇게 뺄래야 뺄 수 없고, 끼울래야 끼울 수 없이 그대로 입력이 돼서 그렇게 나오는 것을 팔자 운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영계성, 세균성, 윤회성, 업보성, 인과성 이 모두가, 거기에 속해서 나오는 것이 전부 몸 안에 들어 있어요. 부인 못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나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졌고, 나로부터 상대가 생겼고, 나로부터 업식이 있는 거니까 내 탓으로 돌리라고 하는 거죠. 묘한 거는, 과거에도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살았어요. 인과라든가 유전성이라든가, 세균성, 업보성 또는 영계성까지도 모두 종합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 겁니다.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입력이 된 대로 여러분을 지금 이끌어 가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한 치도 벗어날 수 없게 녹음이 돼서, 입력이 돼서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대로 입력이 돼서 나와요.

그런데 이 입력된 것을 어떡하면 없앨 수 있을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입력이 된 데다가 되입력을 하면 앞서 입력된 것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인식이 되고 동감이 될 수 있도록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나오는데 거기에 말려서 그것이 습성으로 돼 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모두 살아나가고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믿고 되놔라. 제 나무는 제 나무 뿌리를 믿어야 되느니라." 했습니다.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수분과 에너지를 흡수해서 모두 올려보낼 수 있어서 나무가 푸르르게 살 수 있는 것이지 남의 뿌리, 남의 나무를 믿고 잘 살게 해 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그건 기복이며, 그건 이익이 하나도 가지 않는 것이며 공덕이 될 수가 없죠.

천체가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이 진리를, 하나로 묶여서 더불어 같이 돌아가고, 같이 살고, 같이 말과 마음이 이어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바로 여래라고 하죠. 그리고 공덕이라고 하고요. 일을 할 때에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관여가 된 사람들은 전부 모여야 해결이 돼요. 모이지 않곤 혼자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불어 같이 모여서 공동 분담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인공' 입니다. 주인공! 우리가 공(空)해서 전체가 다 이어져서 돌아가니까, 내 주인을 근본으로 치고 그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인해서 모두 보풀어져서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그 자체를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몸뚱이 속의 모든 중생들이 의식들을 꼭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몸뚱이가 배라면 내 마음의 선장이 그 자생 중생들을 다 태워 가지고 지금 다니는 거거든요. 이 배에 탄 중생들은 다 선장의 그 마음을 따르게끔 돼 있거든요. 즉 말하자면 그 마음의 선장에 따라 질서 있게 행동과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하게 "어휴! 저놈을 죽였으면 좋겠다." 하면 이 안에서도 '저놈 죽였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쪽으로 음파가 그냥 가 버려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냥 더 마음이 부풀어지면서 '두고 보자.' 하게 또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 안에서 의식들이 내 마음 채찍의 다스림에 따라 나가서 마음도 조절하는데, 나쁘게 조절하느냐, 평화스럽고 아주 좋게 해결사로서 조절을 하느냐 하는 것도 자기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 **이 몸 안의 의식들이**
> **내마음 채찍의 다스림에 따라 나가서마음도 조절하는데**
> **나쁘게 조절하느냐, 아주 좋게 해결사로서 조절하느냐**
> **하는 것도 자기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의식을 가지고 있고 천차만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악업, 선업의 천차만별의 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하나 나오는 대로 '으음,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해결할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가 놓아야죠. 그러면 통신이 돼서 다 결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자꾸 바깥으로 끄달리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에 의해서 작용을 해 주거든. 오늘은 요런 자세한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하시라도 마음을 넓게 가지면서 거기다가 놓으세요. 만약에 꿈을 꾸었다든가, 상대가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잘못돼 돌아갈 기미가 보인다든가, 나를 그냥 꼭두각시로 만든다든가, 또는 적대시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허다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기미를 알게 되면 '너만이 그렇지 않게 할 수가 있잖아! 그 마음들과 둘이 아니게 내 마음으로 쓸 수 있게끔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 모든 것을, 신호를 거기다 맡겨 놓을 때에, 이건 의학적이기도 한데, 대뇌를 통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소뇌를 통하고 중뇌에서 결정을 지어요. 결정을 짓게 되면 하달이 돼요. 사대(四大)로 통신이 돼요. 통신이 돼서 제각기 소임을 맡아 가지고 그때는 뛰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안과 밖으로 다 뜁니다. 그래서 내면의 절차가 다 잘되어 있어야 외부의 절차가 다 잘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깨진 바가지가 바깥에 나가면 새지 않느냐는 속담이 있죠. 그러니 내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의식이 바로 내 주인이자 내 하인이고, 내 육체가 또 그네들의 주인이자 바로 심부름꾼이고, 관리인이자 집합소가 되죠.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사는 거지, 개별적인 혼자가 없어요. 모두들 살아나가는 데 내가 했고, 내가 살고, 내 것이고…,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것이 없다면 바로 욕심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벌어 놨다' 하면 그게 조금만 없어져도 그냥 안타깝고 그렇지만 '더불어 내 거다, 더불어 한마음의 거다' 한다면 가지고 다녀도 무겁지도 않고요, 도둑맞을 일도 없고요. 하하하…. 또 생짜배기로 돈이 나가지도 않을 거고요. 모두의 돈이라고 그러는데, 더불어 같이 공유하는 돈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짜배기로 나갑니까? 그러나 내 거라고 그런다면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이놈의 돈이 나가거든요.

그러니 오늘은요, 여러분이 허심탄회하게 질문들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하다 보면 세세한 것도 그 속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볼 때도요, 전부 상대를 놓고 기도를 하게 만들어 놨고, 전부 상대를 놓고 하고 있죠. 참, 그것도 기적이지. 어떻게 그렇게 상대를 놓고 빌게끔, 기도하게끔 만들어 놨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자기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그 사실을 안다면…,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집 안에 들어가서도 말 못 할 일이 생기고, 말도 못 하고 자기 혼자만이 알고 있어야 하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죠. 남을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일에 다 그렇지요. 혼자 먼 산 보고 울어야만 하고, 자기 혼자 새겨야 하고, 혼자 참아야 하는 일들이 건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올 때도 혼자 왔기 때문에 갈 때도 혼자 가야죠. 그런데 내가 가르치는 건, 혼자 온 것이 없기 때문에 혼자 갈 것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가 태어난 그 자리에 다시 와서 자기를 다시 형성시켜 놓고 자기는 옷을 벗듯이 그냥 벗어 버리는 거니까 영원히 사는 거지요. 우리가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이 바로 저녁이면 잠자고 아침이면 깨고 이러는 거와 같은 겁니다. 말씀하세요.

질문자1(남) 우리 불자들이 어디를 가거나, 혹 절 앞을 지날 때에는 불전에 참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에 어떠한 마음을 내어야 합니까? 부처님도 내 한마음에 계시며 바로 나의 실상이니 주인공에 감사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부처님께 '원력을 주십시오.' 하는지요. 참배를 하면서도 주인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요.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그게 간단해요. 만 개의 사찰을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그 만 개가 단 하나도 없어요. 거기 가서 참배를 올릴 때, 내가 그랬죠? 이 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당에서 참배를 올릴 때 왜, '일체제불의 마음' 이라는 노래 있죠? 그와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저 형상이 내 형상이요, 저 마음이 내 마음이요, 저 생명이 내 생명이니 둘 아니게 '주인공' 하면 전체가 모두 하나로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저 어디를 가셔서 참배를 올리든지, '주인공!' 하면 그냥 그 부처와 나, 일체가 다 하나가 돼 버리니까요. 주인공에 감사히 생각하고 하면 그대로 그 부처님 마음도 거기에 함께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비밀이죠. 하하하….

질문자1(남) 식사를 할 적에는 합장을 하는데 이럴 때는 주인공과 더불어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면 되는지요.

큰스님 예. '주인공' 하면 나와 더불어 주인공이지 개별적인 주인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한 그릇 먹을 때에 혼자 먹습니까? 아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여러 생명들이 같이 먹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몸속에 내가 얼마나 많이 들어 있습니까? 그러니 내가 밥 한 그릇을 먹어도 공식(共食)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밥 한 그릇이 또 뭡니까? 농사지은 사람, 밥 지은 사람, 뭐뭐, 전부 거기 손길이 갔으니 모두 한데 합치면 전부 공식이에요. 그러니 공식했다는 것은, 즉 말하자면 공양(供養)입니다. 공양! 그래서 "공양을 올려라." 이럽니다.

어느 한 부처님에게 올리는 게 아니고 우주 삼라만상 전체에 한 그릇으로 공양을 올리고도 그 한 그릇은 되남더라 하는 겁니다. 되남아서 또 올리고, 먹어도 또 남고, 또 먹어도 또 남고 이렇게 되풀이되는 끊어지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혼자 먹어도 공양입니다. 그래서 공양! "공양하셨어요?" 이러죠, 절에서? "밥 먹었소?" 이러지 않고 "공양하셨어요?" 이러죠?

질문자1(남) 공부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끌고 다니는 것도 바로 주인공, 당신이 끌고 다니는 것이지. 이 고통 주는 것도 다 당신이 하는 것이지.' 이렇게 믿고 해도….

큰스님 '당신이 하는 것이지.' 해 놓고 뒷마무리가 없으면 안 되죠. '당신이 한 거니까 당신이 해결해야지! 당신이 구정물이 나오게 했으니까 당신이 새 물이 나오게 해서 쓸 수 있게 해야지!' 하는 그 대치가 있어야죠. 똥을 다 누고 밑을 씻어야만이 개운하고 깨끗하죠? 그와 같은 겁니다. 형제 법우님들이 공부가 부진해 가지고 내가 한 번 더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야죠. 나는요, 사실은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도 그대로 자는 게 없고, 낮에도 여러분 못지않게 일하고 있습니다. 한시도 쉬는 사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깊이 좀 하세요.

질문자2(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문의 편지로 큰스님께 올렸습니다. 단 제 마음자리가 아직 부족해서 뭔가 좀 부족하고, 요새 말로 좀 튀는 것 같습니다. 일이 잘되면 그걸 진득이 참고 있어야 되는데, 마음보다 몸이 앞서고 몸보다도 마음이 앞서고 그래서 좀….

큰스님 아니요! 이런 묘법이 있어요. 말을 해도 함이 없이 하고 또 행을 하되 함이 없이 행을 한다면 그 비밀이 아무 데도 누설되지 않아요. 사람이 내놓는 것만 알지 들이는 것을 모른다면 아니 되듯, 내놓고 들이는 것이 모두가 철두철미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파라는 것은 여기에서 달나라를 가도 그냥 요기서 저 문 밖에 통신이 되는 거나 똑같아요, 두루.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하면 그건 누설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함이 없어!' 그렇게 알고 있다면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93년 11월 7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5th을 축하합니다

휘몰아치는 여러분의 정보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회원을 관리하는 모든 웹사이트의 보안서비스 개선
+ 시스템 보안관리
+ 서버운영 및 관리
+ 업무용 전산 시스템,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관리
+ PC 유지보수

IT PLUS + ONE
ELSWIVER

http://www.elswiver.com http://www.itplusone.com

Venture for Tomorrow
Korean Venture Entrepreneurship

IT PLUS + ONE 으로 한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IT PLUS + ONE 은 (주) 엘스위버의 정보보안 및 전산 통합관리 서비스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ELSWIVER
IT PLUS + ONE
TEL : 070-4060-7460
©Copyright 2018 ELSWIVER co.Ltd, ALL RIGHT RESERVED

| 현불 논단 |

결혼을 축하합니다



이미령
칼럼니스트

며칠 전 참석한 동료의 결혼식
결혼은 삶속 가장 행복한 의례
불교서 애착 · 구속으로 여겨져
완전한 깨달음 방해요소로 평가

부처님 본생담 · 반야부 경전엔
결혼은 수행 완성 돕는 요소
수메다 행자와 상제보살이 예
배우자는 세세생생 나의 도반

며칠 전 함께 일하는 동료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했다. 늘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으로 씩씩하게 뛰어다니던 사람이 새하얀 드레스에 고운 신부화장을 한 모습을 보니 괜히 내 맘이 다 설레었다. 신부도 신부지만, 사랑하는 딸을 품에서 내놓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신부 아버지의 애틋한 표정도 참 인상적이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을 안 하려거나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소식은 쉬지 않고 들려오지만, 그래도 결혼 적령기 신랑신부 친구들의 들뜬 모습에서 여전히 결혼은 삶에서 가장 행복하고 화려한 의례가 아닐까 싶다.

불교계에 몸을 담고서 경전을 읽고 강의를 해오는 내 입장에서 결혼이란 제도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평범한 세상과, 세속을 뛰어넘은 수행의 차원에서 결혼이 갖는 의미는 다르기 때문이다. 세속에서야 사랑하는 이와 맺어지는 결혼은 행복이다. 하지만 구도의 길에 나선 이들에게 그 도탑고 아름다운 인연은 또 다른 애착과 구속으로 여겨져 결혼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수행의 길에 나선 구도자에게 이성과의 만남은 치명적이다. 특히 수행을 방해하는 유혹자로 여성들이 그 악역을 많이 맡고 있어 종종 '마구니'라고 불리기까지 한다. 가장 높고 완전한 깨달음인 아뇩다라삼약삼보리에 이르기 위해 세세생생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 주저앉는단 말인가.

하여 결혼이란, 종교에서는(적어도 불교라는 종교에서는) 100% 축하해주기에는 좀 망설여지는 의례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생담이나 반야부 경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수행을 완성하는 데에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주 오래 전 수메다 행자 시절을 떠올려보자. 연등부처님에게 나아가려 하니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기 위해 꽃이라도 올리고 싶은데 단 한 송이도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장면이 있다. 그때 그에게 꽃을 내미는 이가 있으니 그녀가 바로 수밋다(구리여인)이다. 수밋다의 등장과 도움으로 수메다 행자는 연등불에게 나아갈 수 있었고, 급기야 장차 석가모니 불이 되리라는 수기까지 받았다. 그리고 이 인연으로 두 사람은 세세생생 부부가 되고, 결혼 후에 남편은 출가하지만 아내 역시 그 뒤를 따라 수행하게 되니, 이들이 바로 싯다르타와 야소다라이다.

반야부 경전의 최초경전이라 하는 〈팔천송 반야경〉에 등장하는 상제보살은 어떤가. 자신에게 반야바라밀다를 들려줄 스승을 찾아 먼 길을 나섰다가 마침내 스승이 살고 있는 성 앞까지 왔을 때, 가난한 그에게는 스승에게 공양 올릴 것이 하나도 없었다. 진리를 완성하기 위해 자기 몸까지도 기꺼이 버리겠다는 구도심을 품은 그를 도우려고 나선 이는 어느 장자의 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다 상제보살에게 주어서 스승에게 공양 올릴 수 있도록 도우며, 그녀 스스로도 스승에게 나아가 가르침을 듣기를 발원한다. 장자의 딸이 도와준 덕분에 상제보살은 그토록 원했던 스승에게서 반야바라밀다를 듣게 되며, 그녀는 제 부모와 자기를 따르는 하녀 500명 모두와 함께 발심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수메다 행자와 상제보살 이야기를 음미할 때마다 구도자에게 이성은 어떤 존재이며 결혼은 보살행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결혼은 나의 보살행을 완성할 수 있는 화룡점정의 의례요, 배우자는 세세생생 나의 도반이라고. 그러니 어찌 결혼을 축하하지 않을 수 있을까.

社 說

승가교육기관 개편, 미룰 수 없다

조계종 제8대 교육원장으로 취임한 진우 스님이 승가교육 내실화를 교육 종책 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한다.

진우 스님은 10월 8일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승가교육 종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서 스님은 승가교육 내실화 과제 중 기관 정비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승가교육 기관 정비는 현재 조계종 승가교육 종책 분야의 최대 현안이다. 현재 한국불교는 '출가 절벽'에 당면해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유지했던 한해 출가자 150명 선이 무너졌고, 지난해와 올해는 120명 선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120명 선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 문제다. 문제는 감소 속도다. 200명에서 150명 선으로 무너지는 데 3년이 걸렸지만, 150명 선이 붕괴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년이다. 이 같은 속도라면 향후 3~5년 안에는 한해 출가자 100명도 모집하기 어렵게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은 동국대 · 중앙승가대 · 사찰승가대학 등으로 17곳이다. 이중 상당수의 기관이 전체 학인이 6~9명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기본교육기관 수는 연간 출가자가 3~4배 많았던 20년 전에 마련된 것이다. 향후 한해 출가자 100명 유지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지금 현행 교육기관 수와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양질의 출가자' 양성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는 모든 종도가 고민해봐야 한다.

진우 스님은 승가교육기관 조정을 본사와 교육현장 등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제 종단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사안은 전통에 부합하면서도 시대에 맞는 출가 문화를 정립하고, 승가교육 시스템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이면서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종단의 백년대계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똘레랑스'와 종교평화

2016년 1월 17일 밤, 경상북도 김천 개운사에서 충격적인 훼불사건이 벌어졌다. 개신교신자를 자처한 60대 남성이 법당에 난입해 불상을 파손하고, 향로와 목탁 등 법구를 내던지며 난동을 부린 것이다. "절도 성당도 미신이고 우상숭배이기에 불을 질러야 한다"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진 그는 결국 경찰에 인계됐지만,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사찰이 떠안았다.

이때 한 신학대 교수가 이 같은 훼불행위에 대신 사과하는 메시지를 SNS에 남겼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훼불행위로 피해를 입은 개운사를 돕기 위해 모연활동을 펼쳐 대중으로부터 '종교평화를 추구하는 종교인의 참 모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바로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다.

하지만 이런 손 교수에게 학교 측이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세간의 이목은 훼불행위에서 사학의 부당한 징계로 옮겨갔다. 2017년 2월 20일 파면 처분을 받은 손 교수는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굴하지 않고 학교 측과 지난한 파면 무효확인소송을 이어왔다. 그리고 지난 10일 1심에 이어 2심도 손 교수에 대한 파면이 부당한 징계임을 확인하고, 파면 취소를 결정했다.

남은 것은 서울기독대의 결정뿐이다. 대법원까지 항소하며 다시 버틸 것인지, 2심 판결을 받아들여 손 교수를 복직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만약 다시 항소한다면 대학을 향한 세간의 여론은 지금보다 더 싸늘해질 것이다. 이제라도 학교 측은 똘레랑스의 참 의미를 되새겨 손 교수의 복직을 결정하기 바란다.



기자칼럼

노덕현 취재부 차장

뉴미디어 생존 무기 '저널리즘'

'STOP PRESS(인쇄를 멈추다)' 영국의 유명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2016년 3월 26일 자 발행 신문에 쓴 문구다.

1986년 창간한 인디펜던트 대표적인 고급일간지로 평가 받았지만 영국 언론 중 처음으로 종이신문 인쇄를 중단하는 주인공이 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펴낸 '신문 인쇄의 현재와 미래'에서는 Future Exploration Network의 신문 전망 연표를 소개했다. 여기서는 뉴스미디어로서의 영향력이 끝나는 이른바 '신문 종말 시점'을 2026년으로 예견했다.

2026년. 신문은 과연 사망할까. 흔히 일반사회에 비해 10년이 늦다는 불교계에서도 신문의 위기는 체감이 된다. 불교계 신문에서 청년기자들은 이제 손꼽히는 수준만 남아있다.

뉴미디어의 시대, 신문의 위기가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선호하는 매체가 변화하며 외면받는 매체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신문이 담당해 온 역할만큼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역으로 신문의 위기가 계속 거론되는 건 아닐까. 신문은 각 현안에 대해 이른바 나침반 역할을 해왔다. 신문의 위기는 이런 신뢰가 위기에 처한 부분도 존재한다.

뉴미디어 시대 대표적인 매체로 유튜브가 꼽힌다. 전 연령 세대에 있어 스마트 앱 중 월등한 사용율을 자랑한다. 유튜브의 인기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꼽는다. 편리성과 함께 방대하고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많다. 그중 이른바 '가짜뉴스'를 빠른 속도로 확산시킨다는 점이 있다. 최근 연세대가 성인 1300여명을 상대로 뉴스 인식조사를 한 결과 88.6%가 가짜뉴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짜뉴스의 출처로는 유튜브가 가장 많았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유튜브의 장점 중 하나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한쪽 주장만을 반복 노출시킨다는 점이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가 발간한 '디지털뉴스 리포트 2019'에 따르면 언론사 브랜드 신뢰도 점수에 JTBC, YTN을 비롯한 방송사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조중동, 한경 등 이른바 메이저 신문은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신문의 위기는 신문의 브랜드 가치를 좌우하는 신뢰의 하락에서도 초래하고 있다.

위 순위는 유튜브 속 기성 미디어 채널의 선호도 순위와도 일치한다. 영상 콘텐츠에 대한 신문사에 비해 유리한 방송사의 역량차이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파적 치우침에 따른 신문 브랜드의 신뢰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크다.

불교계 방송에 이어 최근 불교계 신문은 유튜브를 비롯한 영상 플랫폼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불교계는 일반사회에 비해 갈등 현안이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반신문들이 걸어온 길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차별화된 콘텐츠만이 살아남는 시대, 불교계 신문은 뉴미디어 환경에서 어떤 콘텐츠를 보여줄 것인가? 정확하고,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저널리즘만이 신문이 다른 미디어에 비해 뉴미디어 시대 보여줄 수 있는 차별화된 무기가 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뿌리깊은 종단, 보람여는 교구-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교종본찰 봉선사
1200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길32(부평리)
전화 : 031-527-1956, 1950~3
팩스 : 031-527-1958
템플스테이 : 031-527-9969
홈페이지 : www.bongsunsa.net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제16대 교구장 서성 초격스님
이웃과 함께, 자비나눔 취임법회

불기 2563(2019)년 10월 25일(금)
오후 2시_식전행사 / 3시_취임법회
봉선사 큰법당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광릉 숲의 단풍, 가을바람에 울려 퍼지는
봉선도량의 풍경소리와 국화향기가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동안 성원에 힘입어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제16대 교구장 서성 초격스님의 취임법회(진산식)를
사부대중의 화합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자비 나눔의 법석으로 여러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조고각하照顧脚下의 마음으로 희망찬 미래 한국불교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도량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잠시 바쁜걸음 멈추시고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제16대교구장 취임법회 봉행위원회 합장

이번 제16대 교구장취임법회는 우리주변에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화환이나 화분 등의 축하용품은 정중히 사절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온기 가득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자비의 쌀과 김장으로 대신하기로 하였으니,
이 뜻을 헤아려 주시고 많은 동참바랍니다.

- 자비나눔 동참금 : 쌀 20Kg 1포 1구좌 10만원
  김장10Kg 1박스 1구좌 10만원
- 자비나눔 계좌 : 우리은행 1006-301-373259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
- 문의 : 031-527-1956, 1951 취임법회 봉행위원회

* 자비나눔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소형 축하만장에 적어 행사장을 장엄하게 되며, 모아진 자비나눔 쌀과 김장은 교구 내 어려운 이웃에게 동참하신 분의 고귀한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성함이 부착되어 전달됩니다.

불교는 원력과 발심의 종교입니다.

백만원력결집은 백만명 사부대중이 매일 100원의 원력을 모아
한국불교의 힘찬 내일을 여는 운동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마침내 큰 바다가 되듯이
우리 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이 백만으로 모이면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불일은 만고에 빛날 것입니다.

佛

우리가 한국불교를 일으켜 굳건한 반석위에 올린다는 의미를 담아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세우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신 인도 부다가야에 성지순례하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을 위하여 전법하고 교육하고 봉사할 수 있는
한국사찰을 세우고자 합니다.

法

노령화되고 있는 한국불교에 젊은 바람을 불어넣어 부처님 가르침이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육·해·공 3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영외에 법당을 건립하고자 합나다.

僧

나이들고 병든 불자들이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의지할 불보살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불교병원·요양원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한반도와 세계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하여
나눔기금을 조성하려 합니다.

모연동참안내

후원계좌

농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체국 010579-01-005480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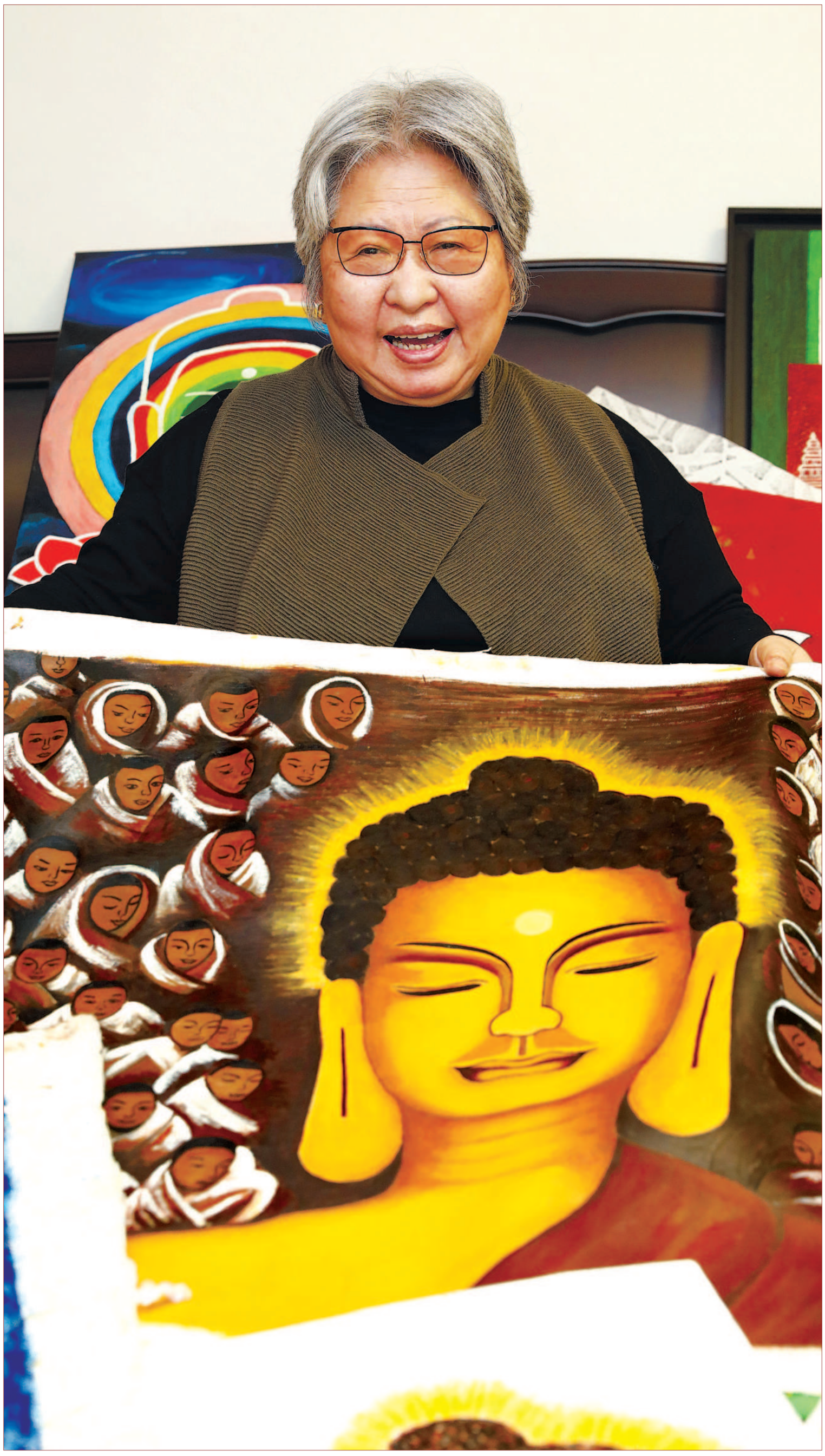
ARS

060-700-0012 (1통화, 3천원)

문의

02)6273-0108, 0109

“불교는 사람 철들게 하는 가르침”



산문 밖의 禪

최혜자 작가 (81)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자신을 평생 괴롭힌 병마를 인생의 가장 큰 선물로 생각할 수 있을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수행’일 것이다. 수행이라는 말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오늘날에서 그것을 수행이라는 말로 언급하는 것이 오히려 민망스러운 일은 아닐까. 조심스러운 마음이다. 자신을 ‘부처님의 영원한 학생’이라고 말하는 최혜자는 평생 자신을 힘들게 했던 병마를 공부로 받아드리고, 삶의 동기로 삼았다. 미술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불교계에 이름 하나 적은 바 없는 그녀는 병마 속에서 부처님을 그리고, 아들의 바른 삶을 위해 부처님의 말씀을 옮겨 적으며 살았다. 부처님을 2백 점 넘게 그려왔으며, 불서를 4권이나 출간했다. 지난해는 그 그림들을 모아 전시회를 열었다. 이제 작가으로 불리는 최혜자의 삶을 들여다본다.

시련 또 시련

최 작가의 인생을 타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녀의 삶 전반에는 시련이 가득하다. 특히 삼십대 후반부터 겪어오고 있는 병마는 그녀의 삶 자체다. 하지만 최혜자 본인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 그녀는 남들이 시련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려움들을 오히려 삶의 동기로 삼았다. 그리고 그 삶의 동기는 치열하고 열정적인 삶으로 이어졌다.

최 작가의 시련은 가족사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념의 시대를 살았던 최 작가의 고향은 함경남도 영흥이다. 선대의 대부분은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그리고 다음 선대는 대부분 왼편의 길을 걸었다. 당시 이 땅에서 왼편을 바라본다는 것은 힘겨움이었다.

우선 연좌제가 그녀의 청춘을 묶었다. 당시 이 땅에서 이념의 문제는 마치 선과 악의 문제와 다를 바 없었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그녀였지만 그녀는 번듯한 법조계를 비롯한 공직을 꿈꿀 수 없었다.

시련은 이어진다. 그녀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과 사별한다. 대신 그녀의 곁엔 소중한 아들이 있었다.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던 최 작가의 삶은 치열해진다. 여성 홀로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건사한다는 것은 힘겨운 일이었다. 기독교 신자였던 그녀는 기도했다. 자신의 삶에는 오로지 어머니로서의 삶만이 온전하기를. 그녀는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한다. 그녀는 삼십대 후반부터 큰 병마와 싸우기 시작한다. 이십대 후반부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던 그녀는 ‘신경성’으로 시작되는 많은 병들을 얻게 된다. 아픈 날들이 시작된다. 하지만 그녀는 그 병마가 자신의 기도에 대한 신의 응답이라고 말했다. ‘선물’이라고 말했다. 그 병마가 있어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수 있었다는 것이다.

부처님을 만나다

최 작가는 불교의 나라 태국에서 불법을 처음 만난다. 1973년부터 다섯 살 아들과 함께 태국에서 살게 된 최 작가는 한 · 태문화연구원을 만들어 문화와 관련된 일을 했다. 그리고 1984년이었다. 이미 그녀는 많은 병들로 힘겨워하고 있었다. 누워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던 그녀였다. 1주일 일을 하면 2주일을 누워있어야 했다.

하지만 오랜 태국에서의 생활로 그녀의 이름은 왕실에 닿아 있었다. 태국의 왕실은 최 작가에게 마하짜끄리시린톤 공주가 쓴 〈법구경〉 해설 시집 〈불교 격언에 따른 시〉를 한국어로 번역해 출간해줄 것을 부촉했다. 최 작가가 왕의 나라, 불교의 나라 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른 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성경만을 마음에 두고 살았던 최혜자에게 〈법구경〉이라는 그 이름은 너무나 먼 언어였다. 그야말로 불교의 ‘佛’자도 몰랐던 최 작가였다. 태국어를 아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최 작가는 대사관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대사관을 통해 〈불교성전〉이라는 책을 구했다. 부처님의 생애를 비롯해 주요 경전의 내용 등 불교 공부를 위한 전반적인 텍스트가 들어있는 입문서였다. 최 작가는 불교공부를 시작했다.

“눈이 확 떠졌어요.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삶과 진리에 대한 의문과 궁금증들이 하나 둘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 책(불교성전)에 다 있었어요. 부처님 말씀에 다 있었어요. 새로운 책장을 넘길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다가왔어요.”

끝없는 생애 시련

태생부터 연좌제로 고난 시작
결혼 3년 만에 남편 사별
30대 말 병마와 투병 시작
1973년 아들과 태국 이주
1984년 〈법구경〉 번역서 출간
계기로 불교 공부 시작
불교공부 6년 만에 불교귀의
눈 수술 후 연꽃그림 시작

최 작가는 일을 위해 보기 시작한 〈불교성전〉에 하루하루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다. 깊이깊이 끌리기 시작했다. 최 작가는 병마와 싸워야 하는 하루하루를 견디며 불교공부를 이어갔고, 이태 뒤인 1986년 마하짜끄리시린톤 공주가 쓴 〈법구경〉 해설 시집 〈불교 격언에 따른 시〉를 한국어로 출간한다.

귀의, 그리고 첫 불사

1988년 최 작가는 프랑스 파리로 이주한다. 최 작가는 왕실이 부촉한 출간을 마친 후에도 불교공부를 이어갔다. 불교에 빠져 살았다. 그녀는 계속 아팠다. 완치될 수 없는 병마와의 힘겨운 싸움 속에서도 그녀는 책을 놓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작가는 마침내 부처님을 마음속에 들인다. 귀의였다. 계사도 연비와 계첩도 없었지만 그녀의 귀의는 조용한 출가와 같았다. 마음 깊은 곳에 오롯이 부처님을 모셨다. 최 작가가 불교공부를 시작한지 6년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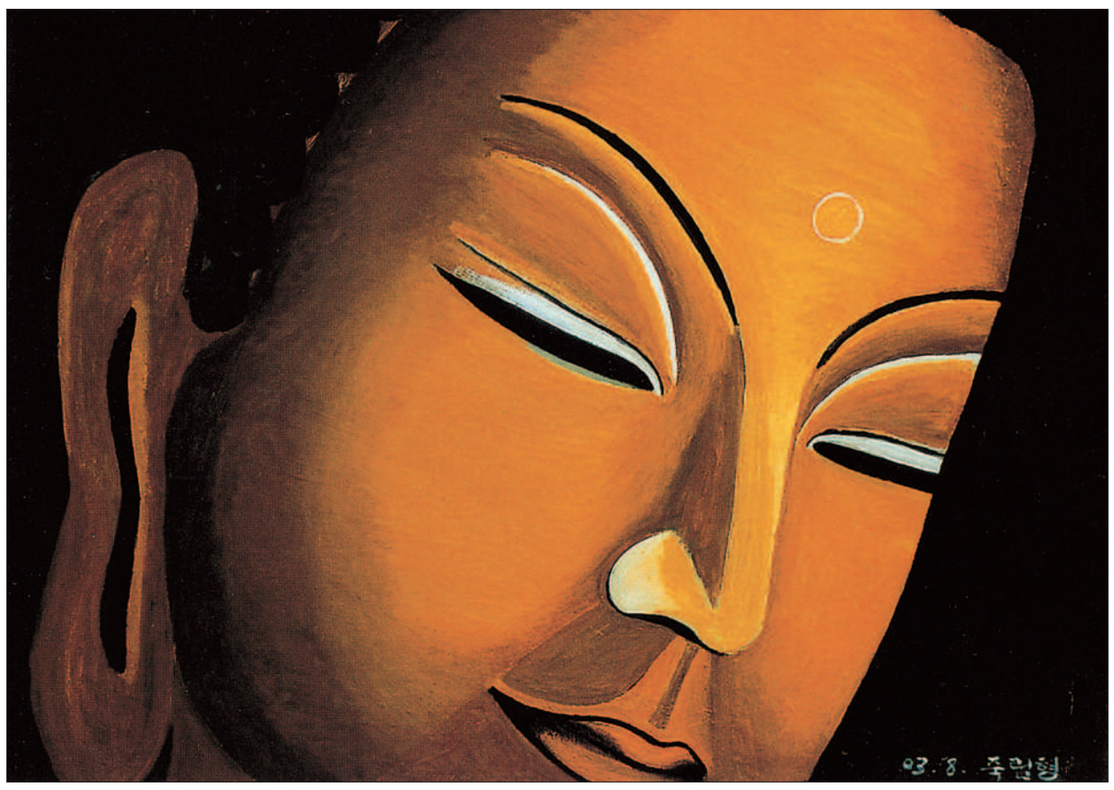
“불교는 사람을 철들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좋았어요. 철이 들어도 몇 번은 들었어야 할 그 나이에 내가 철들어가는 나를 볼 줄은 몰랐어요.”

B2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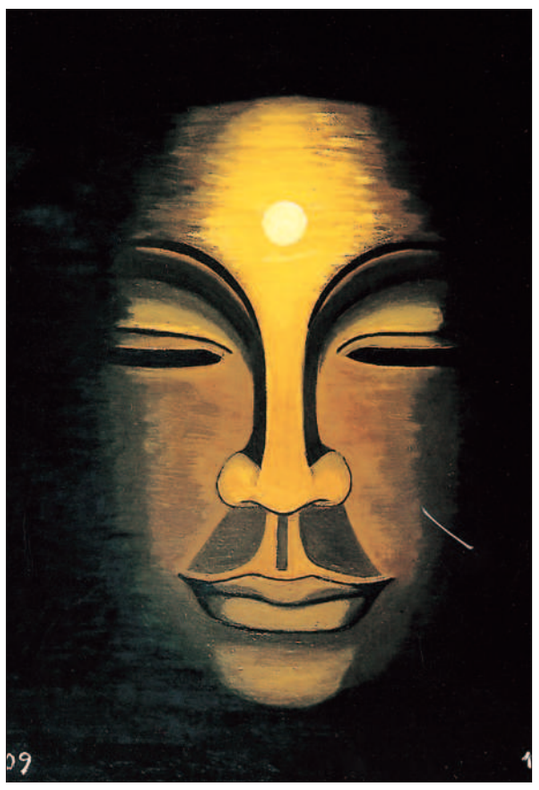
최혜자 작가는… 경기여중고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1973년 태국으로 이주했으며, 마하짜끄리시린톤 공주의 〈법구경〉 해설 시집 〈불교 격언에 따른 시〉를 번역 · 출판(86년)하면서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1988년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살다가 2018년 가을 한국에 돌아왔다. 30대 말부터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불교 공부와 그림 작업에 매진했다. 2018년 부처님 그림 63점을 모아 전시회를 열었으며, 〈아들에게 남기는 어머니의 마음공부(올해의 불서 10)〉, 〈아픔을 다스리는 마음공부(세종우수도서)〉, 〈아름답게 늙어가는 지혜〉, 〈마음의 평온을 찾아서〉를 출간했다.

INSIDE

B3~7 창간특집 기획 불교언론&뉴미디어
B8 출판 〈초의 스님 전상서〉 박동춘 지음
B9 문화 국博, 한국문화재 폴란드 展



최혜자의 첫번째 부처님 그림(2003년 作)


최혜자의 '아프리카 부처님'.


2018.NC갤러리 전시회 모습. 중앙 최혜자, 좌 두번째 덕현 스님.



최 작가가 출간한 도서들.

부처님 그리며 苦海 건너는 '부처님 학생'

'최혜자 작가' B1면에서 계속

최 작가는 불교를 그렇게 말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당연한 일이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새롭고, 삶을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졌다. 그런 그녀를 제일 먼저 알아본 것은 그녀의 아들이었다. 30년 넘게 보아온 어머니가 달라지고 있었다.

"엄마, 엄마가 공부하는 거 말이야. 그거 내가 알아보기 쉽게 적어줘 나도 좀 해보게"

어느 날, 최 작가의 아들이 말했다. 그녀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아들이 보기에 엄마의 성격은 너무도 강하기만 했던 엄마였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엄마에게 부드러움과 넓음, 수용, 포용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 엄마 못된 성격이 변해가는 거 보니까 그 공부 괜찮은 공부 같아."

다섯 살에 고국을 떠나 병마로 힘겨워하는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아들이었다. 낯선 이국땅에서 기댈 곳이라곤 성경밖에 없었던 모자였다. 최 작가는 아들의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다. 불법의 위대함을 알게 된 최 작가는 아들에게도 불법을 전해주고 싶었다. 최 작가는 아들이 해달라는 일을 시작했다. 아들을 생각하며 적기 시작한 작은 글들은 '집필'이 되어갔다. 그리고 2014년 집필은 출간으로 이어졌다. 책 〈아들에게 남기는 어머니의 마음공부-운주사〉가 세상으로 나온다. 집필을 시작한지 12년만의 일이었다.

"아들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설명해주자는 의미에서 내가 하는 공부의 과정과 마음과 정신자세,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방법과 나의 생각을 밝히고, 아울러 불교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선배들의 선문에 의지하여 정성을 다해 썼어요. 한 마디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노트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은 그 해 '올해의 불서 10'에 선정된다. 그리고 최 작가는 그 이후로 〈아픔을 다스리는 마음공부(세종우수도서 선정)〉, 〈아름답게 늙어가는 지혜〉, 그리고 화집 〈마음의 평온을 찾아서〉를 연달아 출간한다.

부처님만 그리는 화가

최 작가는 2002년부터 부처님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처님만 그린다. 2018년 가을 고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경기도 용인 NC갤러리에서 63점의 부처님 그림으로 전시회를 열었다. 그림의 반응은 종교를 떠난 반응들이 많았다. 평온을 느끼게 한다는 최 작가의 부처님은 종교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최혜자의 마음을 전했다.

1997년, 최 작가는 또 한 번의 큰 시련을 맞는다. 가을이었다. 그녀는 수술대에 눕는다. 안과 수술이었다. 잘못하면 두 눈을 모두 잃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수술실로 실려 가면서 생각했다. "운이 나쁘다면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마취를 하고 누운 그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세계에서 문득 생각했다. "연꽃을 그리고 싶다. 두 눈을 잃지 않는다면 나는 다시 받은 두 눈으로 연꽃을 그리고 싶다." 그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원했다. 다행이도 최 작가는 두 눈을 잃지 않았다. 퇴원 후 그녀는 수술 전의 서원대로 연꽃을 그리기 시작한다. 반쯤 찌그러진 눈으로 종이와 붓을 찾아서 연꽃을 그려본다. 그림공부라고는 중고등학교 미술시간이 전부였던 그녀였지만 그녀는 정성을 다해 연꽃을 그린다. 느닷없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연꽃이 일어났다. 아니 피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만 피는 꽃이 아니었다.

병마와 함께한 귀의 · 수행

1988년 프랑스 파리 이주

2002년부터 부처님 그림 그려

아들 위한 불교 책 집필

12년 후 〈아들에게~〉 출간

화집 포함 4권의 불서 출간

2018년 귀국, 전시회 열고

〈마음의 ~ 〉 화집 출간

부처님 그림 200여 점 그려

시간이 흘러 2002년, 최 작가가 프랑스 파리에서 살고 있을 때였다. 아들을 위한 집필(책 '아들에게 남기는 ~')을 시작했을 무렵이었다. 최 작가는 문득 부처님을 그리고 싶어졌다. 연꽃을 그리고 싶었을 때처럼 문득 마음속에서 부처님의 모습이 일었다. 그야말로 최 작가는 부처님을 좋아하게 된 것이다. 그랬다. 그녀는 부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다.

무작정 유화물감을 사들고 온 최 작가는 부처님을 그리기 시작했다. 마음속에서 자꾸만 일어나는, 그냥 둘 수 없는 부처님을 그녀는 그림으로 그렸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부처님의 모습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미술사 어디에도 없는 화풍으로 최 작가는 최혜자만의 화법으로 부처님을 그렸다. 화법은 마음속에서 일어난 부처님을 그대로 캔버스에 옮기는 것이었다. 유화물감 한 번 개 본적 없는 최 작가는 캔버스에 자신이 마음속에서 본 부처님을 그려내기 시작했다. 화가 탄생이었다. 부처님만 그리는 화가의 탄생이었다.

"집 안에서 오직 나의 병마들과 함께 혼자서 지내는 형편이니 미술 수업을 청할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간절히 그리고 싶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무엇인가를 그리고 싶었다. 그것은 부처님이었다.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았다. 화판을 덮고, 다시 붓을 들었다. 어제 마음속에서 보았던 부처님을 그렸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서 보았던 부처님을 그려나갈 수 있었다."

최 작가는 불경을 읽다가 기쁨이 가득할 때 그 기쁨으로 붓을 잡고 부처님의 미소를 따라간다. 불경과 그림 사이에서 매일같이 몇 시간씩 보내고 나면 저절로 충만함에 빠져서 그날그날을 중병에 걸린 사람 같지 않게 평화스러움 속에서 보냈다. 그림을 그린 것이라기보다는 부처님의 학생으로서 부처님의 고요한 미소와 편안한 세계를 돌아다녔다. 우선 마음부터 가다듬었다. 깊은 고요에서 붓을 잡았다. 그리고 그려낸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을 느낀다. 그녀는 병마의 고통과 그로 인한 외로움을 그 부처들로 지나올 수 있어서 행복했다.

최 작가는 언제부턴가 아프리카 부처님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삶 전반을 지배했던 것은 '고통'이었다. 고통을 안고 살았던 최 작가의 마음이 아프리카의 고통에 가닿았다. 최 작가는 아프리카에도 부처님이 나투어야 한다는 생각에 가닿았다. 최 작가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아프리카 부처님을 그려내고 있다. 검은 얼굴의 아프리카 부처님은 최혜자만의 부처님이다. 최 작가는 그렇게 아프리카 부처님을 그리고 나서 좀 더 확장된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게 됐다. 최혜자에게 있어 그림의 확장은 공부의 확장이다. 그녀는 자신이 그려낸 아프리카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만중생의 곁에 머무는 부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됐다. 그로 인해 최 작가는 많은 경전의 가르침들을 새롭게, 더 깊이 있게 느끼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최 작가는 200여 점의 부처님을 그렸다.

올해 봄, 최 작가는 전시회에서 선보였던 부처님 그림과 글들을 묶은 책 〈마음의 평온을 찾아서-운주사〉를 출간했다. 부처님 공부 중에 얻은 최혜자의 공부와 그 공부로 그려낸 부처님 그림을 엮은 책은 최혜자라는 부처님의 학생이 쓴 그림일기처럼 보인다.

최 작가는 지금도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는다. 하지만 그의 얼굴 속엔 늘 부처님의 얼굴이 살고 있다. 늘 부처님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을 그리고 있는 사람의 얼굴에서는 부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불교공부라는 것이 그런 것이었다. 늘 부처님을 그리는 것, 그것이 불교공부였다. 최혜자는 오늘도 부처님을 그리고 있다. 아프리카 부처님을 넘어 또 어떤 부처님을 만나게 될까.

현대불교신문 창간 25th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BONG EUN SA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 奉恩寺 |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삼성동 73번지)
TEL 02)3218-4800 | FAX 02)544-2141





'디지털 혁신', 불교 미디어 시대적 화두

[Prologue] 불교 미디어 혁신 필요하다

#불교신도 A씨는 하루를 '유튜브로 시작하고 유튜브로 마무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유튜브로 음악을 듣고, 필요한 정보들도 찾는다. 쉬는 시간에는 예능이나 드라마를 요약한 콘텐츠들을 본다. 간간이 마음의 안정을 위한 명상 음악들도 찾아본다. 집에 퇴근해서는 유튜브에 올라온 염불을 틀어놓거나 요가 등을 따라하기도 한다. 자기 전에는 불교계 방송국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사찰ASMR을 듣는다.

바야흐로 뉴미디어 전성시대다. 그 중심에는 유튜브가 있다. 대중들은 글 · 사진으로 채워진 블로그 대신 동영상으로 보고 듣고 즐긴다. 이제 유튜브는 단순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 아니다. 언론의 지위까지 넘보고 있는 새로운 미디어 공룡이다.

실제, 〈시사IN〉이 창간 12주년을 맞아 전국 성인 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칸타코리아와 함께 '2019년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언론 매체 중 가장 신뢰하는 매체 2위로 유튜브가 꼽혔다. 1위는 JTBC였다. 이는 신문, 방송, 인터넷, 포털사이트, SNS 언론매체까지 포함한 결과다. 이는 대중들은 유튜브를 비롯한 SNS를 중심으로 활동한 매체들도 '언론 미디어' 범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2018 언론수용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은 2011년 19.5%에서 2018년 80.8%으로 증가했다. 7년 간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반면 종이신문은 2011년 44.6%에서 지난해 17.7%으로 감소했다. TV는 85.4%로 가장 높았지만 모바일 인터넷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동영상 플랫폼 이용률은 평균 33.6%로 종이신문(17.7%)과 라디오(20.8%)보다 높았다. 특히 20대의 온라인동영상 플랫폼 이용률은 64.3%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30대가 48%의 이용률로 뒤를 이었다. 앞선 모바일 인터넷의 성장을 감안하면 이제 언론 미디어의 콘텐츠는 '모바일'과 '유튜브'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됐다. 주류언론이 유튜브 채널에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실제 급변하는 미디어 지형에 메이저 언론 · 방송들은 오리지널 콘텐츠와 라이브 · 서브채널에 매체의 명운을 걸었다. 한겨레 TV는 '김어준의 파파이스'로 큰 호응을 얻었고, JTBC는 손석희 앵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유튜브 등 뉴미디어 전성시대
신문 · 방송 새로운 전략 모색
불교계 미디어들 대응 안보여
뉴미디어로의 확장성 고민을

SBS 스브스 뉴스, 한국일보 PRAN 등은 리뷰나 체험 콘텐츠를 통해 자사 기자들을 '크리에이터'화 하는 경우도 있다. 아예 기자 자신이 유튜버로 활동하기도 한다.

또한 언론 미디어들의 유튜브 채널은 '분화'하고 있다. 하나의 채널이 궤도에 오르면 서브 채널을 여는 방식이다. JTBC는 뉴스이외에도 엔터테인먼트, 드라마, 언예, 웹 예능 등으로 분화시켰다.

세상은 미디어 혁명이라는 격랑에 있지만, 불교계 미디어들에게는 '찻잔 속의 태풍'과 같다. 본지의 경우 페이스북을, 불교신문이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불교신문은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시험용 콘텐츠를 업로드 했다. 법보신문은 올해 초 유튜브를 활용한 인터넷 방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나마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곳은 방송 매체들이다. 가장 두드러진 곳은 BTN불교TV다. BTN 유튜브 채널은 단순 프로그램 업로드가 아닌 전용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구독자를 12만 명으로 늘렸다. 이는 종교방송 유튜브 중 최대 구독자다.

종합 미디어 그룹을 꿈꾸는 불광미디어는 '큐레이션 미디어' 형식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제 불교계 미디어들은 '디지털 퍼스트'를 넘어 '디지털 혁신'을 준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대중들의 니즈를 파악한 콘텐츠와 구성 언론인들의 뉴미디어 참여를 주문했다. 또한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충고했다.

이화행 동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불교언론들은 미디어하우스로 변신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을 열린 자세로 시험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권준 BBS불교방송 뉴미디어팀장은 "업종 · 직종 간의 장벽을 허물고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구성원에 대한 적극적인 재교육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뉴욕타임즈〉의 '2020 혁신보고서'의 한 구절을 소개한다.

"가장 안 읽히는 콘텐츠는 의무적이고 정기적이며 특징없고, 콘텍스트 없고 비주얼이 없고, 경쟁자들과 다르지 않은 기사다. 이것들에는 돈을 지불할 가치가 없다. 공짜로 비슷한 것들이 널려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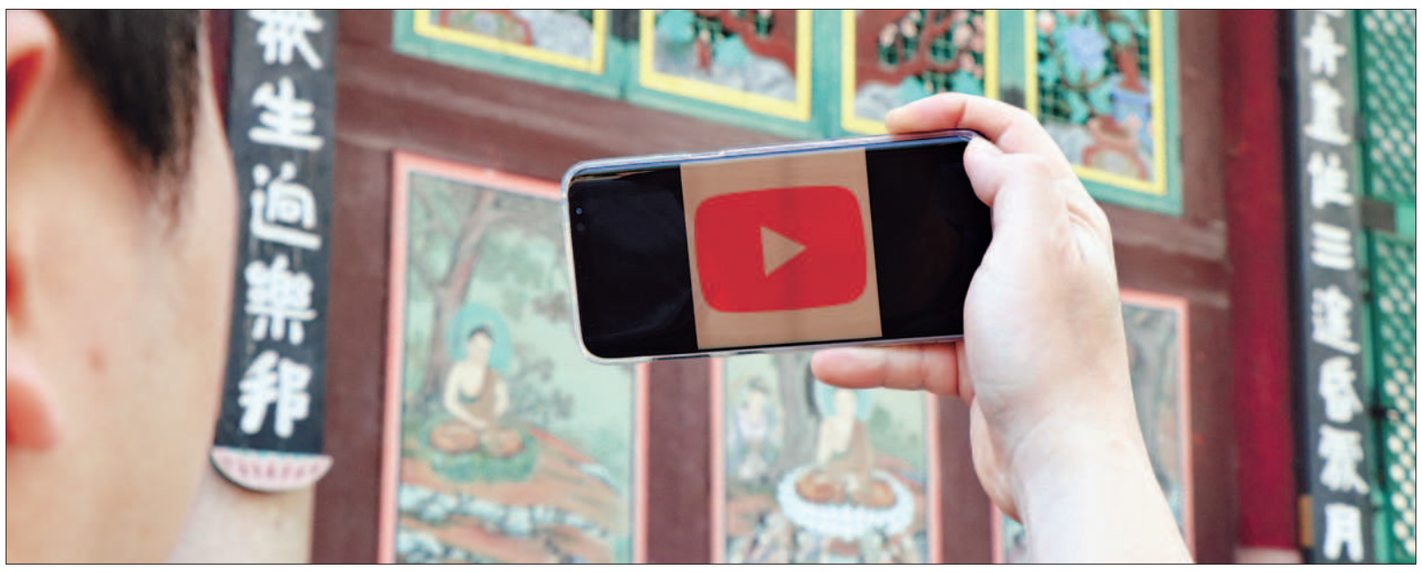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모바일’ ‘영상’, 불교미디어 생존 키워드

불교 미디어의 뉴미디어 현주소는



뉴미디어 도래로 전통미디어 쇠락

“우리는 두 개의 집을 갖고 있다. 한 집은 불타고 있고, 다른 한 집은 건설 중이다.”

가디언 칼럼니스트인 제프 자비스는 전통미디어가 처한 위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TV와 신문을 비롯한 전통미디어는 위기에 처해 있다. ‘뉴미디어’로 대변되는 위기의 탈출구는 전통적인 미디어의 형태를 유지시켜 줄지 불투명하다.

뉴미디어의 도래는 전통미디어의 쇠락을 의미한다. 오랜 시간 4대 매체로 불린 TV, 라디오, 신문, 잡지는 모두 공통의 위기를 겪고 있다. 뉴스 생산량은 과거보다 폭발적으로 늘었고 소비량도 늘지만 전통미디어를 통한 소비는 점차 줄고 있다.

이런 변화는 미디어 소비에 따른 수익구조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글로벌 미디어 시장조사업체인 제니스옵티미디어에 의하면 세계 모바일 광고 시장 점유율은 2018년에 2015년 대비 두배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 광고 영역에서도 모바일 인터넷이 데스크톱 인터넷 광고시장을 추월했다.

인터넷 부문 시장 성장세는 연평균 14%로 그 원동력은 모바일이다. 글로벌 광고시장 매체별 비중을 살펴보면 모바일은 2015년 9.2%에서 2018년 18.7%로 9.5%의 비중 증가를 이뤄냈다. 반면 TV는 2015년 37.2% 대비 2018년 34.1%로 3.1% 감소를 기록했으며, 신문은 12.8%에서 9.9%로 2.9%가 감소했다.

모바일 뉴스도 영상 플랫폼으로 귀결

모바일을 주축으로 한 뉴미디어는 영상 플랫폼으로 점차 귀결되고 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유튜브 플랫폼으로의 귀결이다. 전통미디어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미디어 수용자의 외면 속에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전통미디어와 다른 미디어의 접점은 2012년 뉴욕타임즈가 선보였다. 뉴욕타임즈는 온라인 기사 ‘스노우폴(snowfall)’을 통해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영상, 인터뷰, 게임을 하는 듯한 콘텐츠 등을 내보였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일보 ‘와글와글 합창단’, 경향신문 ‘그놈 손가락’ 등 벤치마킹한 콘텐츠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콘텐츠는 곧 한계에 닥쳤다. PC에서 모바일로 빠르게 이용패턴이 변화하며 PC에서 제대로 소화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모바일 환경에 맞지 않게 된 것이다. 구글의 연구결과를 보면 사람들의 주의집중 시간은 8초에 불과하다. 바쁜 현대인들이 장문의 텍스트로 된 뉴스나 긴 영상을 보지 않는 이유다.

영상 플랫폼으로 너도나도 진출

이런 까닭에 다양한 매체들이 앞다투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뉴스서비스를 하고 있다. SBS는 2015년 서브 브랜드인 비디오 머그를 런칭했다. 비디오머그는 기존 뉴스 촬영 영상 중 뉴스화 되지 않은 자투리 영상을 재가공하는 ‘자투리 저널리즘’으로 존재감을 넓혔다. 특히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외부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버티컬 브랜드 전략으로 순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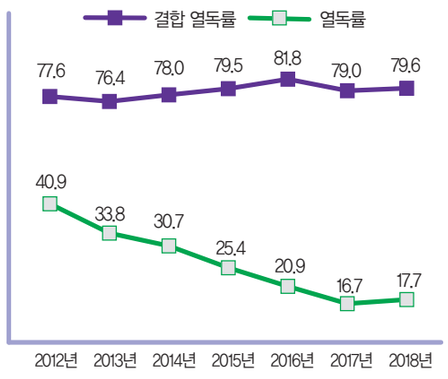
JTBC 또한 JTBC뉴스룸과 JTBC소셜스토리라는 버티컬 브랜드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적극 공략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보도 목적의 뉴스, 미디어로 분석툴 빅풋9에 등록된 언론사들의 유튜브 지형을 살펴보면 동영상 플랫폼에 최적회된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송사들의 강세다. YTN뉴스를 필두로 JTBC뉴스, 비디오머그(SBS), SBS뉴스, KBS뉴스 순으로 순위가 형성됐다.

한국일보의 프란, 국민일보의 취재대행소 왱, 헤럴드경제의 인스파이어 등 종이신문의 영상플랫폼에 맞는 버티컬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지만 도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노력에 비해 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

영상 미디어에 대한 수요는 유튜브 외의 새로운 플랫폼의 탄생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숏 비디오 플랫폼 ‘틱톡’으로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의 경우 ‘뉴스쿨(Newschool)’을 런칭하며 “30초 안에 설명해 줄게, 뉴스 좀 봐줘”란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다. 1020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30초의 짧은 동영상을 전하겠다는 의미다.

신문 열독률 추이 (2012~2018) 한국언론진흥재단



인터넷 시장 성장 근간 ‘모바일’
긴 시간, 조작 필요한 콘텐츠 도태
유튜브 비롯해 짧은 영상 ‘각광’

굼뜬 불교계 움직임, 새싹 움틀까

그렇다면 불교계 미디어들의 뉴미디어에 대한 접근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교계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 전통미디어인 TV, 라디오, 신문, 잡지 영역에서 소규모지만 나름의 경쟁력을 지녔던 불교계 미디어들은 조금씩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뉴미디어에 대응하고 있는 곳은 월간지와 단행본 출판에서 최근 콘텐츠 유통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불광미디어 그룹이다. 불광미디어는 2017년 6월 사용자 맞춤형 큐레이션 홈페이지를 선보인데 이어 그동안 쌓아온 잡지와 출판 콘텐츠 역량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적극 전하고 있다.

홈페이지뿐만 유튜브 채널, 블로그,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팟캐스트 등 다양한 매체를 운영하고 있다. 교계 최다인 불광미디어 페이스북의 팔로워는 최근 1만5000명을 넘어섰다.

BTN불교TV는 유튜브 채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1월 뉴미디어 전담 부서를 신설했으며, 이후 4월부터 유튜브 전용 콘텐츠를 제작·편성하기 시작했다. 이후 유튜브 구독자가 폭등했고, 현재는 12만8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종교 방송 유튜브 채널 중 최대 인원이다.

BBS불교방송은 뉴미디어 T/F를 운영하고 있다. 전담 팀장 아래 관련부서에서 파견된 11명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고 있다. 현재는 라디오·TV프로그램을 유튜브용으로 다이제스트해서 업로드하고 있다. 구독자는 4만3000여 명이다.

이외의 불교계 언론들은 뉴미디어로의 접근, 확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불교신문 정도만이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시험 영상을 업로드했다.



불교미디어의 뉴미디어 활로, 융합

불교계 미디어의 미래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융합을 통한 결합 열독률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으로 경계를 허물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한다.

신문의 경우 인터넷 뉴스를 활용하여 2000년대 종이신문에 닥친 위기를 돌파한 바 있다. 앞서 밝힌 감소하는 열독률 속에 인터넷 뉴스와 결합한 열독률은 2012년 77.6%에서 2018년 79.6%까지 꾸준함을 유지했다.

강재원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장은 “영상플랫폼 진입과 인터넷 뉴스, 종이신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열독률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많은 미디어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미디어의 변화는 곧 생존에 직결된다고 말한다. 최근 미디어의 변화는 유튜브를 축으로 한 영상플랫폼으로의 급격한 이동으로 자리하고 있다. 영상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뉴미디어의 도래는 기존 전통미디어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미디어계에서 불교계 미디어는 어떤 생존전략을 택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모습에서는 어두운 미래만이 비친다.

노덕현 기자

‘융합’으로 콘텐츠 전달력 유지

해외 불교미디어의 뉴미디어 진출 현황

해외의 불교미디어는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태생적으로 역사가 짧기에 뉴미디어 환경에서 불교콘텐츠를 전하는 것도 있지만, 전통적인 미디어의 변화도 감지된다.

대표적인 불교잡지인 ‘트라이시클’의 경우 종이잡지와 함께 웹을 통해 불교콘텐츠를 제공한다.트라이시클은 잡지형태지만 명상 수행 교육과 대담 프로그램 등 현장체험의 장을 통해 복합적인 미디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가장 유명한 것이 트라이시클이 2012년부터 5월에 개최하는 붓다페스트다. 명상관련 법문, 강의, 영화상영과 음악회 등이 진행되는 자유분방한 대회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진행되고 있다.

자제공덕회가 운영하는 대만의 유력 TV방송인 대애TV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자사 콘텐츠를 전송하고 있다. 특히 총 구독자 28만명의 유튜브 채널은 대애채널 1,2와 WORLD 등 총 3개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30개의 동영상을 올린다. 대부분의 영상은 건강과 환경보호와 같은 불교사상의 실천과 불자들의 삶에 맞춰져 있다. WOLRD 채널의 경우 영문 자막과 유튜브 자동번역 기능 등을 활용해 해외 불자들도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 명상이 각광을 받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오프라인에서의 융합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뉴욕에서 활동 중인 명상 스튜디오 비타임은 LED조명 버스에서 이동하며 음악과 함께 명상세션을 할 수 있게 한다. 뉴욕의 루빈 뮤지엄의 경우 미술작품을 보며 명상을 할 수 있다. 루빈뮤지엄은 명상프로그램 참가가 힘든 이들을 위해 팟캐스트도 운영하고 있으며, 뉴욕 통찰명상센터와 파트너십을 맺고 명상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대만 대애TV 유튜브 채널.

현대불교신문 창간 25th을 축하합니다
성 원 사
신도일동
충북 영동군 용산면 율리2길 2-17 TEL 043)742-7098

한마음선원은
불법의 궁극적 목표인 한마음을 깨닫게 하는 도량으로서
모든 중생이 본래로부터 지니고 있는 불성을 밝혀
성불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25th 현대불교신문 창간 25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부산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전화 051)403-7077
부설 한마음유치원
www.한마음유치원.kr

쌍방향 소통으로 '설법포교' 이끈다

BTN 유튜브 '광우 스님 마음수행 법회' 현장

10월 7일 서울 종로 견지동 전법회관 지하 1층. 월요일 오후 2시였지만, 40여 명의 대중이 스님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간단한 촬영 장비가 강의를 촬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여기는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이하 BTN)의 유튜브 채널 전용 콘텐츠인 '광우 스님의 마음수행 법회' 제작 현장이다. PD 2명, 카메라 2대의 단촐한 인원과 장비이지만 강의 촬영에는 크게 문제가 돼 보이지 않았다.

광우 스님의 강의는 〈천태소지관〉을 교재로 한 불교 교리 강좌로, 이날 스님은 6근 · 6경 등 마음작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간간히 별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이미 두터운 팬 층이 생겼다.

지난 6월 첫째주 월요일에 첫 녹화를 했지만, 인원이 늘어서 장소를 조계사 불교대학 소강의실에서 전법회관 지하로 옮겼다. 1시간여 강의는 유튜브에 맞게 편집해 2편으로 나눠 채널에 올라간다. 1편당 조회 수는 평균 3~4만회에 이른다. 스님의 눈높이 강의와 좋은 호응에 '마음수행 법회'는 유튜브 전용 콘텐츠에서 TV 정규 편성으로 올라가기도 했다.

강의 참가자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다. 현장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수강생 김도피안(30) 씨는 "기존 강의는 놓친 것이 있으면 확인이 불가능했다. 피치 못한 사정으로 강의에 결석하면 해당 내용을 들을 수 없다"면서 "유튜브에 강의가 올라가니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부분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좋다.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점도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천태소지관〉 강의 담아내
유튜브 전용서 정규 편성돼
"언제 어디서나 강의 들어요"

채널 구독자 12만명 돌파해
종교방송 중 최대 구독 기록

광우 스님은 "유튜브 제작을 겸하는 강의는 수강생들의 복습뿐만 아니라 불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용이하다"면서 "사찰에 찾아가 법문을 듣는 것이 기존의 포교였다면, 이제는 유튜브 등의 미디어를 통해 법문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설법 포교'의 대중화 · 전국화 · 글로벌화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BTN 유튜브 전용 콘텐츠 '광우 스님의 마음수행 법회' 제작 현장.



BTN 유튜브 채널. 12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양질의 콘텐츠들은 BTN 유튜브 채널 발전의 원동력이다. BTN은 올해 1월 뉴미디어 전담 부서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채널을 운영했다. 개점 휴업 중이었던 채널은 지난 7월 구독자 10만명을 돌파했고 이제는 12만8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종교방송 유튜브 채널 중 최대 구독자 수를 기록한 것이다.

BTN 유튜브 채널은 단순히 기존 프로그램을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맞게 편집하고 TV에서 미처 보지 못한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채널 구성도 다채롭다. 스님들의 법문과 강의를 비롯해 인문학 · 명상 · 사찰순례 · 불교문화들을 다양하게 영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불교종합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선보이고 있는 유튜브 전용 콘텐츠는 BTN 유튜브 채널의 자랑이다. 생생하게 불교역사와 문화재에 대해 낱낱이 알려주는 '자현스님의 쏘댕기기', 도심근교의 사찰과 자연의 풍경과 소리를 그대로 담은 ASMR '쌩백색소음', 20~30대를 겨냥하여 특색 있는 사찰들을 소개하는 '안녕, 템플 톡톡' 등이 그것이다.

한효진 BTN 뉴미디어부장은 "유튜브에도 가짜 불교 상식들이 범람하고 있다. 유튜브 다운 콘텐츠이면서도 제대로 된 불교를 알려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불교를 쉽게 만날 수 있는 플랫폼도 고민하고 있다. 이를 기존 미디어에서 찾을 수 없었던 차별화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불교를 소재로 한 크리에이터들의 허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이제는 '유튜브'로 잡지를 보고 듣는다

융합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나는 '불광미디어'

불교계 전통미디어 중 하나인 '잡지'와 '불교서적'. 이른바 종이매체의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그 변화는 4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불광출판사의 또 다른 이름 불광미디어 그룹이 이끌고 있다.

불광미디어 그룹은 뉴미디어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는 대표적인 불교미디어다. 불광미디어는 오래전부터 E북 제작 등 월간지와 단행본 출판에서의 변화를 꿈꿔왔다.

본격적인 변화는 2017년 6월.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합하며 큐레이션이란 사용자 맞춤형 홈페이지로 개편했다. 당시 불광미디어 홈페이지는 대중강연과 스님들의 법회영상 등을 비롯한 영상콘텐츠와 디지털화된 기존 잡지 내 콘텐츠를 선보여 화제가 됐다.

여기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네이버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불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하고 있다.

불광미디어가 이처럼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것은 융합미디어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 투자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투자는 올해 초 개설한 유튜브에 맞춰져 있다. 불광미디어는 이를 위해 콘텐츠국을 두고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기존 잡지 취재인력이 영상을 함께 찍어오면 이를 편집, 재가공하여 유튜브만의 독점 콘텐츠로 업로드한다. 각 매체간 차별화를 위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용 콘텐츠도 따로 제작하고 있다.


불광미디어 콘텐츠 회의 모습.



2017년 큐레이션 서비스를 선보인 불광미디어 홈페이지.

중요한 점은 미래에 대해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10월 8일 불광미디어 회의실에서 진행된 콘텐츠국 회의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여실히 잘 드러났다.

"현재 구독자 수는 5500여명 수준으로 10월에만 지난달 대비 22%의 구독자가 늘어날 정도로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보고에 류지호 불광미디어 대표는 "조회수에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불교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데 집중해 달라. 최근에는 유튜브 광고도 시작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이 많다"며 격려했다.

불광미디어가 진행하는 다매체를 통한 콘텐츠 전달은 뉴미디어를 통한 수익창출 외에 기존 미디어에 대한 긍정적 효과도 불어넣고 있다.

큐레이션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남형권 편집부 과장은 "홈페이지가 젊어진 것이 인스타와 유튜브의 영향과 무관치는 않은 것 같다"며 "젊은 층의 유입이 이뤄지고 기존의 출판에 대한 구독자 층도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불광미디어는 출간되는 서적마다 QR코드를 넣고 있다. QR을 통해 서적 정보와 작가 인터뷰 영상 등 독자들이 궁금해 할 정보를 함께 전한다.

정승채 콘텐츠국 주임은 "뉴미디어 접근은 결국 직원들이 적응해야 한다. 대표님을 비롯해 회사 차원에서 재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직원들의 역량이 커가고 있다"며 "조직문화에 있어서도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에서 소통이 증가한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등 긍정적 효과가 많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계 뉴미디어 선도 매체 현장 탐방

뉴미디어 전성시대다. 유튜브를 비롯한 뉴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은 정보를 얻고 여가를 즐긴다. 불교계 미디어 중에도 발빠르게 뉴미디어에 진출한 곳이 있다. BTN불교TV와 불광미디어다. 불교 뉴미디어 선도 매체들의 현장을 찾아가봤다.

〈편집자 주〉

현대불교신문 창간 25th을 축하합니다

강남한양재활의학과의원

원장 허재균 합장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3길 30 반원상가 2층 전화 02)533-9058



“불교언론 ‘미디어 하우스’로 변화하라”

언론학자가 본 불교 뉴미디어



그림 · 박구원

부수 감소 · 광고시장 축소 등
종이신문 직면 위기는 다층적

혁신적 ‘디지털 전환’ 필수과제
취재 · 구독 등 디지털 혁신해야
불교언론 기사 질적 보장 ‘우선’
실패 두려워말고 도전 시작하길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미디어 세상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속도는 빨라지고, 연결망은 촘촘하여 언제 어디에서도 거의 무제한적으로 정보이용이 가능하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은 날로 고도화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미디어에서도 범용화하여 이제는 로봇이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같은 이름조차 낯설고 미디어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디지털 기술들이 언론 산업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개인 간 사회 관계망 서비스로 시작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이 뉴스 미디어로 기능하고 있다. 동영상 제작 기술의 발전으로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리고 신종 유튜브 저널리즘까지 등장하였다. 개개의 디지털 기술들은 마구 뒤섞여 융합이라는 실체적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신문이 인터넷과 융합하고 방송이 통신과 융합하고 있다. 신문은 종이에서 디지털로 이동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뉴미디어가 아날로그 세상을 하나씩 점령하고 있다. 그리고 말한다. “멸종하지 않으려면 변화하라”고.

위기 당면한 종이신문들

판매 부수 감소, 광고시장의 축소 등 신문업계가 직면한 도전은 다층적이다. 인터넷의 확산으로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신문의 발행 부수는 절반 이상으로 감소하였다.

미국, 유럽, 한국 등 예외가 없다. 신문을 찾는 사람도 현저히 줄어서, 1998년에 64.5%였던 한국의 종이신문 구독률은 2018년 9.5%로 급감했다. 20년 전에 10명 중 6명이 신문을 구독하였으나, 이제는 겨우 1명꼴이다. 종이신문을 읽는 사람이 사라져가고 있다. 인터넷으로 무료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는 실시간으로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동영상은 재미를 더해준다. 이용자들과의 상호작용은 세상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궁금한 것은 뭐든 다시 찾아 볼 수 있다.

어린 시절 아침에 눈을 뜨면 대문 밖에 놓인 신문을 방안으로 들여오는 심부름부터 하던 아날로그 세대의 추억이 젊은 세대에게는 낯선 얘기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 환경에서, 각종 디지털 기기로 중무장한 채 성장했기 때문이다. 이들 디지털 원주민에게 있어서 디지털 이주민의 운명에 처한 기성세대의 어릴 적 추억은 생소할 수밖에 없다.

신문은 이렇듯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가? 회의론자들은 말한다. 노령 인구만이 신문을 구독할 뿐, 이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면서 20년, 30년 후 신문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낙관론자들은 문제없다고 말한다. 종이가 있는 한 신문은 계속 살아남을 것이라고. 과연 그럴까?

디지털 미디어로 전환을

지금의 신문 산업의 상황은 100년 전 운송 산업의 전환기와 대비된다. 마차는 자동차가 등장하기 전 인간에게 주요 이동 수단이었다. 하지만 자동차의 등장으로 마차는 급속한 속도로 시장에서 내몰렸다. 자동차가 운송 산업의 주축으로 자리를 잡았고, 마차는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 과정을 살아남은 마차 생산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신문 산업의 미래도 이와 같을 것이다.

종이 신문이 마차라면, 디지털 신문은 자동차이다. 디지털은 종이를 빠른 속도로 시장에서 내몰고 있다. 머잖아 디지털로 생산된 신문이 미디어산업의 주인이 될 것이다. 많은 신문이 이 전환기에 생존력을 잃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갈 것이다. 신문 산업은 미래에도 존재하겠지만 디지털 전환에 혁신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기업에게 이 미래는 보장이 없다.

이래서 디지털 전환기에 신문기업은 부단히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쳐야 한다. ‘디지털 전환’을 모든 사업계획과 전략수립의 최우선에 둬야 한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한다.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도전하며, 변화를 꾀해야 한다. 모든 것을 디지털로 전환해야 한다. 미래가 디지털에 있기 때문이다.

종이와 디지털을 강하게 연결시켜야 한다. 취재, 편집, 생산 단계에서부터 유통과 마케팅, 그리고 독자와의 상호작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디지털 미디어기업으로 변신해야 한다. 조직을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하고, 디지털 전환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조급증을 버리고 긴 호흡으로 기다려야 한다. 디지털로의 전환은 복잡한 전략과 혁신 형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신문사들은 모든 아날로그식 사고방식과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360도 디지털 사업자로 변신해야 한다. 독자 전략을 디지털 맞춤형으로 재설정하고 콘텐츠와 유통 플랫폼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수익모델과 구조를 혁신하여야 한다.

디지털 독자는 무엇을 읽는가

먼저 독자의 개념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전면 재설정하고 상응하는 미래 독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 종이 중심의 구독자 개념을 디지털 구독자로 전환해야 한다. 스마트폰에서부터 소셜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줄 아는 세대, 즉 디지털 원주민을 독자층의 중심에 둬야 한다. 이들은 디지털 이주민과는 다르게 읽고, 다른 것을 읽는다. 과거 종이 구독 환경에서는 독자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언론사는 사실상 독자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왔다. 디지털 구독은 기술적으로 신문사가 많은 독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데이터는 뉴스레터는 물론이고 맞춤형 콘텐츠를 전송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 구독자에게 단순한 뉴스 제공을 넘어 네트워킹을 위한 이벤트, 컨퍼런스 등의 부가 서비스를 통해 독자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듯 미래 독자 전략은 독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다양한 콘텐츠와 높은 수준의 콘텐츠 관여도를 달성하여 독자 관계를 공고하게 하는 독자 우선 전략이 되어야 한다.

한편, 미래 독자인 디지털 원주민은 기꺼이 디지털 콘텐츠에 돈을 쓴다. 콘텐츠를 텍스트 중심에서 탈피하여 영상으로 확장하고, 유료 콘텐츠 개발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이다. 인터넷 초기 광고 기반의 무료 콘텐츠가 폭증하면서 ‘기사 콘텐츠=무료’라는 인식이 확산됐지만, 미래에는 ‘콘텐츠=유료’라는 등식이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성인의 50%가 평균 2개의 온라인 전용 미디어를 유료 구독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두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뉴욕타임즈〉가 유료구독자 4백만을 돌파하였고,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을 중심으로 콘텐츠 유료 구독이 확산되고 있다. 구독료를 내고 수백 편의 영화 및 오리지널 TV 시리즈를 볼 수 있는 넷플릭스 서비스는 2018년 기준 1억 4천만 명이라는 유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구독은 미디어기업에게 중요한 미래 비즈니스 모델로 평가된다. 우리 언론도 ‘디지털 유료 구독’에 주목하고 이에 상응하는 콘텐츠 전략을 수립하여 유료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디어 기업은 기존의 종이나 방송 채널을 넘어서 소셜미디어의 성장 추이에 주목하고 유통 플랫폼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소셜미디어는 뉴스 이용의 주요 매체로 기능하고 있다. 전 세계 37개국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뉴스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 플랫폼을 통한 뉴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소셜미디어를 통한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 뉴스 이용은 검색에 의한 뉴스 이용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대중미디어를 통한 뉴스 이용과 차별화된다. 미디어 기업은 소셜미디어를 필수적인 뉴스 유통의 한 축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규모와 여건에 따라 소셜미디어팀이나 담당자를 두어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부응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이용의 확산은 동영상 콘텐츠의 수요를 급속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신문은 동영상 콘텐츠를 필수요소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독자의 요구와 디지털 콘텐츠의 흐름이 동영상 부분에 있기 때문이다.

불교미디어 무엇을 할 것인가

미디어 디지털 시대에 언론이 처한 환경은 녹록지 않다. 불교계의 미디어도 예외일 수 없다. 상황이 위중할수록 언론은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조직과 수익모델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독자라는 시장 니즈를 충족시키고, 미래에도 저널리즘의 품질을 유지하며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사고해야만 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정신을 디지털 전환과 혁신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신문사에서 미디어하우스로 변신하여야 하고, 디지털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점점 더 확장하여야 한다. 신문 기업은 디지털 전환을 열린 자세로 시험하고 실행해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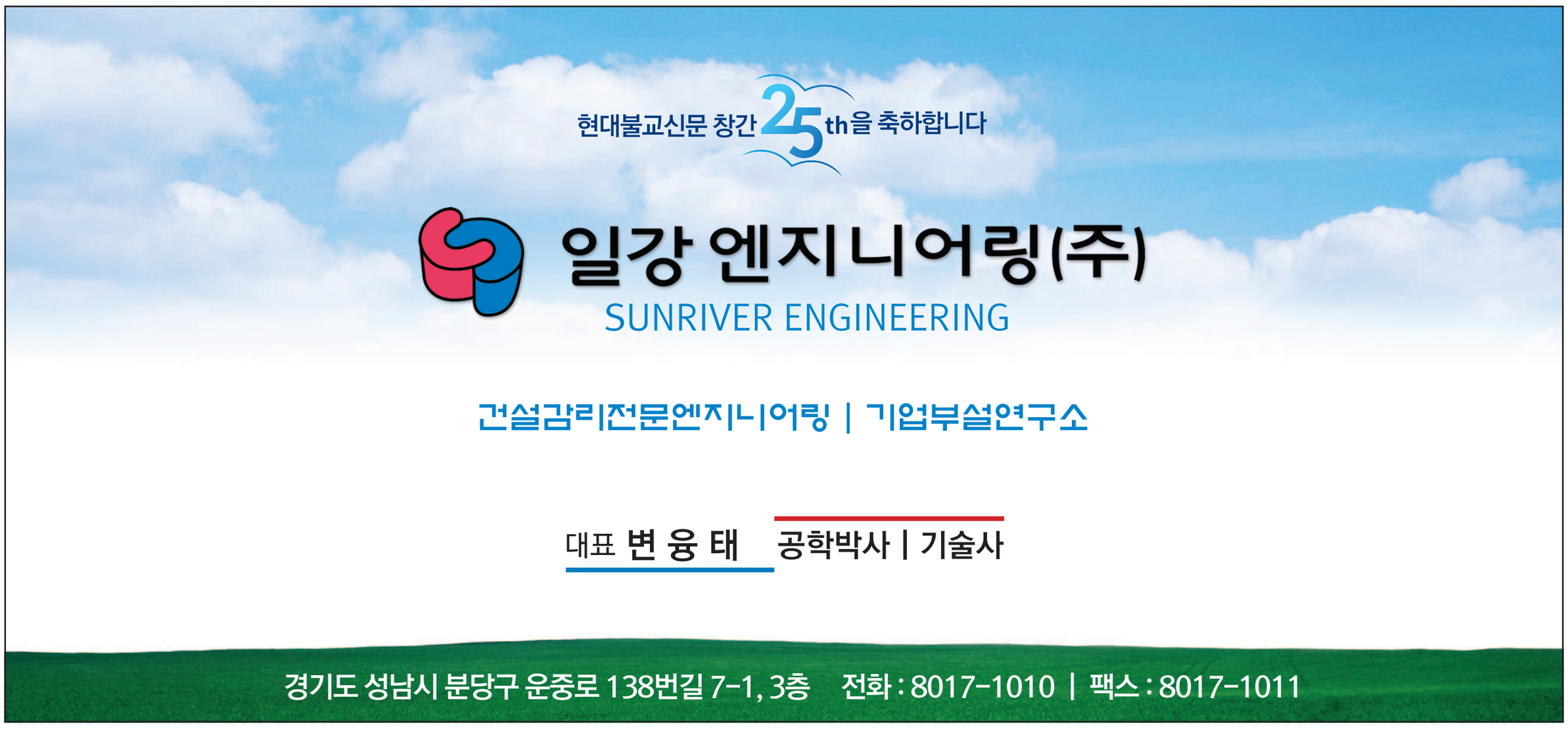
디지털 전환기를 맞은 불교 언론의 조건은 나쁘지 않다. 오히려 불교 언론은 역설적이게도 좋은 여건에 있다. 불교 언론이 불자라는 확실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라는 명확한 핵심 콘텐츠에 특화한 언론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불교 언론 미디어의 경쟁력이자 생존력이다.

여기서 불교 언론이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은 불교계 뉴스 보도의 질적 전문성이다. 불교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고 제공함에 있어서 기사의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언론 정신으로 소위 ‘퀄리티 저널리즘’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디지털 시대에 허위정보가 난무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불교 언론이 디지털 독자의 신뢰와 충성도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미래 뉴스와 언론의 품질을 지키는 디지털 미디어의 수호자로서 기능하는 길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디지털 전환 혁신이 전제 된다면 디지털 시대 불교 언론이 소멸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원하듯이.



이화행 동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불교뉴미디어 방향 전문가에게 듣다

스마트폰을 기점으로 시작된 매체 융합은 이제 스마트TV 등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 미디어들의 뉴미디어 생태계 진출도 점차 이뤄지고 있다. 이에 다양한 매체 융합 환경에서 불교계 미디어의 뉴미디어 접근에 대한 전략을 전문가들에게 들어보았다. 신성민 · 노덕현 기자

박영석 엠티아이지 대표

수용자 중심 불교미디어 플랫폼+마케팅 필요



박영석 엠티아이지 대표는 KBS뉴미디어 국장을 지냈으며 현재 언론불자회 자문위원으로 있는 불자 방송마케팅 전문가다. 박 대표는 1인 미디어의 활성화 국면에서 범불교계 차원의 뉴미디어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종교적인 속성이 다르지만 불교는 특히 스님을 중심으로 신도가 모이는 경향이 많고, 전공 분야에 따라 특별한 콘텐츠를 보유하신 스님들이 많다"며 "소자본인 상황에서 불교계 1인 미디어 활성화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표는 특히 1인 미디어는 뉴미디어 속성상 허브가 있어야 함에 주목했다. 박 대표는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각 불교 미디어 매체들이 각종 콘텐츠를 서비스하며 수익을 공유하면 충분히 플랫폼 정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 차원의 범불교 뉴미디어 플랫폼 사업추진기구를 가동해 구축해야 한다. 기존 불교 미디어들은 콘텐츠 선정과 지원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무엇보다 수용자 중심의 이른바 고객 마케팅 기법이 불교계 전통미디어에도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미디어 또한 많은 미디어 수용자들의 필요에 의해 대두된 시대 흐름이고 그 원인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대표는 "요즘 식당에 가면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젊은 고객들이 바닥에 앉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라며 "불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신도가 불편해 하면 바꾸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뉴미디어는 부처님 가르침을 책으로 보던 것을 폰으로, 법당에서 마음공부하던 것을 지하철 안에서, 법회에서만 법문을 듣던 것을 유튜브로 듣게 합니다. 제가 불교에 입문했을 때만 하더라도, 학생 불자를 비롯해서 사찰에 젊은 신도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의 젊은 신도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고연령이 되었죠. 불교의 젊은 신도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불교 미디어 매체들의 언론 마케팅의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 대표는 "불교계 미디어 매체들은 미래 한국불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절박함을 느껴야 하며, 미디어는 살아있는 생명과도 같이 항상 진화하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며 "불교 미디어의 뉴미디어의 성공은 플랫폼과 종교 마케팅이 함께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재원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장

차별화 · 다각화 없인 소멸 운명 피할 수 없어



강재원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장은 불교계 미디어의 발전 방안에 대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강 대학원장은 먼저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시 보이는 전통미디어들의 움직임을 세가지로 정리했다.

강 원장은 "매번 새로운 미디어 유형은 나왔고, 이에 대한 전통미디어들의 움직임은 저항, 다각화, 차별화로 정리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저항"이라며 "혁신과 변화에 있어 내부 구성원들의 소극적인 움직임은 결국 조직의 소멸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강 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다각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 '미디어 빅뱅' 이란 용어조차 올드하다고 평가받는 최근의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하나의 매체를 고집하는 것은 스스로 소멸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 매체의 뉴스 전달을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채널을 구성하고, 미디어 운영의 근간이 되는 수익원 또한 다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이는 차별화와도 관련이 있다. 가령 불교미디어의 경우 신행과 수행과 관련된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따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를 2차 가공하여 성지순례와 같은 오프라인의 다른 사업의 근간 자료로도 활용가능하다. 즉 기존의 구독과 광고란 고정된 틀에서만 사고하는데서 보다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강 원장은 또 불교미디어의 뉴미디어 전략에서는 차별화도 중요하다고 했다. 강 원장에 따르면 이러한 차별화는 미디어 소속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는데 조직문화가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결국 핵심은 콘텐츠 제작 능력이다. 가령 신문의 경우 지면의 기사와 인터넷 뉴스사이트의 기사가 같다면 누가 지면을 구입해 보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인터넷은 인터넷에 맞는 콘텐츠로, 지면은 지면에 맞는 콘텐츠를 실어야 한다. 기존 콘텐츠들 또한 뉴미디어에 맞는 것을 다시 찾아 재가공하는 방법도 있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인력투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원장은 "불교미디어는 불교라는 일반 사회에서 매우 독특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불교를 모르는 이들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할 때 뉴미디어에서의 성공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권준 BBS불교방송 뉴미디어팀장

불교는 '콘텐츠의 종교' 무엇 담을지 고민하라



"역사적으로 볼 때 불교는 콘텐츠의 종교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은 이야기와 콘텐츠로 전승해왔습니다. 돈황의 강창문학, 경전의 변상도와 불교회화는 당시에는 뉴미디어였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그런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있을까요?"

유권준 BBS불교방송 뉴미디어팀장은 불교 언론매체의 뉴미디어 발전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반문했다. 그러면서 불교계 미디어들은 "붓다 가르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콘텐츠입니다. '무엇을 담을 것인가' 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불교계 미디어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튜브와 같이 열린 공간에서 불교가 가진 가장 핵심적 경쟁력은 유신론적 종교와의 차별성입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교리와 태도 등 불교 고유의 본질적 특성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유 팀장은 불교계 미디어들의 뉴미디어로의 확장이 더딘 것은 '태도(Attitude)' 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불교계 언론 매체에서 다루고 있는 콘텐츠가 독자들에게 왜 필요한지 명확하게 설명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뉴미디어는 대규모 자본과 인력 등이 투입되지 않고도 시작할 수 있고, 높은 퀄리티도 크게 요구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교계 미디어들의 대응이 늦는 것은 절실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제는 고품질의 대형 자본이 필요로 하는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와 빠르고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게릴라 미디어들이 공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같은 시대에 불교계 미디어가 어디에서 승부를 봐야할지는 자명합니다. 불교계 미디어는 기획과 콘텐츠를 통해 승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유 팀장은 탈교단 · 종단을 통한 외연 확장을 제언했다. 기존 매체에게는 뉴미디어에 대한 기술 장벽을 허무는 도전을 할 것을 주문했다.

"카메라, 마이크, 장비 운용 등 기술적인 부분을 두려워하면 뉴미디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빨리 기술 장벽을 허물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기자 등 미디어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은 필수입니다.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며 서서히 고사할 것인지, 업종간 장벽을 허물며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관성 · 통상적 제작 말고 '인플루언서' 언론 돼야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전자불전콘텐츠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불교와 IT기술의 접목을 꾸준히 연구했던 불교계에서도 손꼽히는 디지털 전문가다.

이 교수는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의 근본적 차이로 '생산' 을 꼽았다. 올드미디어는 소비를 유도하지만, 뉴미디어는 기존의 소비자가 생산의 주체로 나아간다는 게 차이라는 것이다. 또한 기존 언론과 미디어는 정제된 시각을 전달했지만, 지금의 뉴미디어들은 가공되지 않는 '날 것' 을 던짐으로써 사용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했다는 것이다.

불교계 미디어들이 뉴미디어로의 변화가 더딘 것에 대해서는 시장 규모를 지적했다. 종단, 사찰, 신도 등의 디지털 생태계가 수익 구조를 창출할 정도로 확장성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콘텐츠들의 생산과 소비 · 유통의 디지털 생태계가 형성돼 있지 않다보니 달마넷이나 사자후닷컴 등의 시도들이 실패로 끝났다"며 "종단과 사찰, 신도들이 시장 규모를 키우며 불교계의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불교계 미디어들의 변화 역시 필요하다고 봤다. 예로 든 것이 템플스테이였다. 템플스테이는 사찰서 엔터테인먼트 · 문화 · 교육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불교의 전통을 계승한 스님들의 생활공간이라는 점도 메리트를 가진다. 뉴미디어를 통해 불교계 미디어가 보여줄 점도 이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불교와 대중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미디어"라며 "대중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를 파악하고 이를 콘텐츠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불교 언론인들도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influencer, 영향력 있는 SNS 유명인)' 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불교 언론인은 불교 현장을 잘 알며 일반 대중과도 소통하기에도 용이한 위치에 있다"면서 "스스로를 포교사라고 생각하면 불교 언론인도 적극적으로 뉴미디어 진출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통상적이고 관성적인 취재 방법, 뉴스 생산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선 대중과 독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OYLAND
사랑스러운 인형과 선물이 가득한곳! 토이랜드

사랑스런 인형과 선물이 가득한 곳!
토 이 랜 드

대표 황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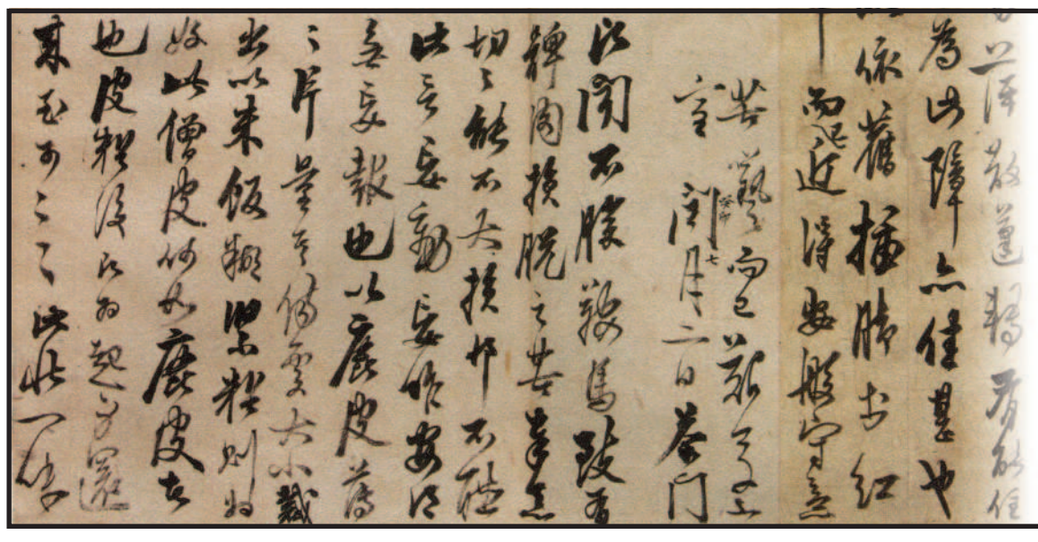
주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887
전화 : 031) 424-2976



현대불교신문 창간 25th을 축하합니다

다양한 상품이 매장에 전시되어있습니다.
토이랜드로 놀러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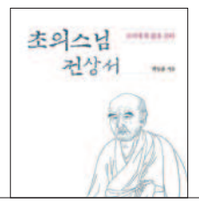
Mini girl



박동춘 소장은 스승인 응송 스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불철주야로 연구실서 공부하고, 강의하고, 차밭을 누빈다. 이번 책 <초의 스님 전상서>에 수록된 관련 편지와 시첩들도 응송 스님이 수습한 자료의 일부분이다. 17세에 대흥사로 출가한 응송 스님은 초의 스님 방계손으로, 초의의 수행력과 차에 대한 식견을 흠모해 이에 관련된 자료를 수습해 연구했다. 박 소장은 1970년대 말 응송 스님과 맺게 된 학연을 시작으로, 응송 스님 부탁을 받고 초의선사 연구에 발을 내딛었다. 이 책은 최근 발굴된 초의에게 보낸 편지 95통을 연구한 것으로, 초의의 교유사를 폭넓게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책 속 글들은 현대불교신문에 연재한 것들을 묶었다. 〈편집자주〉



초의차 완성 기여 인물들과 교신한 편지글



초의 스님 전상서

박동춘 지음/이른아침 펴냄/2만2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95통 편지 중 시대상 반영 글에 집중

초의 차 선물한 시기 1815년으로 확인

조선 후기 소치 허련 본명도 밝혀내

왜란과 호란을 지나며 서서히 스러져가던 조선의 차문화는 대흥사의 승려 초의에 이르러 일거에 그 위상과 진면목을 회복하게 되었다. 하지만 초의의 차는 깊은 산중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발전하고 완성된 것이 아니다. 다산과 추사, 홍현주와 소치 등 당대의 기라성 같은 학자와 문인, 예술가들과의 교유가 있었기에 초의차가 완성될 수 있었다. 이 책은 초의차의 완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인물들과 초의가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 해설한 책이다. 이 책에 수록된 초의 스님과 관련된 편지와 시첩들은 보내 응송 스님이 수습했던 자료의 일부분이다. 17세에 대흥사로 출가한 응송 스님은 초의 선사의 방계손으로, 초의의 수행력과 차에 대한 식견을 흠모해 이에 관련 자료를 수습해 연구했다. 저자는 최근 발굴된 자료들도 포함해 이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들도 새로이 밝혀냈다. 초의차는 누구의 격려와 도움에 힘입어 어떤 형태로 완성되었을까. 그 구체적인 실상과 초의의 폭넓은 교유의 흔적이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편지에는 시대를 막론하고 오간 사람 사이의 사연이 담겨 있기에 개인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당대 역사의 일면을 볼 수 있게 해줌으로써 미세사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편지란 역사적 사실을 연결해주는 퍼즐로, 사료의 보고(寶庫)라 할 수 있다. 이 편지들 속에는 초의와 교유한 다산 정약용과 추사 김정희를 비롯해 북학에 가졌던 인물들, 대흥사와 관련 있는 승려들을 비롯해, 해남, 전주, 남평 등지의 아전 및 지방관속의 소소한 일상사가 드러난다. 이런 면에서 그들이 초의선사에게 보낸 편지나 시문은 초의 연구에 필수적인 기초 자료일 뿐 아니라 그와 교유했던 편지와 시문 또한 풍속, 사회, 정치, 종교, 문학, 차문화는 물론 인물사를 조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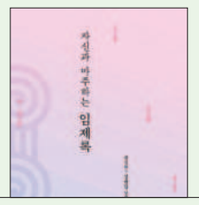
이 책에는 초의에게 온 95통 중 초의의 폭넓은 교류사뿐 아니라 조선후기의 시대상을 더욱 면밀히 볼 수 있는 편지들에 집중했다. 불갑사 도영, 안국암 우활, 도선암 성활 등 승려가 보낸 편지에는 1840년경 초의와 표충사 원장직과 관련한 분쟁의 여진을 담고 있어 승직과 관련하여 대흥사 초의와 불갑사 도영, 안국암 우활, 도선암 성활이 대립적인 입장이었음도 드러난다. 특히 이 자료는 조선후기 승직과 관련해, 승과가 실제 복원되지는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승직이 수행되었다는 방증이다.

이 책의 또 다른 성과는 초의가 사대부들과 교유할 때 차를 선물한 것이 대략 1830년경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1818년 7월 23일에 홍석주가 보낸 편지에서 초의가 홍석주에게 차를 선물한 시기가 1815년경임이 확인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이 책에 소개될 편지에서는 조선후기 소치 허련(小癡 許鍊)의 본명에 관하여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조선 말기 문신인 오세창은 〈근역서화징〉서 "소치의 본명은 유(維)이고 후일 련(鍊)으로 고쳤다"라고 주장했는데, 1839년 12월 3일 편지서 소치는 자신의 이름을 "허유 배수(許維 拜手)"라고 씀으로써 오세창의 주장이 타당함을 증명한다.

▲저자 **박동춘**은?

응송 박영희 스님에게 〈다도전게〉를 받음으로써 조선후기 초의선사에 의해 정립된 우리 전통 차의 적통인 '초의차'의 이론과 제다법을 이어받았다. 저자는 '초의차'를 잇는 한편 초의선사뿐 아니라 한국 차 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발굴 연구하는 일을 병행하면서,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성과를 모아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이사장 · 소장)서 '초의차'를 계승하는 '동춘차'를 만들며 한국 다도의 맥을 보존 전수한다. 현재는 한국전통문화대학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다. 제2회 화봉학술문화상을 수상했고, 제22회 행원학술 특별상을 받았다. 저서로는 〈초의선사의 차 문화 연구〉 〈맑은 차 적멸을 깨우네〉 〈우리 시대 동다송〉 〈추사와 초의〉 〈조선의 선비 불교를 만나다〉 등이 있다.

"도 배우는 사람은 자신 믿는 것이 중요"



자신과 마주하는 임제록

성윤갑 지음/조계종출판사 펴냄/2만원

"결코 자기 밖에서 도를 찾지 말라."

임제 스님의 참나 찾고 이해하는 길

임제 의현 스님은 달마 조사의 정통 법맥을 이은 6조 혜능 선사의 5대손으로, 임제로부터 시작된 임제종은 선종 중에서 실질적으로 천하를 다스려왔다. 그의 법어와 언행을 전한 〈임제록〉은 모든 선서 가운데 왕이자, 진서(珍書) 중의 진서로 평가받았다. 〈임제록〉은 당대(唐代) 임제 사후에 그의 제자인 삼성 혜연이 엮었고, 이후 1120년 원각 종연에 의해 재간행됐다. 〈임제록〉은 그 전체 내용을 압축한 서문, 임제 스님이 법좌에 올라서 법문하는 내용을 다룬 상당(上堂), 격식서 벗어나 대중들에게 자유로이 가르침을 설하는 시중(示衆), 선승 상호 간에 이뤄지는 선문답이인 감변(勘辨), 스님의 구도 여정인 행록(行錄), 임제 스님의 탑을 세우면서 후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쓴 전기인 탑기(塔記)로 구성돼 임제 스님의 사상을 전한다.

〈임제록〉은 우리가 '삶과 자신의 근본'을 찾고 '진정한 나는 누구인지' 밝히는 데 훌륭한 길잡이가 돼준다. 이 책의 저자가 10여 년간 마음공부를 하면서 몸소 체험한 바로, 〈임제록〉을 강설하게 된 이유다. 임제 스님은 자신의 참모습을 자기 마음속에서 찾지 않고 문자나 언어 등 외상이나 타인에게서 찾고 구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다.

그래서 불수인혹(不受人惑)이라 하여 다른 사람의 유혹이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우리의 참모습은 자신에게 있고,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이를 찾을 능력을 이미 지닌다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자신의 참모습, 즉 자아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바른길을 제시한다.

임제 스님은 개념적 · 추상적 부처라는 존재를 '활발발한 용(用)'으로, 즉 눈앞서 작용하는 살아 있는 부처로서 바라보았다.

"마음의 법은 형상이 없어서 온 시방법계를 관통하며 눈앞에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핵심 사상이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본래 부처'라는 믿음이 확고하면 분주하게 바깥의 일체 경계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경계에 있어 자유롭다. 만상이 가상공체임을 통달해 서로 원융무애함을 안다. 사유를 떠난 자리서 말씀 밖의 깊은 뜻을 깨달아, 천하거나 귀하거나 더럽거나 소중하다는 분별의 망념을 넘어 비로소 눈앞에 작용하는 '마음의 성품'인 진여일심을 볼 수 있다. 진여자성이 발하는 빛을 보는 순간, 삼세육추의 번뇌는 찰나에 멸각하고 팔만사천 번뇌가 소멸한다. 그래서 끝내 말 밖의 현지(玄旨)라는 그윽한 뜻에 다다를 수 있다. 어디를 가든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곳마다 그대로가 진리의 드러남이다. 임제 스님은 "어디를 가든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곳마다 그대로가 진리의 드러남"이라고 했다. 깨친 자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물들지 않고, 가고 오는 것에 구애됨이 없이 인연 따라 걸림 없이 산다.

이것이 임제 스님이 강조한 무의도인의 길이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5th을 축하합니다

우보트레이딩

대표 이 한 용

NAVER 우보익생 을 검색해보세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149 (마두동) 강촌프라자 201호 TEL. 031-427-1274

동유럽에 불교문화재 최초로 선보인다

'한국미술 · 삶과 영혼에 깃들다' 展
10월 11일부터 2020년 1월 12일
폴란드 바르샤바국립박물관

한국 ·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금동아미타삼존판불좌상 외 다수
삼국시대 불상 · 불교미술품 등
244건 391점 우리 유물 선보여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금동관음보살좌상–여말선초, 금동, 높이 38.6cm, 국립중앙박물관



을사명동종 –고려 1185년 혹은 1245년, 청동, 높이 62.2cm, 국립중앙박물관



금동보살좌상 – 여말선초 금동 높이 37.3cm 국립중앙박물관

동유럽권에서 최초로 불교문화를 비롯한 한국문화재를 소개하는 특별전이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한국과 폴란드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10월 11일부터 2020년 1월 12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국립박물관에서 한국문화재 특별전 '한국미술 · 삶과 영혼에 깃들다(Splendor and Finesse : Spirit and Substance in Korean Art)'를 개최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15년 바르샤바국립박물관 등 폴란드의 19개 박물관과 협력하여 '폴란드, 천 년의 예술'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특별전은 교환전시로, 폴란드를 포함한 동유럽권을 통틀어 최초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전반을 소개하는 대규모 한국문화재 특별전이다.

구석기시대부터 19세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 특징을 보여주는 회화, 공예, 불교미술품 등 총 244건 391점의 유물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총 5부로 구성되었다.

△1부 '선사시대: 한국 미술의 여명'은 한반도에 처음으로 나타난 문화권인 구석기부터 초기철기까지의 시대를 다룬다. 구석기시대의 연천 전곡리 출토 '주먹도끼'가 한반도 문명의 서막을 상징하며 전시 도입부를 장식한다.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빗살무늬 토기'의 곡선적인 형태와 선각(線刻) 무늬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미의식을 엿본다. 청동기시대에 이르러 지배층의 권위의 상징물이자 의기(儀器)인 '검파형 동기'와 '간두령'이 소개된다.

△2부 '삼국시대: 무덤 속 고대인의 삶'은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의 문화를 고분문화를 통해 살펴본다. 고분 부장품을 중심으로 전시되는 삼국시대 및 가야의 토기는 각 국가별 특징을 드러내는 유물로 선정했다. 보물 제339호 '서봉총 출토 금관'을 비롯한 각종 장신구들로 선보이는 신라의 황금 문화는 신라인의 미적 감각과 공예기술을 선보인다.

△3부 '통일신라: 극락왕생의 꿈'은 삼국시대에 전래되어 통일신라시대에 꽃피운 불교문화를 중심으로 선보인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를 융합하고 유민을 포용하기 위해 불교를 국가의 중심 사상이자 대중적 종교로 발전시켰다. '금동아미타삼존판불좌상(통일신라 7세기 말, 금동, 높이 27.0cm, 국립경주박물관)' 등이 전시되는 3부에서는 불교가 전래되었던 삼국시대의 불상과 함께, 8세기에서 9세기에 이르는 통일신라 불교조각의 흐름과 특징을 살펴본다.

4부 '고려시대: 품위와 화려'는 '금동관음보살좌상(여말선초, 금동, 높이 38.6cm, 국립중앙박물관)', '금동보살좌상(여말선초 금동 높이 37.3cm 국립중앙박물관)' 등 화려하게 발전한 고려의 불교미술과 공예미술을 소개한다. '을사명동종' 등 다양한 불교의식구와 사경(寫經) 등의 금속공예는 당시의 수준 높은 미술문화와 미의식을 반영한다. 4부의 하이라이트로 선보여지는 고려청자는 바르샤바국립박물관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별도의 공간에서 집중 전시된다. 아울러 고려청자에 이어 조선의 분청사기, 백자, 청화백자를 전시하여 한국 도자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도자 테마 공간을 조성했다.

5부 '조선시대: 예로 구현된 고귀한 이상'은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왕조였던 조선시대의 미술과 문화를 유교사상을 중심으로 선보인다. 왕실 문화, 사대부 문화, 규방 문화 그리고 제사 문화 총 4개 부분으로 각 분야를 대표하는 미술품을 소개한다. 국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어보(御寶)'와 '일월오봉도'를 비롯한 회화와 문방용품, 장신구, 백자제기 등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의 문화가 다소 생소한 폴란드 관람객들에게 전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기법을 활용한 접근을 시도한다. 고려 금속공예를 대표하는 '은제 금도금 표주박 모양 병'과 '은제 금도금 고리' 등 12점을 디지털돋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세밀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848년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창경궁에서 거행된 진찬을 그린 '무신진찬도'는 외국인이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내용과 구성인 점을 감안하여 세부 장면을 터치하면 부분 확대와 설명이 제공되는 디지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보인다.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 위치한 바르샤바국립박물관은 1862년 개관하였고, 폴란드의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회화, 조각,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품 약 83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는 폴란드의 대표적인 국립박물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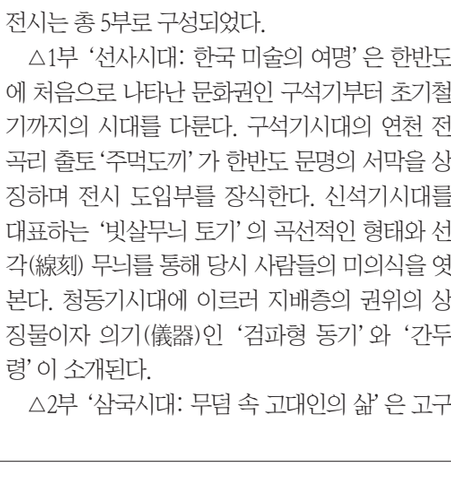
미황사 괘불과 함께하는 가을축제

제20회 미황사 괘불재 그리고 음악회
해남 미황사 10월 26일 오후 1시
원장현 · 박강수 · 미황사합창단 등

해남 미황사(주지 금강)는 10월 26일 경내에서 '제20회 미황사 괘불재 그리고 음악회'를 개최한다. '미황사의 마당'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괘불재는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괘불모심'과 6시부터 시작되는 '미황사 음악회'로 진행된다.

△괘불재(사회-화림 스님 · 장한소)는 미황사 괘불탱(보물 제1342호)을 마당으로 이운해 펼치는 '괘불이운'으로 시작된다. 헌향헌다에 이어 해남 주민이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성과를 부처님께 올리는 만물공양이 이어지고, 예불, 대흥사 조실 보선 스님의 법어, 그리고 원장현의 대금연주로 음성공양이 이어진다.

△미황사 음악회(사회 박양희)는 저녁예불로 시작한다. 남도의 우리소리와 대금 등 우리 전통악기 연주, 한국무용 등으로 구성된 음악회에서는 원장현의 대금연주 명상음악, 서점숙의 춤 '천불 새가 되어 그리다', 원장현 · 신경환 등이 함께하는 시나위연주, 이범채 · 박필수의 판소리, 박강수의 노래, 미황사합창단의 합창 음성공양, 미황사군고단의 풍물굿, 다함께 참여하는 강강술래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금강 스님, 신경환이 함께하는 '발원'으로 막을 내린다.



지난해 미황사 괘불재 모습.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은 "이곳에 처음 미황사라는 도량을 지었던 의조화상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합니다. 열두 암자의 대찰이었던 1500년대 미황사, 이곳에 깃들어 눈밝은 수행자로 살았을 선배스님들을 생각합니다. 1989년 이곳에 짐을 풀었던 그 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9년 오늘을 다시 생각합니다. 미황사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괘불로 부처님 모시고 함께 할 수 있어 참 기쁩니다"고 괘불재의 의미를 새겼다.

이번 괘불재의 만물공양에 참여하고 싶은 대중은 공양 올릴 내용을 사연과 함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061-533-3521).

미황사는 부대행사로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괘불재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와 행복한 문화장터 '해남모실장', 영산문화재연구소의 '단청그리기'도 함께 진행한다.

박재완 기자

대흥사 고품격 산사음악회

'제1회 천년사랑나무 음악회'
대흥사 10월 26일 오후 2시

땅끝 해남의 천년고찰 대흥사는 10월 26일 오후 2시 대흥사 연리목 특설무대에서 '제1회 천년사랑나무 음악회'를 개최한다.

대흥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사랑과 화합을 주제로 하림, 고상지 등 국내 정상급 뮤지션들이 모여 등재 1주년을 축하고 깊어가는 가을의 산사를 물들인다.

대흥사는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바 있다. 차문화의 성지로 불리며 템플스테이 명소로도 유명해 대중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도량이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JTBC 〈비긴어게인3〉를 통해 시청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 하림이 예술감독으로 참여한다. 또한 독보적인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흥겨운 블루그래스와 컨트리 뮤직을 보여주는 컨트리공방, 싱어송라이터 최문석과 현악앙상블 필스트링이 함께해 수준 높은 음악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의 총예술감독을 맡은 하림은 "가을 산사의 운치와 좋은 음악, 좋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이라며 "특히 지방에서 좋은 음악을 라이브로 접할 기회가 적은 분들이 특별한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번 음악회를 개최하는 대흥사 관계자는 "대흥사가 위치한 두륜산은 하늘 아래 가장 큰 산으로 꼽히는 수미산의 정기가 흘러내린 산이다. 백두대간의 끝자락에 세워진 아름다운 절 대흥사가 정성껏 준비한 고품격 음악회가 많은 분들에게 휴식과 위로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음악회는 전석 무료다. (061)534-5502.

박재완 기자



절집에 살게 된 사연도 가지가지

용, 사자, 거북, 게, 수달, 토끼, 돼지에서 도깨비, 야차, 삼신할미, 신선까지,
사찰 구석구석에 그림과 조각으로 남게 된 이들의 사연을 경전과 우리 역사
그리고 전설까지 파헤친 크로스오버 불교문화 결정판!



사찰에는
도깨비도 살고
삼신할미도
산다





법당의 현판 옆을 뚫고 고개를 내민 청룡과 황룡은 그 꼬리가
저쪽 법당 뒤편까지 뻗어 있다. 아예 법당을 달고 날아오를 기세다.
어디로 가려는 것일까? 그 옆에는 야차가 힘겨운 표정으로
사찰 지붕을 이고 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법당 안으로 들어가니 기둥에는 용에 쫓긴 수달이 나 살려라 달아난다.
수달이 고기를 물고 있어 용이 화난 것일까? 불단 아래쪽에서는 가재와 게가
맞서 겨루고 있다. 누가 이겼을까? 또 한쪽 벽에는 신선들이 끼리끼리 모여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무슨 이야기일까?



목차
Ⅰ 사령과 사신 _ 거북, 호랑이, 용(용1. 용들의 천국 / 용2. 용의 아홉 아들 / 용3. 용면와냐 귀면와냐)
Ⅱ 육지와 수중의 생물 _ 물고기, 게, 수달, 토끼, 돼지, 코끼리, 사자
Ⅲ 상상과 전설의 주인공 _ 도깨비, 장승, 악착보살, 야차, 가릉빈가, 삼신할미, 신선
Ⅳ 꽃과 풀 _ 연꽃, 모란, 포도, 매란국죽

무료 저자특강 1탄

"절에 사는 수중 생물과 반야용선"

• 일시. 2019년 10월 27일(일) 오후 3시~5시
•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조계사 내)
• 선착순 300명, 사전 접수자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신청02-420-3200)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홈페이지 www.bulkwang.co.kr

다리 밑에 코보대사가 잠들어 있다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㉚ '토요가하시'를 아시나요



코보대사가 열흘 밤 같은 하룻밤을 보냈다고 전하는 다리 '토요가하시'의 모습. 아래에 코보대사를 모신 제단이 보인다.

코보대사 노숙한 다리 '토요가하시'
"하루가 열흘 같았다"해서 붙여져
다리 위선 지팡이 안 짚는 풍습도

잠시 쉬어가려 들른 길가 대사당서
1920년대 한 순례자의 납경장 발견
시간 달라도 모두 '한 길' 걷고 있다



토요가하시 밑에 모셔진 잠자는 코보대사상.

순례자들에게 무료 숙소 츠야도를 제공하는 '토요가하시(十夜ヶ橋)'는 '에이토쿠지(永德寺)'라는 사찰의 별명이다. 토요가하시를 우리말로 옮기면 '열흘 밤의 다리'라는 뜻이다. 사찰의 연기 설화에 따르면 코보대사가 시코쿠를 돌던 어느 날 마땅한 잠자리를 구하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다리 밑에서 밤을 지새우게 됐는데 그 하룻밤이 마치 열흘 밤과 같이 길게 느껴졌다고 해서 '열흘 밤의 다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다리 밑에서 코보대사가 잠을 잔다는 전설에서 시코쿠 순례의 독특한 풍습이 하나 생겼는데, 바로 '다리 위에서는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는 것이다. 혹여 지팡이가 두들기는 소리에 곤히 잠에 든 코보대사를 깨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순례자의 지팡이도 코보대사의 화신이라고 믿는 풍습도 같이 전하는 것이다. 함께 순례했던 한 친구는 "지팡이도 대사이고, 다리 밑에 자는 분도 대사면 대체 대사가 몇 명이냐"고 농담을 한 적이 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또 어떤 순례자는 "대낮엔 일부러 지팡이를 두들기며 다리를 건너야 한다. 해가 중천인데 중생을 돌보지 않고 자는 게 대사님이냐"고 맞장구로 너스레를 떨었다.

코보대사가 하룻밤을 지냈다는 전설의 다리는 바로 이곳 에이토쿠지 바로 뒤에 있는 작은 다리로 전해진다. 대사가 비단 이 다리 밑에서만 노숙하지 않았겠지만, 일단 시코쿠 전체에서 특별히 다리 한 곳이 코보대사와 인연이 있는 성지로 여겨지는 곳은 이곳뿐이다.

지금은 비록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걸린 다리이지만, 다리 밑에는 잠들어 있는 코보대사의 상이 모셔져 있다. 대사상 위론 사람들이 이불을 공양올려 두었는데. 두껍게 쌓인 이불에 도리어 대사가 불편하진 않을까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지역에선 코보대사상에 올려두었던 이불을 받아 덮거나 배개로 쓰면 병이 낫는다는 신앙이 있다. 그래서인지 대사상 옆에 "이불이 필요하신 분은 에이토쿠지로 와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들리는 이야기로 종종 코보대사와 함께 자겠다며 이 다리 밑에서 노숙을 하는 순례자도 있다고 하는데, 자리를 살펴보니 모기가 많고 비둘기나 짐승의 오물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 현실적으로는 힘들어 보였다.

다리 밑의 대사님을 뵙고선 츠야도로 돌아와서 아침으로 편의점에서 사온 두부와 김치를 먹는다. 일본에서도 한식이 인기여서 김치 정도는 편의점에서 평범하게 팔고 있다. 다만 맛으로 따지자면 매운 맛이 덜하고 짠맛이 강하다.

간소한 아침을 먹고서 다시 길을 나선다. 오늘은 약 32K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대사당까지가 목표다. 순례자들이 잘 수 있는 대사당이 있고, 시설도 좋다고 들은 적이 있는 곳이다. 갈길이 머니 서둘러 출발한다. 아침 해가 뜨고 나면 곧 햇살이 따가워 걷기에 불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비를 피하기 위해 일찍 움직인다. 일기예보에 점심부터 계속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나왔기에 비가 오지 않을 오전 중에 최대한 거리를 뽑아둬야 한다. 하늘은 언제라도 비를 뿌릴 듯 우중충하기 그지없다.

출발한지 한 시간정도 되었을까? 일기예보는 야속하게도 내 바람을 어기고 비를 조금씩 뿌리기 시작했다. 배낭에서 우비를 꺼내 입으려고 배낭을 내리는데 길을 지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산을 든 사람이 드문 것을 보곤 그냥 비를 좀 맞으며 걷기로 한다. 아마도 잠시 지나는 비겠거니 하곤 마음을 다독여 본다. 다행히 비는 조금 내리고 그쳤지만 그 뒤로도 계속 내리고 그치길 반복해 조금씩 발걸음이 무거워져 간다.

한 4km 조금 더 되게 걷고선 순례자 휴게소에 잠시 배낭을 풀고 쉬기로 한다. '칸난도(神南堂)'이라 이름 붙은 이 휴게소도 여타의 휴게소들처럼 순례자들이 노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재미있는 것은 셀프 목욕탕이 한 쪽에 갖춰져 있다는 것인데, 그 목욕탕이라는 것이 커다란 무쇠 욕조에 물을 채우고선 아래 아궁이에 장작을 떼서 물을 데우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두고 '고에몬부로(五右衛門風呂)'라고 부른다. 이는 전국시대에 유명한 도적이었던 고에몬이라는 사람이 팽형(烹刑, 삶아 죽이는 형벌)을 당한데서 유래한 이름이란다. 장작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아궁이 옆에 쌓여 있었는데 모두 이슬과 비를 맞아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누군가 목욕을 시도하다 실패한 듯 타다만 신문지와 그을린 장작 몇 개비가 아궁이에 들어 있었다.

휴게소를 한 바퀴 휘휘 둘러보곤 다시 출발하려는 찰나, 하늘에 무지개가 걸렸다. 어제도 출발하면서 무지개 구름을 보았는데, 오늘도 길을 나선지 얼마 안돼선 무지개를 보노라니 무엇인가 불보살의 가피가 함께한다는 느낌이 가득했다. 무지개를 향해 잠시 두 손을 모아 예를 올리곤 다시 길을 나선다.

다시 한 시간 반 동안을 부지런히 걸어간다. 도중에 우치코(內子)라고 하는 오래된 마을을 관통해 지나는 순례길을 택해 걷는다. 중세부터 번성한 마을이라 옛날의 모습을 유지한 골목이나 오래된 가부키 극장들이 있어 잠시 옆길로 빠져 구경하기 좋지만, 역시나 빗속에 지친 발걸음에 다른 곳을 들리고픈 마음이 생기질 않았다.

대신 국도 옆으로 있는 미치노 에키(道の駅)에 들려 구경을 대신한다. 미치노 에키란 우리나라의 국도휴게소나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개념으로 지역의 홍보하거나 특산품을 팔곤 한다. 순례길에서 자주 마주치는 편의시설중 하나로 노숙 포인트로도 왕왕 사용된다.

미치노 에키를 어슬렁거리고 있으려니 여기저기 쉬고 있는 순례자들이 보였다. 다들 비를 대비해서 우비를 입고 있거나, 기능성 웃옷들을 입고 있었다. 개중엔 어디선가 몇 번 마주쳤던 순례자도 있어 서로 고개만 까딱하곤 인사를 한다. 결국 구경이 질려 길을 나서려던 찰나 미치노 에키로 들어오는 홋카이도팀과 마주쳤다. 우치코에 들어설 무렵 길이 엇갈려 헤어졌는데 이야길 들어보니 자기네들은 우치코의 가부키 극장을 구경하고 왔단다. 오늘 묵는 장소를 물어보니 내가 묵는 대사당보다 한참 더 가서 있는 휴게소까지가 목표라고 말한다. 서로 빗속에 조심하자고 격려하곤 다시 순례길에 오른다.

하늘은 더욱 어두워지고, 안개비가 계속 내리기에 결국 길가에서 우비를 꺼내 뒤집어쓴다. 옷이야 좀 젖어도 상관없지만 배낭이 젖으면 매우 곤란하다. 배낭안의 여벌옷들은 물론, 침낭이 젖어버리면 편안한 잠은 꿈도 못 꾸기 때문이다.

빗속에 앉아 쉴 곳도 여의치가 않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땅만 보고 걸어 나간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기예보처럼 폭우는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 걷는 지역이 다른 곳 보다 산이 깊어 산마루에 비구름이 걸려서 그런 듯하다.

결국 7km를 더 걷고서야 쉴 수 있는 곳을 찾았다. 순례길에 바로 면해있는 센닌야도 대사당(千人宿大師堂). 대사당 바로 앞의 우동집에서 관리하는 곳으로 1천여 명의 순례자가 묵어가길 발원하며 세웠단다. 배낭과 우비를 벗어 마루에 기대어 걸어 두고 푹 쉬었다가 가기로 한다. 이곳에서 오늘 목표로 삼은 대사당까지는 다시 약 7km정도. 한 3시간정도 더 걸어가면 되는 거리인데 빗속에 쉬지 않고 걸었더니 생각보다 빨리 도착할 듯하다.

대사당에 모셔진 코보대사상을 향해 3배를 올리고 살펴보니 다기의 물이 모두 말라 먼지가 껴 있었다. 아마 오랫동안 순례자들이 찾지 않은 모양인 듯했다. 다기를 내려 깨끗이 씻어 새로 청수를 올렸다. 코보대사상 주변으로도 순례자들이 올린 오사메후다며, 두고 간 경전들이 어지러워 한데 모아 정리하다보니 의외의 물건이 튀어 나왔다.

다이쇼(大正) 13년(1924)이라고 쓰여진 오래된 납경장이 종이봉투에 담겨 코보대사상 뒤에 놓여 있었다. 약 100여년 전의 후쿠오카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순례자가 88개소를 참배하고 받은 납경장이었다. 안을 찬찬히 살펴보니 88개소는 물론 시코쿠 여기저기의 신사와 사찰의 주인이 찍혀 있었다. 마침 비도 보슬보슬 오고 인기척도 없는 대사당에서 오래된 기록들을 보노라니 감회가 남달랐다. 그 옛날 코보대사가 걸었고, 100년 전 순례자가 걸었으며, 나도 걷고 있는 이 길의 오래된 기억을 살며시 들여다보는 느낌이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런 귀중한 순례의 자료가 이런 곳에 방치되듯이 놓여있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게다가 오래된 납경장의 경우 수집가들 손에 비싸게 거래된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 있다 보니 조금 걱정되기도 했다. 한순간 앞으로 가는 44번 사찰로 모시고 가야하나 하고 생각도 했지만 괜한 내 욕심 같아 다시 잘 싸서 한 쪽에 감추어 두었다.

슬슬 출발할까 하고 밖을 내다보니 마침 비도 그쳐있었고 우비도 말라 있었다. 혹시 모르니 계속 우비를 쓰고 갈까 하고 생각하다가 그냥 나아가기로 한다. 어차피 이 앞으로 오래 걸을 것도 아니고, 최종 목적지까지도 얼마 멀지 않으니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인연에 맡기기로 한다. 내일은 날씨가 맑기를 바라며 다시 한걸음씩 길을 나아간다.

〈자유기고가〉

현대불교신문 창간 25th을 축하합니다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봉사일번지

사단법인 미소원

상담 · 봉사 · 수행 · 후원

이사장 장유정

자원봉사 인증 등록기관
지역독거어르신 영양식 반찬봉사 / 만성질환자 죽봉사 어르신 심리상담
생활상담 및 심리상담 / 결핵환우 밑반찬 및 후원활동

박재완의 PhotoEssay



오늘

문 밖은 울긋불긋
중생은 또 오늘을 산다
울긋불긋한 삶을

붉은 나뭇잎 한 장 한 장에
바람은 불어
잊을 수 없는 오늘이여

지나간 날들 생각에
가슴은 무거워
쉽지 않은 오늘이여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㊷ 강영훈 前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총재

'나라를 사랑한 벽창우'…인간적 풍모 겸비

남북관계가 진전되거나 안좋아질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강영훈 前 국무총리이다. 3년전 작고한 강 前 총리는 군과 외교 · 정치 · 행정을 두루 거쳤다. 고인은 1921년 평안북도 창성군에서 태어나 국회의원,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을 역임했다. 노태우정권 시절인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제 21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고인은 1990년 9월 최초로 남북 총리회담을 성사시켰고, 그 다음달 홍성철 통일원 장관과 함께 남한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북한 평양을 방문, 김일성 주석을 만났다.

고인은 5 · 16군사쿠데타 당시 육사 교장(중장)이었다. 쿠데타 세력이 요구한 육사 생도의 혁명지지 거리행진을 거부, '반혁명분자 1호'로 낙인찍혀 구속된 후 강제 예편됐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1978년 외교안보연구원장으로 외무부에 들어갔다. 전두환정권 때인 1980년대에는 영국 · 로마교황청 대사 등을 지냈다.

정 · 관계를 떠난 강 前 총리는 1991년부터 7년간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맡아 북한 수재민 돕기 등 대북 지원사업과 남북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제의 등 남북교류 사업을 이끌었다. 1997년 세종연구소 이사장직을, 1998년 '숲 가꾸기 국민운동' 공동대표직을 맡았다

강영훈 前 국무총리는 한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나라를 사랑한 벽창우'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애국심이 대단했다. 이는 강 前 총리가 87세에 펴낸 회고록 제목이기도 하다.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을 흔히 '벽창호'라고 한다. 이 말은 평안북도 벽동군과 창성군 사람 중에서 고집 센 사람을 일컫는 말로, 강 前 총리의 고향이 바로 평북 창성군이다. 압록강과 접한 국경지역으로 교통의 중심지였다. 벽창호의 고향답게 창성군과 벽동군에서 기르는 한우도 예로부터 힘이 좋고 동시에 말 안 듣기로 유명했다고 한다. 회고록 제목에 나온 '벽창우'는 여기서 따온 것으로 자신과 이미지가 닮았다고 했다.

적십자사서 박애장 훈장 수여로 인연
퇴임 후 청백리 공직자로 존경 받아
아내 병수발로 주요 요직 거절하기도

내가 강 前 총리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것은 강 前 총리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됐을 무렵이었다. 1992년 10월 27일로 기억하는데 대한적십자사는 창립 87주년 기념식에서 재소자 포교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불교계에서는 최초로 나에게 적십자 박애장 훈장(금장)을 수여 했다. 실무자들이 당시 중앙일보에 연재된 나의 사형수 포교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 후보자로 적극 추천했다고 후일에 들었다. 부끄럽게도 적십자사쪽에서는 나를 적십자 정신, 즉 이념과 사상을 초월한 인류 구원의 박애봉사 정신과 인도주의 정신 구현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실천궁행한 이로 추천받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창립87주년을 맞아 강영훈 총재로부터 적십자 박애장을 수여받고 있는 삼중 스님.

상을 수상한 뒤 적십자사 총재실서 만났을 때 "일간신문서 보니까 총재님께서는 국무총리 임기를 끝내고 나오셨을 때 집에 가보니 비가 샐 정도로 청백리 공직자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실제로 그러셨습니까?"하고 묻자 강 前 총리는 "껄껄 웃으며, 제가 실세 총리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라고 농섞인 답을 하며, 진솔한 얘기를 주고받은 기억이 새롭다. 실제로 당시 강 前 총리 자택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동 주택가 골목에 있었다. 강북서도 조용하기로 소문난 이 동네서 강전 총리는 1953년 휴전 이후 오랫동안 살았다.

그동안 강남개발 등 부동산 광풍이 몇 차례 휩쓸었어도 꿈쩍 않고 동네를 지킬 정도로 강직성이 돋보였다.

그리고 강 前 총리는 당신이 총리가 된 배경도 설명해 주었다. "당시 나는 13대 국회의 민정당 전국구 초선의원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12월 초 청와대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지요. 대통령께서 저더러 민정당 대표를 맡아달라는 겁니다.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거절했지요. 초선 의원이 어떻게 집권당 대표를 맡습니까. 그런데 그날 오후에 다시 부르시더니 국무총리를 맡으라는 겁니다. 당시 총리감으로 생각해 놓은 분이 있었는데,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제게 부탁한다는 겁니다. 나는 군대 외에 행정 경험이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대통령께서 '하다 보면 경험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극구 권하시더군요. 미국서 공부한 민주정치 발전이론을 현실에 적용해 볼 수도 있겠다 싶어 수락한 겁니다."

이렇게 내가 30여년간 지켜본 강 前 총리는 솔직 담백하고 신사인 사람이었다. 어려운 일이라면 발벗고 나섰고, 병에 걸린 아내를 위해서 주요 요직도 거절한 인간적인 풍모를 지닌 정치인이었다. 나의 절친인 구상 시인이 작고했을때도 명동성당서 거행된 장례미사서 제일 앞에 서 있을 정도로 의리도 많았다. 남북관계는 물론 국내적으로도 보수와 진보로 갈라진 어수선한 시국인 요즈음 많이 생각나는 뚝심의 정치인이었다.

정리=김주일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25th을 축하합니다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 문의 : 민성기업 (구,대진기업)
010-2628-9944

대한제지

현대불교신문 창간 25th을 축하합니다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